



抱川을 빛낸 人物 研究

(제11집)

- 2016 학술연구발표회 -



포천문화원

抱川을 빛낸 人物 研究

(제11집)

- 2016 학술 연구 발표회 -

포천문화원

발 간 사

유래가 없는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어 넘기고 어느덧 한가위를 넘긴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누구에게나 넉넉함을 느끼게 하고 만족함을 만끽하게 하는 이 좋은 계절에 남달리 뛰어나신 학행을 통해 나라와 고장에 그 이름이 빛나고 또한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신 선현들의 업적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11회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정리하여 논문집을 발간하게 됨은 뜻 깊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일정과 연구에 바쁘시고 일상 업무에도 시간을 내시어 이번 사업에 참여하시어 주옥같은 논문을 작성하신 홍순석 박사님, 이종훈 전교님, 김창주 박사님께 고마우신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지원해주신 포천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 정종근 시의회 의장님께도 각별히 고마우신 인사를 드립니다.

포천은 예로부터 석학, 명현, 충신, 효열을 기라성같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선비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입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고장 출신 또는 포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명현들께서 각 분야에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여 선양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함길·황해·양도·병마·절도사의 입향 이래 세거의 고찰과 그중에 성명 두 자가 뚜렷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역사 속에 빛나고 있는 의주·파천·호성공신으로 임금의 수족같은 사랑을 받으신 호성공신 홍농군(弘農君) 양순민(楊舜民) 선생에 관련된 업적, 기록, 교류인물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밝히고자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안산 김문의 촌로 김성대 선생에 대해서 이 고을 향교의 이종훈 전교님께서 향리의 유림 선현에 관하여 밝으시기에 의뢰하여 성심껏 연구 구성하여 작성하신 것으로 사료하오며, 조국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몰



포천문화원장

양 윤 택

려 모두가 남부여대하여 피난길에 나서는 때에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모여 조국의 방패가 되고자 청춘을 던진 63명의 독수리유격대의 실상과 그들의 애국혼의 열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산 교훈이 되리라 사료되어 국방 관계, 군의 전사관계에 국내 굴지의 석학이신 김창주 박사님께 의뢰하여 대단한 내용을 소개하시게 되었습니다.

충성으로 조국에 보국하고 열정으로 후학을 육성하고 국가 위기에 내가 먼저 나서는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한번의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시민 모두에게 감명을 주고 이해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품위 있는 문화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축 사

포천을 빛낸 선현들의 역동적인 발자취를 담은 ‘제11회 학술연구발표회’와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천시장 권한대행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양윤택 문화원장님을 비롯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연구발표회는 포천지역의 청주양씨, 촌로 김성대, 독수리유격대가 남기고간 업적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시민들에게는 우리 지역의 풍성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나아가 학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발간이 우리시 출신 선현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으로 이어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역사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확고한 역사관을 정립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학술연구발표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선현들에 대한 업적들을 연구하여 발표하시는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축 사

포천문화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포천·가평 국회의원

김영우

매년 우리 고장 포천에서 배출된 뛰어난 선현들의 학문과 업적을 연구하여 재조명하는 자리인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의 개최와 2016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포천의 지역문화 발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애쓰시는 『포천문화원』 양윤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나라의 양기(楊起)가 고려로 들어와 시조가 된 이래로 포천의 대표적인 인물인 문장가 양사언 선생을 비롯하여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청주양씨”, 단지지효(斷指之孝)를 몸소 실천해 옥병서원에 배향된 “촌로 김성대(村老 金聲大)” 선생, 포천의 군번 없는 영웅인 “독수리유격대”를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이라는 지명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포천의 역사와 선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고장의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포천문화원의 학술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리 고장이 발전하고 새로운 길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포천시의회 의장
정 종 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의장 정종근입니다.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황금빛이 출렁이는 들녘에서 가을의 향기를 물씬 느끼는 계절입니다. 가을이 내려앉아 유난히 아름다운 우리 포천과 함께 2016 학술연구발표회에 즈음하여 “포천을 빛낸 인물연구 - 제11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천의 문화발전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보존·계승 발전시킴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학술연구 논문집을 발간하여 주신 양운택 포천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기 보다는 내가 사는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학술연구 논문집에 수록된 “포천지역 청주양씨의 정착과 세거 인물연구” 및 “촌로 김성대 선생 연구”를 통한 역사적 고찰과 지역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해 보고, 특히,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아 왔던 근현대사적 애국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포천의 의병 군번없는 영웅 호국성 독수리유격대의 연구”를 수록하면서 선인의 역사가 근현대에까지 계보로 이어지는 포천인의 정신을 재조명해 본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쯁록, 이번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가 선현과 근현대사의 정기를 이어 줌으로써 우리 포천인의 긍지를 높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원드리며 우리 의회에서 더 많은 분들의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 포천 시민의 가슴에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포천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포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우리 고장의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포천문화원의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11집 발간을 포천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포천은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고장이며, 예로부터 충신과 명현이 많이 배출된 충절의 고장으로 뛰어난 선조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것은 시민의 자긍심과 시민의식을 일깨워 행복한 삶을 이뤄가는 데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포천교육지원청에서도 20여 년 전부터 “포천의 얼 계승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면암(勉菴), 용주(龍洲), 백사(白沙), 한음(漢陰) 선생 등 우리 고장의 선현들이 남긴 정신유산을 충(忠), 효(孝), 예(禮), 염(廉)의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포천의 얼 계승교육』 시리즈의 책을 발간하고 이를 학생들의 교육에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고장에 대해 잘 알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포천문화원의 지속적인 향토사료 발간 사업은 『포천의 얼 계승교육』이 학교를 넘어 시민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논문집의 발간, 그리고 함께 개최되는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 2016 학술연구발표회』가 포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포천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워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선도할 선진시민으로서의 문화 정체성을 한층 높여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이 논문집의 발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양윤택 원장님을 비롯한 편찬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성 근

目 次

(年代順)

포천지역 청주양씨의 정착과 세거 인물..... 9

홍순석 (강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金聲大 先生의 生涯와 業績 53

이중훈 (향토사학자 / 포천향교 전교)

포천의 의병 군번없는 영웅

“호국성(護國星)독수리유격대” 111

김창주 (前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

여 백

포천지역 청주양씨의 정착과 세거 인물

강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홍 순 석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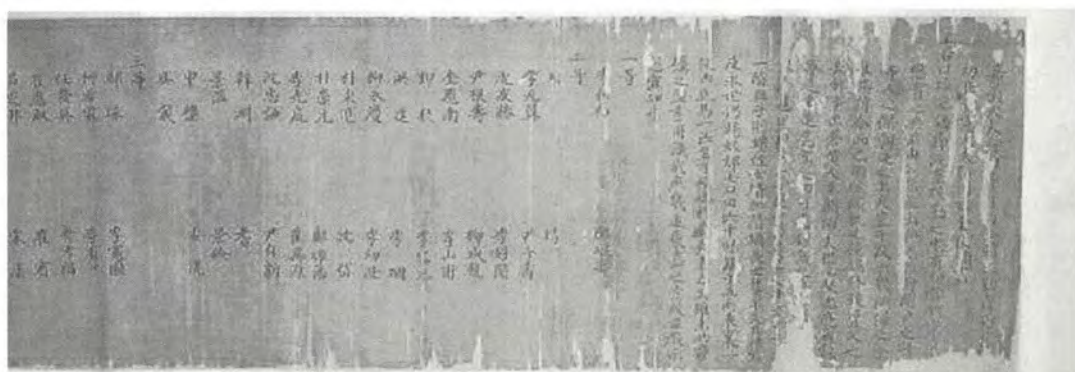
p.10-12



< 청주양씨 사정공파 세천비 >



< 홍농군 양순민 선생 묘소 >



포천지역 청주양씨의 정착과 세거 인물

홍 순 석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한국한문학 전공))

目 次

1. 서언
2. 청주양씨의 포천지역 정착 배경
 - 1)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성쇠
 - 2)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세거지
 - 3)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포천지역 정착
 - 4)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포천지역 세거지
3. 포천지역 청주양씨 가문의 주요 인물
 - 1) 포천지역에 세거한 청주양씨 서평군파 후손
 - 2) 포천지역에 세거한 청주양씨의 주요 인물
4. 결언

1. 서언

일반적으로 포천의 주요 성씨로는 전주 이씨 · 김해 김씨 · 밀양 박씨 · 경주 이씨 · 청주 양씨 · 아산 이씨 · 죽산 박씨 · 문화 류씨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포천현과 영평현의 성씨조에 청주양씨가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청주양씨가 조선초기에 포천지역에서 세거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후 간행된 『견성지』 『포천군지』 등에 비로소 양치(楊治)와 양사언(楊士彦) 형제가 거론되고 있다.

1934년에 간행된 『조선의 성씨[朝鮮の姓]』에는 신북면 기지리에 24가구, 영중면 금주리에 2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1953년에 간행된 『경기도지』에서는 군내면 하성북리에 34가구, 내촌면 궁현리에 20가구, 신북면 기지리에 22가구, 일동면 길명리에 38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동면 길명리는 양천진(楊天震)의 3남인 양제달(楊悌達) 후손들이, 신북면 기지리와 영중면 금주리에는 양천진의 5남인 양신달(楊信達)의 자손들이 세거하고 있다.¹⁾

필자는 포천문화원의 주요 사업인 '포천을 빛낸 역사인물' 조명에서 양사언과 양만고를 발표한 바 있다. 금년 6월에는 양사준의 묘지석이 출토되고 이를 경기도박물관과 포천시향토전시관에서 전시하게 되어 '양사언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특강을 하였다. 이때 청주양씨 종인들로부터 청주양씨가 포천지역에 정착한 배경과 양치(楊治), 양순민(楊舜民) 등 주요 역사인물을 함께 다뤄줄 것을 요청 받았다. <양사준의 생애와 문학>을 집필 중이었지만, 이에 선행한 연구로 본 과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금번 발표 주제를 확대한 것이다. 사실 <양사언과 그의 형제들 연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이같은 작업 과정에서 양사언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도 보다 구체화되리라 본다.²⁾

본 발표에서는 양사언과 그의 형제를 중심으로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포천지역 정착과 세거양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인 작업으로, 우선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포천지역 정착 배경에 대해서 살핀다. 포천지역 청주양씨 서평군파 세장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입향조와 정착시기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청주양씨의 포천지역 세거양상을 다룬다. 이같은 논지는 『청주양씨세보』와 직계 후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³⁾

1) cf. 박경자, <포천의 세거성씨> 디지털포천문화대전(pocheon.grandculture.net).

2) 풍고 양사준은 『청주양씨족보』에 기록된 바가 전부라서 그의 몰년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묘지석이 발굴되면서 그의 전기적 사실과 문학작품을 제명할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3) 본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양운택(포천문화원장, 청주양씨 사정공과 회장)님과 양재웅(봉래공파 종손)님 등의 정보제공과 조언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2. 청주양씨의 포천지역 정착 배경

1)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성쇠

청주양씨는 중국에서 배출된 성씨이다. 한(漢)나라 태위(太尉) 양진(楊震)의 후예이다. 원나라에서 대광보국승록대부에 올라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에 이른 양기(楊起)를 시조로 추승하고 있다. 그가 고려에 입국한 시기는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⁴⁾ 청주양씨 문중에서는 “고려 충선왕 말엽에 고려에 들어와 상호군을 지냈으며, 노국공주가 공민왕과 혼인하여 1351년 12월 고려로 올 때 황제의 특명으로 공주를 배행하여 고려에 왔다.”고 전한다.

충헌공(忠憲公) 양기는 성주(成柱)·천주(天柱)·만수(萬壽)·지수(之壽)·근(根)·포(浦) 6형제를 두었다. 2세인 이들로부터 청주양씨는 각각 서원백(西原伯)·정승공(政丞公)·전서공(典書公)·서평군(西平君)·밀성군(密城君)·당악군(唐岳君)파로 분파되었다.

서원백 양성주(楊成柱)의 아들인 양백연(楊伯淵)은 동강도 지휘사와 서강 부원수로서 왜구를 격퇴하여 찬성사가 되었으며, 정방제조도 겸했다. 그의 아들 양영수(楊英秀)는 밀직부사와 상장군을 역임하여 가문을 중흥시켰다.

청주양씨를 중흥시키는데 공을 세운 지파는 서평군파라 할 수 있다. 포천지역에 세거해온 청주양씨도 바로 서평군파의 후손들이다. 서평군파의 파조인 지수(之壽)는 광정대부에 올라 도첨의 찬성사를 지내고 청백리에 녹선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는 양지수의 아들인 천진(天震)⁵⁾이

4) 양경직, <청주양씨의 유래와 분파> (『청주양씨기증유물전』, 경기도박물관, 2015. 109쪽)

「始祖楊起：以三重大臣輔國崇祿大夫 都僉議政丞 奉帝命 陪魯國大長公主 來于本國 高麗忠宣王時也」
(楊憲爽 等, 『海東楊氏族譜』, 1690)

「先生諱士彥。字應聘。號蓬萊。又號海客。其先本漢太尉楊震之後。七世祖起。當元成宗時。以相國陪齊國長公主釐降高麗。忠宣王封上黨伯。故爲清州楊氏」 (趙綱, <府使蓬萊楊公墓碣銘并序>, 『龍洲先生遺稿』 卷之十五/墓碣/a_090_266b)

「公諱士俊 字應舉 六代祖 諱起 元順帝時 以三重僉議政丞 受帝命 隨齊國大長公主 來東國 乃高麗忠宣王世也」 (<楊士俊墓誌銘>)

5) 『清州楊氏大同譜』에 소재한 <蓬萊楊先生墓碑文> <退隱楊先生傳>에는 「天震」으로, 『韓國族譜大全』 (한국씨

다. 그는 조선 개국 공신으로 책록되고 공조전서를 역임하였다. 『청주양씨대동보』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말엽에 주청사(奏請使)의 소임을 띠고 중국에 들어가 황제를 접견하고, 고려의 실정을 아뢰어 세공을 삭감 받는 등 큰 공을 세웠다. 그가 환국하였을 때 조정에서는 안악을 식읍으로 지급하고 안악군(安岳君)에 봉하였다. 부정개국공신에도 책록되고 사후에는 경안(景安)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경안공 양지수의 증손녀인 양씨가 세종 때 후궁으로 뽑혀 혜빈(惠嬪)에 봉해지면서 서평군파의 성세는 확대되었다. 혜빈양씨는 현감 경(景)의 딸이다. 혜빈은 한남군 어(瑒), 수춘군 현(玗), 영풍군 천(?) 등 3남을 두었다. 1441년(세종 23) 세자빈 권씨(權氏)가 단종대왕을 동궁에서 낳고 이튿날 승하하자 세종대왕은 궁중에서 어진 이로 혜빈을 선택하여 아보(阿保:保育人)로 원손(元孫)을 보양하도록 명하였다. 혜빈은 기출의 3왕자와 함께 온갖 정성을 다하여 보호하고 음식과 기거를 지성스럽게 섬기었다. 세종·문종이 연이어 승하하고 단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후 종실의 영결들이 포진하고 있어 국세가 위태로웠을 때 혜빈이 옥체를 편안하게 호위하여 극진히 봉양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당시에 화를 당하였는데 장남 한남군은 귀양가서 순절하고, 차남 수춘군은 이보다 앞서 순절하였다. 3남 영풍군은 함께 화를 당하였다. 4모자가 함께 의롭게 생을 마친 것이다. 혜빈 양씨의 유해는 종조부 병사공 양치가 남몰래 거둬다가 포천 기당리(機唐里) 세장산에 묻고 평토를 하여 극비에 붙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력은 단종대왕의 누님 경혜공주의 한글 수기로 전해진다.

1713년(숙종 39)에 왕명으로 “혜빈의 묘를 봉분하라” 하였으나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 1791년(정조15)에 혜빈의 시호를 추증하며 ‘민정(愍貞)’이라 하였다. 임금은 유문(侑文)을 만들어 말하기를 “슬프다. 오직 양씨(楊氏)는 옛적의 아보(阿保)와 같다. 칭송은 주빈(周嬪)처럼 드러나고 공(功)은 한모(漢母)보다 고매한데 병자 정축년을 맞이하여 화가 후궁에 미치었다. 두 아들과 같이 죽었으니 6신들과 같이 돌아갔구나. 시대는 달라도 방모와 같고 여자로서 굳세고

족사연구회편, 1988)에는 「震」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楊士彥墓碣銘>에는 「振」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청주양씨대동보』의 기록을 따랐다.

인자하였다. 두견새는 옛 누각에서 우는데 봄은 신단(新壇)에 다시 찾아왔구나. 의는 천추에 일어나기에 예로써 제현(諸賢)과 강신(降神)의 잔을 드린다. 생각컨대 6궁에서 제일 높았는데 어찌 제사를 똑같이 한단 말인가. 지난 일을 감히 말하자니 슬픈 감회가 지극히 깊고 깊구나. 예를 거행하여 이름을 바꾸어 '민정(愍貞)'이라 한다."하였다. 임금은 제물을 드리며 이르기를 "내가 진심으로 내려주는 것이며 법도를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에 명을 내려 현판을 만들게 하고 제사를 오래 이어가도록 한다. 일이 이 때를 기다린 것 같고 이 보은은 실로 선왕 때부터 있었던 터이다. 관(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성스레 모시도록 하였으니 바라건대 이 제물을 흠향하소서." 또한 시호를 한남군에게는 '정도(貞悼)'라 하였으며 영풍군은 '정열(貞烈)'이라 하고 장릉 충신단에 배향케 하였다. 1900년(광무 4) 수춘군과중회에서 고양군 원당에 단을 축조하고 신도비를 세웠다.

2)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세거지

서평군파 역시 조선 건국이후 천도시 한양으로 옮겨와 살다가 해빈양씨의 수난을 계기로 남·북으로 이산(離散)하게 되었다. 6) 장남 흥립(興立)과 차남 흥야(興野)의 후손은 함경도 함흥과 황해도 평산·안악·송화 지방에 많이 살고 있으며, 3남 첨식(添植)의 후손 중 정간공(靖簡公) 효지(孝智)의 직계손은 경북 영천군 화남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하고 있다. 4남 천진(天震)의 후손은 가장 번창하여 남·북 각지에 분포 되어 있다. 서평군의 5남 천록(天祿) 판한성사(判漢城事)공의 후손은 평북 초산, 벽동, 강계 등지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경안공의 장남인 귀암공(歸庵公) 배(培)의 제1남 계원(繼元) 병사공(兵使公)의 후손은 경주 주변과 영천군 북안면 명주동 근처와 영일군 신평면 냉수동에 수십호씩 산거(散居) 하고 있으며, 함흥 지방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제2남 계동(繼童) 부사공(府使公)의 후예는 경주, 광양 및 칠곡 지방에 영주하고 있으

6) cf., <서원공파>, 청주양씨대종회 홈페이지(<http://chungjuyang.com/jongpa/4.htm>)

며,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칠동 근교에 3백여호 집성촌을 이루고 4백여년 간 세거하고 있고, 제3남 계종(繼宗) 사정공(司正公)의 후손도 경주 근교 및 영천에 살고 있다.

경안공의 둘째아들 수(脩) 부윤공(府尹公) 후손은 충남서천 지방에 누대로 세거 중이며, 셋째아들 혁(赫) 목사공(牧使公)의 후손은 평북 영변에 정주(定住)하고 있고, 넷째아들 억(億) 주서공(主書公)의 후손은 충남 은진, 금산 및 예산 지방에 근 5백여년 동안 세거하고 있다.

경안공의 다섯째아들 치(治) 함길·황해 양도병마절도사 퇴은공(退隱公)의 후손이 수천호에 이르는데, 제1남 순달(順達) 교리공(校理公)의 후손은 경기도 연천, 양주, 충남 천안 지방에 세거 하고 있으며, 경북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와 대구 근교에 교리공의 증손 득효(得孝) 남재공(南齋公)의 후에 4백여호가 살고 있는데, 근 4백여년 동안 세거하고 있다. 제2남 효달(孝達) 생원공(生員公)의 후손은 경기도 포천, 가평 일대와 전남 순천, 광양에 수백여호가 세거하고 있으며, 제3남 제달(悌達) 사정공(司正公)의 후손은 충북 괴산, 이천, 음성 등지에 장파(長派)가 세거하고 있으며, 포천군 일동면 길명리를 중심으로 근교에 수십여호씩 부락을 형성하고 있고, 그외 일부는 개성, 장단, 청주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제4남 윤달(允達) 첨정공(僉正公)의 후손은 충남 대흥, 천안, 부여군 홍산, 전남영암 등지에 세거 하고 있으며, 제 5남 신달(信達) 통덕랑(通德郎)의 후손은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와 영중면 금주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포천군 각 읍면 일대에 수백여호가 5백여년 동안 세거하고 있다.

경안공의 여섯째아들 제(濟) 사직공(司直公)의 후손은 황해도 연백에 세거하고 있고, 일곱째 아들 동(凍) 통덕랑(通德郎)의 후손은 강화 지역에 수십여호가 살고 있다.

<표1> 청주양씨 서평군과 세거지역

世代	嗣子	諱	官爵	世居地域
2세 之壽 (西平君)	1남	興立		함경도 함흥, 황해도 평산·안악·송화
	2남	興野		함경도 함흥, 황해도 평산·안악·송화
	3남	添植		경북 영천군 화남면
	4남	天震	景安公	남·북 각지에 분포
	5남	天祿	判漢城事	평북 초산, 벽동, 강계
3세 天震 (景安公)	1남	培	歸庵公	경북지역
	2남	脩	府尹公	충남서천
	3남	赫	牧使公	평북 영변
	4남	億	主書公	충남 은진, 금산 및 예산
	5남	治	退隱公	경기, 충청, 전남지역
	6남	濟	司直公	황해도 연백
	7남	凍	通德郎	경기 강화
4세 培 (歸庵公)	1남	繼元	兵使公	영천군 북안면, 영일군 신평면
	2남	繼童	府使公	경주, 광양, 칠곡, 전남 보성
	3남	繼宗	司正公	경주 근교 및 영천
4세 治 (退隱公)	1남	順達	校理公	경기도 연천, 양주, 충남 천안
	2남	孝達	生員公	경기도 포천, 가평 일대와 전남 순천, 광양
	3남	悌達	司正公	충북 괴산, 음성, 이천,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4남	允達	僉正公	충남 대흥, 천안, 부여군 홍산, 전남영암
	5남	信達	通德郎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영종면 금주리

3)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포천지역 정착

박경자는 <포천의 세거성씨>에서 “청주 양씨의 포천지역 입향 시기는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포천 지역에 세거하던 청주 양씨 중 군내면 일대에 세거하던 가계는 16세기 초반 경 당시 안변부사였던 양조수(楊照洙)가 관직을 사임하고 이곳에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⁷⁾고 하였다. 그런데 포천지역에 세거해온 청주양씨 서평군파 문중에서는 이같은 견해에 부정적이다. 양윤택 포천문화원장은 ‘양조수’라는 분은 청주양씨 문중에서조차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표1> 청주양씨 서평군파 세거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주양씨 가운데 포천지역에 세거를 형성한 후손들은 서평군파 퇴은공 양치의 후손들이다. 퇴은공이 신북면 기지에 은둔하면서 점차 정착하게 되고, 퇴은공 사후 후손들이 묘하에 정착하면서 동족촌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6세 회수 대에 이르러 집단 세거지를 형성하였다. 7세에 이르러 사원(上元)을 비롯한 7형제들이 대거 관직에 진출하면서 가장 융성하였다. 양사언·사준·사기 3형제와 양만고가 문신으로 부사직에 오르는가 하면, 사인(士仁)계열에서는 무신으로 가업을 계승하였다. 사인의 차남 순민(舜民)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공로로 호종공신 3등에 책봉되었다. 이후 순민의 아들 복업(復業), 손자 의윤(義胤), 증손 광문(光門)이 무신으로 활약하면서 가문의 성세를 지킬 수 있었다.

포천지역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입향조가 4세 양치라는 사실은 다음 <표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cf. 박경자, <포천의 세거성씨> 디지털포천문화대전(pocheon.grandculture.net).

<표2> 청주양씨 서평군과 묘역 현황

세대	계파	묘소	석비	소재지
2세	西平君	楊之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56-1
3세	景安公	楊天震		장단군 북면 마답리 능내 매현
4세	兵使公	楊治	墓碑,神道碑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81
5세		楊順達		
5세	司正公	楊悌達	(墓碑)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5
5세		楊信達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6세	主簿公	楊希洙	(墓碑)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5
7세	校理公	楊士元		失傳
7세		楊士亨		
7세	淸城君	楊士仁	(墓碑)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5
8세	弘農君	楊舜民	(墓碑)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5
9세	宣略將軍	楊復業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5
10세	果毅校尉	楊義胤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5
11세	禦侮將軍	楊光門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5
7세		楊士義		
7세	蓬萊公	楊士彦	墓碑, 崇慕碑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산193
8세	鑑湖公	楊萬古	墓碑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산192
7세	楓臯公	楊士俊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5
7세	淸溪公	楊士奇	墓碑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5

위의 <표2>를 살펴보면 2세 서평군 지수의 묘역은 양주시 장흥에 있다. 3세 경안공 천진의 묘소는 장단에 있다. 2세 3세대에 입향하였다면 포천지역에 세장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4세 병사공[퇴은공] 양치의 묘역이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포천의 입향조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후 포천지역에 세거해온 청주양씨는 서평군과 후손들 가운데서도 병사공 계열이다. 5세 이후의 후손들이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영중면 금주리, 군내면 하성북리, 일동면 길명리 등지에 묘역이 실재하고 있다.

4)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포천지역 세거지

양치가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틀무시]에 은거한 이후 후손들은 줄곧 이곳에서 세거하였다. 신북면 기지리에는 대대로 위쪽에는 청주양씨가 살았고, 아랫마을에는 문화류씨가 살았다. 따라서 지금도 '양류촌(楊柳村)'이라 불린다.⁸⁾ 양사언과 양만고의 문집에서 청주양씨가 포천에 세거하였음을 시사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인다.

양사언이 성장하면서 거주한 곳은 포천현의 북쪽 성북촌(城北村)이다. 지금은 유허지만 남아 있다. 그의 집터는 포천 제일의 명당이라 한다. 처음으로 포천에 살 곳을 마련하면서 지은 작품으로 보이는 <복거(卜居)>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시서(詩序)가 있는데, 집터의 위치를 짐작케 한다.

「녹문산 아래 옛날에 장자가 살던 터가 있다. 지금도 무너진 뜰과 담장이 있고, 문 밖에는 신령스런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마치 진짜 모습과 같았다. 그 위는 백여 명이 앉을 만하고, 등에는 두 말[斗]들이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세상에 전하기를 장자가 칠주관을 만들고 앉아서 현등폭포를 구경하였다고 한다.」⁹⁾

위의 글에서 장자는 허엽(許曄)을 가리킨다. 양사언이 거처를 마련하였던 곳은 바로 허엽의 집터 근처였다. 군내면 하성북리의 자연마을에 '별동(鼈洞)'이 있는데, '별동'은 자라와 같이 생긴 바위가 두 개 있어서 '자라울'로 불리다가 '자래울'로 변음되었다. 별동이라고도 한다. 지금도 바위 두 개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암자라 모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숫자라 모양이라고 한다.¹⁰⁾ '신령스런 거북처럼 생긴 바위'는 바로 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¹¹⁾

8) 양사언의 《蓬萊詩集》 가운데 <楊柳村>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9) “鹿門山下 古有長者居址 今有廢砌頽垣 門外有石靈龜 酷似眞形 上可坐百餘人 背上鑿二斗穴 俗傳長者作鐵柱觀 坐玩懸燈瀑布” <楊士彦, 《蓬萊詩集》, 권2:2b.>

10) http://pocheon.grandculture.net/지명_자연마을

11) 양사언의 작품에 <石龜巖老松>이 있는데, 이 바위를 소재로 한 것이다.

한편, 《견성지(堅城誌)》에 양만고의 집 위치를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감호 양만고의 집이 산성 북쪽에 있다. 시에 이르기를, “산 앞의 무너진 성가퀴는 옛 청성 터, 뿔피리는 늘 저녁 경치 개이기를 재촉하고, 파루를 알리는 두어 피리소리 산 그림자 속에서 들리며, 들 구름 다 걷히자 저녁놀 밝아지네.”라 하였다.」¹²⁾

‘청성(靑城)’은 지금의 반월성(半月城)이다. 양만고가 포천에 반월성 북쪽에 거주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이다. 선친이 새로 마련한 성북촌의 집에서 양만고가 거주하였던 것이다. 양만고의 시작품 <즉사(卽事)>에 “집 앞에 반월산이 있는데 구름이 몰려오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와룡담이 있는데 연기가 일면 반드시 바람이 분다.”¹³⁾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 역시 양만고의 거주지를 증빙한다. 최근 발굴된 양사준의 묘역이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골말인데, 아마도 양사언, 양만고가 거주하였던 집이 이 부근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1618년(광해10)에 조경이 지은 <연송재기(鍊松齋記)>에 의하면, 양만고가 포천 두문산 아래에 집을 지었는데, 이름을 ‘연송재’라 하였다.¹⁴⁾ 이 때 양만고의 나이 45세였다. 두문산은 바로 양치가 은둔하던 두문동의 산을 지칭한다. 그런데, 디지털포천문화대전의 기록을 보면 ‘두문동’이란 지명이 두 곳이 있다. 그리고, 양치가 단종 퇴위 직후에 포천의 “천주산 아래 기지리에 퇴거하여 두문불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지명편에는 화현면 지현리의 두문동에 은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기지리의 두문동은 정구(鄭球:1471~?)가 은거하면서 생긴 지명으로 소개되어 있다.

12) 「楊鑑湖萬古家在山城之北 有詩曰 山前殘堞古靑城 畫角常催暮景晴 吹罷數聲山影裏 野雲收盡夕陽明」 <堅城誌, 古跡>

13) 「家前有半月山 雲來則必雨 有臥龍潭 烟生則必風。」(<卽事> 《鑑湖集》 卷3.: 51b)

14) 「弘農 楊道一築室於松楸之鄉斗文山之下, 命名曰 鍊松齋. 人或莫曉其義, 從而難之曰, 占有歐冶子採棠谿之金, 化火水淬, 愈鍊愈精, 則於是有鍊金之說矣.」(趙綱, <鍊松齋記> 《龍洲先生遺稿》 卷11/記/a_090_196b)

「(정구는)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다. 두문동이라는 이름은 정구가 은거하면서 생겨난 명칭이다.」¹⁵⁾

「지현리는 4개의 행정리로 구획되는데 남부가 지현 1리, 북부가 지현 2리, 동부가 지현 3리, 중부가 지현 4리이다. 자연 마을로 두문동·비시골[비선동]·아랫지재·연릉동·윗지재·문암동이 있다. 두문동은 퇴은 양치(楊治)가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며 두문불출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동쪽에 베어 크리크 골프클럽이 있다.」¹⁶⁾

청주양씨 서평군과의 후손들이 세거해온 곳이 신북면 기지리, 군내면 하성북리, 영중면 금주리, 일동면 길명리임을 전제하면, 양치와 관련된 '두문동'은 신북면 기지리의 지명일 것으로 본다.

3. 포천지역 청주양씨 가문의 주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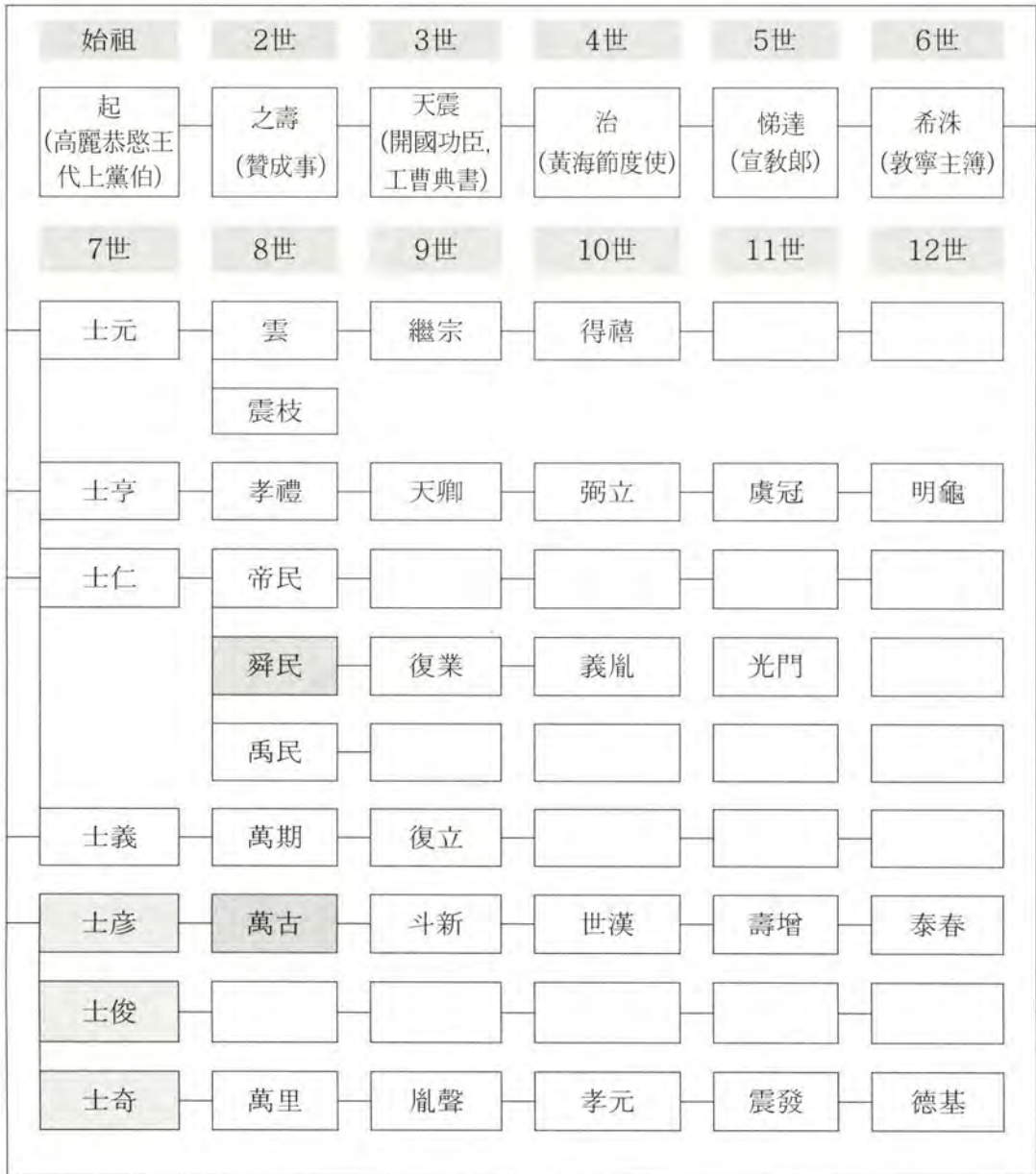
1) 포천지역에 세거한 청주양씨 서평군과 후손

위의 <표1> <표2>에서 살폈듯이 청주양씨 서평군과 후손들 가운데, 포천지역에 세거한 인물은 양치 - 제달-희수 계열의 후손들이다. 특히 파평윤씨(坡平尹氏) 소생의 양사원(楊士元)·사형(士亨)·사인(士仁)·사의(士義) 4형제와 문화유씨 소생의 양사언(楊士彦)·사준(士俊)·사기(士奇) 3형제에 이르러 가세가 확장되었다. 우선, 이들의 가계도를 정리해 보인다.

15) <http://pocheon.grandculture.net/두문동>

16) <http://pocheon.grandculture.net/두문동>

<표3> 청주양씨 서원공파 사정공계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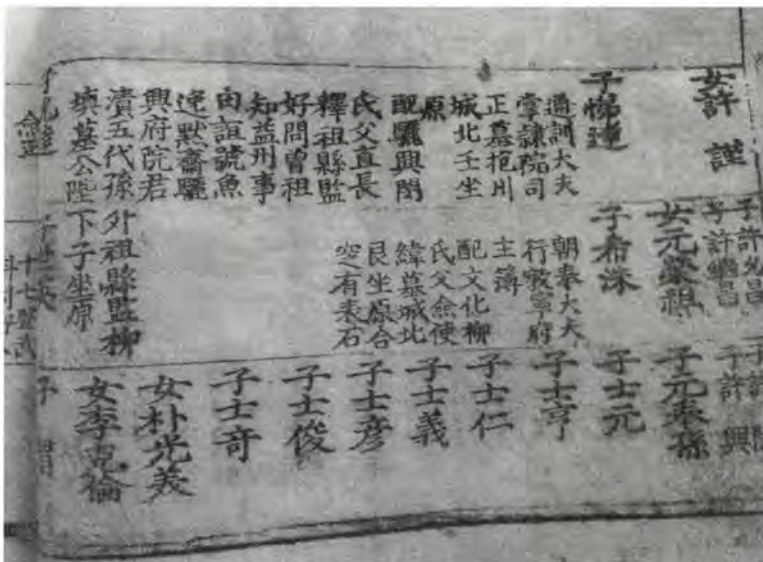


위의 세계도는 『청주양씨대동보』에서 근거한 것이다. 『한국족보대전』 『청주양씨대동보』에 소재한 「청주양씨세계표」 「양사언의 묘갈명」 「양사준의 묘지석

」 등과 대조해 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⁷⁾ 우선 3세 ‘振’은 이름자가 각각 ‘天震’ ‘震’으로 달리 표기되어 있다. 행적은 세 문헌에 모두 같이 기록되어 있다. 「청주양씨세계표」에는 희수의 아들로 사원·사인·사언·사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대로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사형·사의·사준 등이 누락되어 있다. 『청주양씨족보』(庚午譜, 1690)에는 사원·사형·사인·사의·사언·사준·사기와 사위 박광미(朴光美)·이극륜(李克倫)이 수록되어 있다.¹⁸⁾



17) 이에 대해선 필자의 『양사언의 생애와 시』(강남대출판부, 2001) 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18) 『청주양씨족보』(庚午譜, 1690)에는 안훈(安燾)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표4> 청주양씨 서평군파 사정공계 통혼관계

세대	계파	성명	배위	처부	관직	처조부	관직
2세	西平君派	之壽	密陽朴氏				
			竹山安氏	國祥		惟忠	
3세	景安公	天震	寶城宣氏	天柱			
4세	退隱公派	治	平壤趙氏	琨		思謙	
5세		順達	南平曹氏	彙基			
5세		孝達	東萊鄭氏				
5세	司正公派	悌達	驪興閔氏	釋	直長	好問	縣監
5세		允達					
5세		信達	全州李氏				
6세	主簿公派	希洙	坡平尹氏	惠	持平		
			鎭川宋氏	環貞	副護軍		
			文化柳氏	漳	府使		
7세	校理公派	士元					
8세		雲					
8세		霖枝	慶州李氏				
7세		士亨					
8세		孝禮					
7세	淸城君派	士仁					
8세		帝民					
8세	弘農君	舜民	玉山張氏				
8세		禹民					
7세		士義					
8세		萬期					
7세	蓬萊公派	士彦	陰城朴氏				
			江陵李氏	時春	教授	宗孫	進士
8세	鑑湖公	萬古	江陵崔氏	仁瑞	折衝將軍		
7세	楓阜公	士俊	順興安氏	公信	副正		
			延安金氏	滋	判官		
7세	淸溪公派	士奇	牛峯李氏	克禮	別坐		
8세		萬里	豐山沈氏				

양사언 형제자매 관계는 문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의 부친 희수에
 계 파평윤씨(坡平尹氏)¹⁹⁾·진천송씨(鎭川宋氏)²⁰⁾·문화류씨(文化柳氏)²¹⁾ 세 명의

19) 지평 윤헌(尹憲)의 딸.

20) 용양위 부호군 송환정(宋環貞)의 딸.

배위가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살피기 쉽지 않다. 양사언의 출신 신분이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영조실록』²²⁾ 『정조실록』²³⁾에는 양사언이 서얼 가운데 출세한 현인(賢人)으로 열거되어 있다. 서얼관계 자료집인 『규사현인록(葵史賢人錄)』에도 양사언·양사준 형제가 열거되어 있다.²⁴⁾

『청주양씨세보』 『봉래시집』 등 여러 문헌에 근거하면 양사언·사준·사기 3형제가 같은 모친의 소생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조방목(國朝榜目)』에는 양사언의 외조가 송환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진천송씨의 소생이라는 것이다. 먼저 『청주양씨세보』의 기록을 전재해 보인다.

「희수: 조봉대부 행돈녕주부. 배위는 문화유씨로 부친은 첨사 위(緯[滯])이다. 묘는 성북동 간좌 언덕에 있으며 합폄이다. 표석이 있다. 아들 사원·사형·사인·사의·사언·사준·사기가 있으며 딸은 박광미, 이극륜에게 각각 출가하였다.」²⁵⁾

다음은 양사언의 묘갈명과 양사준의 묘지명인데, 모두 문화유씨의 소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돈녕주부는 첨사 문화류씨 위(滯)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여 선생 및 두 동생 사준과 사기를 출생하였다.」²⁶⁾

21) 삼척부사 류위(柳緯)의 딸.

22) cf. 『英祖實錄』 62:2a-b, 21년 7월 갑술조.

23) “慶尙公忠全羅道儒生 黃景憲等 三千二百七十二人上疏…(中略)… 就以我朝論之 向在廢廟之時 猶有柳祖認之參議 李箕男·尹曠之水使 朴希賢·楊萬古·李矢白·柳時蕃之爲牧爲府…(中略)… 如金謹恭·楊士彦…(中略)… 安慶昌之有志無施 屈而在下”(『正祖實錄』 6:25a, 2년 8월 朔).

24) cf. 『葵史賢人錄』 2:2a. (『朝鮮庶孽關係資料集』, 1985, 아세아문화사).

25) 「希洙: 朝奉大夫 行敦寧主簿 配文化柳氏 父僉使緯[滯] 墓城北良坐原 合窆 有表石 子士元·士亨·士仁·士義·士彦·士俊·士奇 女朴光美 女李克倫」(『淸州楊氏世譜』卷1:11)

26) 「(敦寧)主簿娶僉使文化柳滯之女 生先生及二季士俊士奇」(趙綱, <楊士彦墓碣銘>『國朝人物考』)

「증조의 휘는 치이시니 강진첨절제사를 지내셨고, 조부의 휘는 제달로 강예 습독관이시며, 아버지의 휘는 희수로 돈녕부주부를 지내셨다. 어머니는 문화 류씨로 삼척포 첨사이신 유위(柳滄)의 따님이시다.」²⁷⁾

다음으로 『국조방목』권7에 수록된 양사언·사준·사기의 기재사항을 정리해 보인다.

「명종 병오(원년) 식년방(10월 실행) 병과 23인
양사언, 응빙, 정축생, 봉래, 부사(통정), 경자 원, 청주인, 부친 희수, 조부 계달, 증조부 치, 외조부 송환정, 사준의 아우, 만고의 부친」²⁸⁾

「명종 병오(원년) 증광방(즉위한 경사로 4월 실행) 병과 23인, 진사
양사준, 응거, 풍고, 첨정, 경자 진사, 청주인, 부친 희수, 조부 재달, 증조부 치, 사언의 형」²⁹⁾

「명종 계축(8년) 별지방(3월 친경 후 실행) 병과 31인
양사기, 응우, 죽재, 부사, 임자 원진, 청주인, 부친 희수, 조부 재달, 증조부 치, 사언의 아우」³⁰⁾

위의 『국조방목』에는 양사언의 조부가 계달(啓達)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외조부가 ‘송환정(宋環貞)’으로 기록되었으며, 양사언이 사준의 아우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사준의 기록에서는 사언의 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언과 사준

27) 「曾祖治江鎮僉節制使 祖父悌達 講肄習讀官 父希洙敦寧府主簿 文化柳氏 三陟浦僉使柳滄」, <楊士俊墓誌銘>

28) 「明宗丙午(元年)式年榜(十月行) 丙科 二十三人 楊士彦 應聘 丁丑生 蓬萊 府使(通政) 庚子員 淸州人 父希洙 祖啓[悌]達 曾治 外宋環貞 士俊弟[兄] 萬古父」 (『國朝榜目』卷7)

29) 「明宗丙午(元年)增廣榜(以卽位慶四月行) 丙科 二十三人 進士 楊士俊 應舉 風[楓]皐 兪正 庚子進 淸州人 父希洙 祖悌達 曾治 士彦兄[弟]」 (『國朝榜目』卷7)

30) 「明宗癸丑(八年)別試榜(三月親耕後行) 丙科 三十一人 楊士奇 應遇 竹籬 府使 壬子員進 淸州人 父希洙 祖悌達 曾治 士彦弟」 (『國朝榜目』卷7)

형제의 관계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외조를 ‘송환정’으로 기록한 것도 오류라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여하튼 양사언 3형제가 문화유씨의 소생으로 출생하였다는 사실은 족보나 양사언의 <묘갈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¹⁾ 그러나, 그의 모친이 계배(繼配)인지 측실(側室)인지 분명하지 않다. 외조부 유위(柳緯)가 삼척부사 또는 첨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분명하지 않다. 구전되는 설화나 야사의 기록에는 양사언의 출신을 서열에 두고 있으며, 모친이 한미한 역리(驛吏)의 딸로 전하고 있다.

2) 포천지역에 세거한 청주양씨의 주요 인물

청주양씨 가문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앞서도 살폈듯이 포천지역의 입향조인 퇴은공 양치, 혜빈양씨와 사정공 계열의 홍농군 양순민, 그리고 양사언·사준·사기 3형제와 양만고를 들 수 있다. 이들이 모두 포천지역의 역사 인물이라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① 양치(楊治:1400~1485)

양치는 호조판서 양천진의 아들이다. 18세에 무용(武勇)으로 천거되어 영광군수, 함길·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많은 이적을 남겼다. 용맹과 지략이 뛰어나 발탁되어 1437년(세종19) 김종서가 북방 여진족을 물리칠 때 6진 개척에 큰 공을 세운 무신이다. 매형인 황희 정승은 항상 그를 칭찬하였다. 혜빈양씨의 종숙이기도 하다.

1453년(단종1) 단종의 초복(初服)에 황보인·김종서·정분(鄭玢) 등 세 상신(相臣)이 화를 입는 것을 보고 즉시 벼슬을 버리고 포천의 산 속에 은둔하였다. 단종이 수양대군에 손위(遜位)할 때에 미쳐서는 매일 초하루 공복을 입고 동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한다. 단종이 승하하자 산문(山門)을 나가지 않고 천주산 아래 기지리(機池里)에 퇴거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자신의 호를 ‘퇴은(退隱)’

31) “(敦寧)主簿娶僉使文化柳緯之女 生先生及二季士俊士奇” <墓碣銘, 趙綱>

이라 하였다. 지금도 이곳의 지명이 ‘두문동(杜門洞)’인데 양치의 고사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³²⁾ 40여년을 은거하다 86세에 일생을 마쳤다.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후손이 포천에 머물게 된 것은 바로 그가 퇴거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양치는 단종에 대한 충정과 사육신의 절의를 숭모하여 다음 시를 남겼다.

世事茫然已白頭 세상일 아득히 이미 흰머리 되었는데,
 千年遺恨子規樓 자규루는 천년의 한이 서렸구나.
 策名武勇今何用 책명과 무용은 이제 어디에 쓰리오
 但願歸從六鬼啾 다만 돌아가 사육신의 소리 따르길 원하노라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8년(세종 30) 양치(楊治)가 지영광군사(知靈光軍事)로 있을 때 가벼운 장물죄를 범하여 고신을 회수하였다가 갑사(甲士)로 소속시킨 일이 있었다. 저술에 『퇴은실기(退隱實紀)』가 있다. 1626년(인조4) 충헌사(忠憲祠: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22번지에 소재)에 배향되었다. 또한 1691년(숙종 17) 모든 단종 조 충신들의 관작이 복권되고 충렬사·충신각·조사단 등에 268위가 배향되었는데, 그는 1746년(영조22) 포천군 소흘읍 27번지에 건립된 유허비 옆 충목단(忠穆壇)에 사육신 중 한 분인 유응부, 한남군 이어(李瑢)와 함께 모셔져 매년 가을 유림들이 제향하고 있다. 포천시 소흘면의 충목단에 유허비가 있다. 『청주양씨대동보』 권1에 <퇴은공사실(退隱公事實)> <퇴은양선생유고서(退隱楊先生遺稿序)>(柳厚祚 撰), <퇴은양선생전(退隱楊先生傳)>(洪直弼 撰)이 있다.³³⁾

32) “宗瑞死 公退居縣北十里 天柱山下機池里 杜門不出 年九十卒”(『堅城誌』,人物條)

33) cf. 『淸州楊氏大同譜』 권1, pp.137-143.

② 양사언(楊士彦:1517~1584)

양사언에 대해서는 본 발표자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³⁴⁾ 그동안의 연구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양사언의 소생이다. 양사언은 전배인 음성박씨가 자식이 없어, 후배로 간성이씨를 취했다. 후배인 간성이씨와의 사이에서 3남 3녀가 있었으나, 2남 2녀가 요절하고 1남 1녀만 생존하였다.³⁵⁾ 아들 만고(萬古)가 가계를 이었다. 조경이 지은 양사언의 묘갈명에서 해당부분만 전제해보면 다음과 같다.

「선생의 전배는 음성박씨인데 아들이 없었고, 후배는 간성이씨로서 정승 이지방(李芝芳)의 5대손이며, 조부는 종손(宗孫)으로서 진사였으며, 부친은 시춘(時春)으로 학문은 있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았다. 3남 3녀를 두었는데 2남 2녀는 요절하고 종정공(宗正公) 혼자 남았다. 이름은 만고(萬古)이다. 계묘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경술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재사여서 그 집을 이었으나 아들이 없어 숙부의 손자로서 뒤를 이었다. 이름이 두신(斗新)이다. 딸은 충의(忠義) 이기(李訢)에게 출가하여 아들 극준(克俊)을 낳았다. 서자는 만세(萬世)·만선(萬善)·만춘(萬春)·만상(萬祥)이다. 만세·만춘은 자녀가 있다. 서녀가 셋인데 다 자녀가 있다.」³⁶⁾

2015년도에 발표자가 강릉에서 발견하여 고증한 <선교랑갑산교수공묘비(宣敎郎甲山敎授公墓碑)>에서 더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4) 양사언의 생애에 관해서는 발표자가 『양사언문학연구』 『양사언의 생애와 시』 등에서 다룬 바 있다. 2007년도에 포천지역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에서 <봉래 양사언의 생애와 문학>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전의 성과물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부족한 사실만 정리해 보인다.

35) 「先生前配陰城朴氏無子 後配杆城李氏 … 生三男三女 而二男二女 皆夭 男宗正公獨存 名萬古…其家無子 擇叔父孫爲后 曰斗新 女適忠義李訢 生子克俊 庶子曰 萬世萬善萬春萬祥 萬世萬春有子女 庶女三人皆有子女」(趙綱撰, <墓碣銘>)

36) 「先生前配陰城朴氏無子 後配杆城李氏 政丞李之芳五代孫 王父宗孫 進士 考時春 業文不第 生三男三女 而二男二女 皆夭 男宗正公獨存 名萬古 癸卯司馬 庚戌文科 有大才 能嗣 其家無子 擇叔父孫爲后 曰斗新 女適忠義李訢 生子克俊 庶子曰 萬世萬善萬春萬祥 萬世萬春有子女 庶女三人皆有子女」(趙綱, <楊士彦墓碣銘>『國朝人物考』)

「시춘(時春)의 자(字)는 지원(之元)으로 서운정(書雲正) 이자개(李自開)의 5대손이다. …(중략)…그 다음은 강릉부사 양사언에게 출가하였다, 아들을 낳았는데 만리(萬里), 만고(萬古)이다. 딸은 어리다. 첩의 소생으로 운진(雲震) 천진(天震)이 있다. 세계(世系) 족씨(族氏)는 진사의 묘갈 가운데 있다. 교수[시춘]의 기질은 고아하고 순박하였다.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입격치 못하여 형 시인(時仁)과 함께 금강산에 들어가 농사와 낚시로 생애를 보냈다. 79세에 병으로 졸서하여 부사[양사언]가 진사[이종손]의 묘 뒤에 장례하였다.」³⁷⁾

이시춘의 묘갈은 양사언이 강릉부사 재임 시(1571~1576) 장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직접 짓고 쓴 것이다. 이 당시 아들 만리(萬里), 만고(萬古)와 딸을 두었다고 하였다. 묘갈명에서는 3남 3녀를 두었다고 하였는데, 이 당시는 2자 1녀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상고할 길 없다. 『청주양씨세보』에 양사언의 아들로 ‘만리(萬里)’가 등재되어 있는데, 동명이인(同名異人)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양만고(楊萬古:1574~1654)는 자(字)가 도일(道一), 호는 감호(鑑湖)·둔호(遯湖)·비로도인(毘盧道人)이다. 강릉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생원이 되고 광해군 2년(1610)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인조17년(1639) 군자감정이 되어 시패를 논하는 <조진설치사책(條陳雪恥四策)>을 상소하였다. 이어서 통진부사(通津府使)를 지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서예와 문장에 두루 능하였다.³⁸⁾

딸은 이기(李鉉)에게 출가하였다. 양사언의 시 가운데 <백옥찬(白玉贊)>이라 하여 “갈아도 닳지 않는 옥같은 몸이여, 물들여도 검지 않은 옥같은 참됨이여, 이와같은 사람이여, 옥과 같은 사람이여(磨而不磷, 玉之身兮, 涅而不緇, 玉之眞

37) 「時春 字之元 書雲正 李自開 五代孫…(中略)…次歸江陵府使 楊士彥 生男曰 萬里 萬古 女幼 妾生雲震 天震 世系族氏在進士碣中 教授氣古朴 舉不第 與兄時仁徙字金剛山下 耕釣自適 年七十九 病卒 府使營葬 進士墓後」(楊士彥, <宣教郎甲山教授公墓碑>)

38) 양만고에 대해서는 <감호 양만고의 생애와 저술>(『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10집, 포천문화원, 2015, 95~138쪽)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兮, 乃如之人兮, 玉如之人兮) ”³⁹⁾라고 예찬한 작품이 있는데, 이 시의 주석에 “백옥은 딸의 이름이다[白玉 女郎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딸의 이름이 ‘백옥’이었던 듯하다.

허균의 『학산초담』에 의하면 이름을 알 수 없으나 양사언이 부사로 재임시 첩을 두었으며, 그 첩이 <추한시(秋恨詩)>를 남겼다고 하였다.⁴⁰⁾ 서자·서녀로 4남 3녀를 두었다. 만세(萬世)·만선(萬善)·만춘(萬春)·만상(萬祥), 그리고 서녀 3명이 이에 해당한다.

③ 양사준(楊士俊:1521~1579)

양사준은 자는 응거(應舉), 호는 풍고(楓臯)·쇄은(洒隱)⁴¹⁾이다. 양사준은 성품이 인자하고 행실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아서 인근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다. 2015년도에 포천시에서 양사준의 묘지석이 발견되어 그의 전기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⁴²⁾

「부친의 휘는 희수로 돈녕부주부를 지내셨다. 모친은 문화유씨로 삼척포 첨사이신 유위의 따님이시다. …(중략)… 공은 처음 봉상시부정을 지낸 안공신의 따님에게 장가들었고, 후에 다시 상주판관을 지낸 김자의 따님에게 장가들었으나 자식이 없어 형의 아들로 후사를 이었다」⁴³⁾

39) 『詩集』, 권2:20b.

40) 「楊府使之妾 亦能詩 秋恨詩曰「秋風憾憾動梧枝 碧落冥冥雁去遲 斜倚綺窓人不見 一眉新月下西墀」(許筠, 『鶴山樵談』 24a)

41) 『南判尹遺事』에 실린 <乙卯幕中作>이란 시에는 ‘洒隱 楊士俊’이라고 작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양사준이 ‘洒隱’이란 호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42) 양사준의 묘지석은 2009년 4월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골말 산16번지 양운택(楊潤宅:포천문화원장) 일가의 묘역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었다. 바로 주부공(主簿公:양희수)의 묘소 바로 옆에 있던 양사원(楊士元) 묘소에서 발굴된 것이다. 양사준의 묘지석은 총6장(1장은 같은 것임)으로 재질은 청화백자이다. 2011년 양사원의 후손인 양경직(楊景植)에게 전달되었다가, 2015년 10월 경기도박물관에 기증되었다. 묘지명 끝에 “만력(萬曆) 7년(1579년) 6월 11일 포천 땅에 장사 지내다.”라는 구절이 있어 양사준의 물년을 확인할 수 있다.

43) 「父諱 希洙 敦寧府主簿 先妣 文化柳氏 三陟浦僉使 柳渚之女也 公前娶安氏 父曰公信 奉常寺副正 後娶金氏 父曰 滋 尙州判官 無血胤 取兄子紹後」 <楊士俊墓誌銘>

이 묘지석에서 양사준은 “처음 봉상시부정을 지낸 안공신(安公信)의 따님에게 장가들었고, 후에 다시 상주판관을 지내신 김자(金滋)의 따님에게 장가들었으나 자식이 없어 ‘형의 아들’로 후사를 이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형의 아들’이라고 한 자손은 『청주양씨세보』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의혹이 제기된다.⁴⁴⁾

양사준의 관력에 대해서는 그의 묘지명에서 대략을 살필 수 있다. 가정(嘉慶) 경자년(종35,1540)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병오년(1546,명종1)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교서관 정자에 제수되었다. 이어 봉상시 주부로 옮겼다가 호조·형조의 정랑, 평양서윤, 간성군수, 사섬시·종부시·사재감의 첨정을 역임하면서 많은 일마다 실적이 있었다.

1567년(명종22)에 왜구가 경계를 침범하여 연달아 10여성을 함락하였을 때 김경석(金景錫)의 종사관으로 병사를 이끌고 영암에 이르러 대첩하였다. 이때 지은 가사작품 <남정가(南征歌)>와 한시 <정왜대첩(征倭大捷)>이 현전하고 있다. 『봉래시집』의 부록으로 『풍고시고(楓臯詩藁)』가 있다.⁴⁵⁾

이제신(李濟臣:1536~1584)의 『청강집(淸江集)』에 보면, 1579년(선조12)에 양사준을 기리는 <제양첨정사준(祭楊僉正士俊文)>이 있는데, 이제신이 진주목사로 가게 되었을 때, 전별해 주었는데 양사준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고 있다.⁴⁶⁾

44) 청주양씨 서평군파 양사원의 후손인 양경직은 2015년 12월 15일 경기도박물관에서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양사원의 2남 양임지(楊霖枝)가 양사준의 후사(後嗣)를 잇다가 족보에 등재할 때 출계(出系)하지 않고 본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45) <양사준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46) 「維萬曆七年歲次己卯五月乙巳朔初八日壬子。前牧使李某。略具小奠。遣男進士善俊。敬祭于楓臯楊先生之靈。前歲在春。余受晉命。遠別要隲。落紅爲請。欣然灑韻。伯仲聯詠。愛言含警。拱壁自慶。公餘披襲。用寓瞻敬。今我投簪。一葦未更。聞公大還。舊叢重映。憶始蒙筮。實與兄俱。凝標景北。卅載而并。神與驚材。藝天光盛。驪蹄中跪。一何多病。詩窮蔑嗣。孰尸之柄。今臨永遷。奠甞猶倩。靈應不昧。謂余無竟。尚饗」(李濟臣, <祭楊僉正士俊文> 『淸江先生集』卷之四/ 祭文/ a_043_569c)

④ 양사기(楊士奇:1531~1586)

양사기는 자는 응우(應遇), 호는 죽재(竹齋), 청계(淸溪)이다. 1552년(명종7)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 이듬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호조좌랑을 거쳐 원주·부평·풍천 등 7읍(邑)의 수령(守令)을 역임하였다. 가는 곳마다 청백하여 칭송을 받았다. 선조대왕이 등극한 뒤 소를 올려 외적의 침범에 대한 방어대책을 진언했는데 과연 뒷날 그 예언이 맞아들었다. 특히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던 그는 양사언이 지룽 화재사건으로 해서에 유배되었을 때 7개월 동안 그 옆에 엎드려서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⁴⁷⁾ 1586년 병으로 앓아눕게 되자 스스로 죽을 날을 점쳤는데, 틀림없이 그 날에 56세로 죽었다. 그는 시문에도 뛰어났다. 그의 작품을 모은 이 『청계시고(淸溪詩藁)』가 『봉래시집』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양사언이 감릉부사로 재임시 보낸 것으로 생각되는 <간기응우제(簡寄應遇弟)>와 당시 풍천의 수령으로 있던 동생 사기가 화답한 시가 함께 전한다.

風高松浦南鴻少	송포엔 바람 높아 남쪽 가는 기러기 적고
霜重瀛洲北鴈稀	영주엔 서리 혹독하여 북쪽 가는 기러기 드문데
唯有淸江連碧海	오로지 맑은 강만 푸른바다와 이어 있어
一雙魚帶十行歸 ⁴⁸⁾	한 쌍의 고기는 십행의 글을 갖고 돌아가네.

次(應遇)

大關嶺外行人少	대관령 밖에는 행인이 적고
西海城邊音信稀	서해성 가에는 편지도 드문데
何日紫荊同樂土	어느 날 자형나무 함께 즐기는 곳에
十年干祿未言歸 ⁴⁹⁾	십년의 녹봉을 말하지 않고 돌아갈까

47) cf. 『堅城誌』 人物條.

48) 楊士彦, <簡寄應遇弟> 『蓬萊詩集』 권1:26b.

49) 楊士彦, <次(應遇)> 『蓬萊詩集』 권1:26b.

이 밖에 양사언의 동생으로 '응룡(應龍)', '자화(子和)'라는 자(字)를 가진 인물이 있는데 상고할 자료는 없다. 단지 <차육제양자화운(次六弟楊子和韻)>⁵⁰⁾의 시제에서 시사하듯 육촌 동생으로 '자화'라는 자를 가진 인물이 있으나,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간기제응거응룡(簡寄弟應舉應龍)>에서 살필 수 있는 '응룡'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상백씨(上伯氏)>⁵¹⁾의 시를 통하여도 이복형과의 친분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⑤ 양만고(楊萬古:1574~1654)

양만고는 자는 도일(道一), 호는 감호(鑑湖) 외에도 둔호(遯湖)·비로도인(毘盧道人) 등도 썼다. 부인은 강릉최씨로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인서(仁瑞)의 딸이다. 양만고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 두신(斗新)을 입계하였다.

양만고는 1574(선조7)년에 강릉에서 출생하였다. 선친 양사언이 1571년(선조4)에 강릉부사로 부임하였음을⁵²⁾ 감안하면 선친의 재임 기간에 출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친은 1582년(선조15)에 안변부사로 부임하여 말년을 거의 그곳에서 보냈는데, 이때 양만고의 나이는 9세였다. 그리고 선친이 지릉 화재 사건에 문책을 받아 장연 유배지에서 1584년(선조17)에 출세하였을 때 양만고는 11세였다. 1592년(선조25)부터 1598년(선조31)까지 2차에 걸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양만고는 19세~25세였다. 이 기간 중의 생활을 <기사(記事)>라는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 양만고는 이 작품의 시서(詩序)에서 “임진년 8월 13일 두문산 동쪽 기슭에서 적을 만났는데 삼촌과 숙모를 구하였다. 시어가 비록 졸렬하나 사실이 아닌 것이 없으며 1구 1자에 허황하거나 속임이 절대 없다.”⁵³⁾고 하였다. <유풍악록(遊楓岳錄)>의 기록을 보면 1595년(선조28) 22세 때 금강산을 유람하였다.⁵⁴⁾ 아마도 전란 중에는 포천에

50) 楊士彦, <次六弟楊子和韻> 권2:1a.

51) 楊士彦, <上伯氏> 권2:14b.

52) 「士彦, 四年爲府使」(《江陵府邑誌》, 《朝鮮朝私撰邑誌》 권35, 58쪽).

53) 「壬辰八月十三日 遇賊於斗文山東麓 救得三寸叔母 詩語雖拙 無非記實 一句一字 絕無虛誣」(楊萬古, <記事> 《鑑湖集》 卷3, 16a-17a)

54) 「乙未秋 與李兄遊 而未能窮源竭來 十有三年 未嘗一日忘于懷 與洪仲仁李制卿崔子武曹聖 見約遊者 雅矣(楊

거처하면서 독서하거나 금강산을 유력하며 소일하였던 것 같다.

양만고는 1603년(선조36, 30세)에야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1610년(광해2, 37세)에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중년 이후에야 관직에 나아간 그는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청주양씨대동보』에는 “선조 계묘년에 사마 문과와 경술 알성문과에 합격하여 태복시 정을 거쳐 승문원판교, 춘추관 편수관을 지냈다. 무주·장연·영변 등 7개 읍의 군수와 인천도호부사를 지냈다.”⁵⁵⁾고 관력이 기록되어 있다. 1654년(효종5) 11월 29일 향년 81세로 졸서하였다. 묘소는 자신이 미리 정해 놓은 선친의 묘소 아래에 있다. 지금의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산197번지이다.

양만고는 웅진한 문장과 필적으로 선친 양사언, 중부 양사준과 함께 ‘삼소(三蘇)’에 비견되며, 박학달식함은 삼교를 관통한 인물로 평가되었다.⁵⁶⁾

⑥ 양만세(楊萬世)

양사언의 묘갈명에서 보듯이 양사언은 서자로 만세(萬世)·만선(萬善)·만춘(萬春)·만상(萬祥)이 있으며, 서녀도 세 명이나 있다. 이 가운데 만세는 조각이나 서예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존숭도감이 아뢰기를 “학관 양만세는 재주가 많고 조각이나 입사 등의 일을 매우 정교하게 합니다. 별감조판이라는 칭호를 주어 공장(工匠)들을 지도하게 하고, 흠경각의 전례를 따라 군직에 붙여서 의관을 갖추고 항상 사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중략)… 전교하기를 “윤택하다”하였다.」⁵⁷⁾

萬古, <遊楓岳錄> 《鑑湖集》 卷4, 1b)

55) 《청주양씨대동보》 권2, 90-91쪽.

56) 「維年維月維日 龍洲居士 漢陽趙綱 謹以瓊肌眞一之奠 祭于鶴洞老仙之靈 以告曰 惟靈蓬萊先生之嗣子 楓阜詞伯之阿咸也 胚胎前光者 既不淺尠 而浸濯淬礪者 亦有萬于人者 雄詞健筆 足以方駕蘓氏父子 而世莫能知其蘊 博學達識 淹貫三教 而世莫能窺其際.」(趙綱, <鑑湖祭文>, 《鑑湖集》 卷4, 78b)

57) 「尊崇都監啓曰 學官楊萬世爲人有才, 雕刻, 入絲等事, 極其精巧. 別監造官稱號, 指教工匠, 依欽敬閣例, 付軍職, 冠帶常仕… (중략)… 傳曰 允」(광해 106권, 8년[1616 병진] 8월 5일 계묘/ 7번 제 기사/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8장 A면 【국편영인본】 32책 502면)

양만세는 1612년에 해인사 홍제암에 있는 <해인사사명대사석장비(海印寺四溟大師石藏碑)>의 글씨를 썼다. 이 비석은 보물 제1301호로 지정되어 있다. 시문에도 뛰어나 허균 등 당대 문인들과도 교유하였다.

⑦ 양순민(楊舜民)

양순민은 사인(士仁)의 차남으로 임진왜란 때 무신이다. 그에 대해선 청주양씨족보의 간략한 기록 외에 별도로 전하는 문헌이 없다. 따라서 그의 생몰연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에 대한 단초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호성공신(扈聖功臣) 관련 기록이다.

양순민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로로 1604년(선조37)에 호성공신 3등인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에 책록되었다. 우선, 『국조전고(國朝典故)』 『조선선조실록』 등에서 호성공신 책록에 대한 전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력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적들이 서울로 압박해 오자 대가가 서쪽으로 행행하여 의주로 갔는데, 여러 신하들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호종하였으며, 중국에 군사를 보내 주기를 요청하여 끝내는 어가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경사가 있게 하였다. 이에 계사년(1593, 선조26)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정곤수가 오래도록 병을 앓고 있어서 곧바로 공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진년(1604, 선조37)에 이르러 비로소 녹공하였다.」⁵⁸⁾

위의 전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조는 1592년 4월 30일 도성을 떠나 평양으로 파천하였다가 다시 의주로 피신하였으며, 명나라 군사의 원정으로 이듬해 4월에 환궁하였다. 이항복을 비롯한 호성공신들은 거의 1년을 선조를 호종한 것이다. 임진왜란이 평정된 이후인 1604년 6월 25일에 대대적인 공신 책봉이 반포되었다. 이때 1등 공신으로 이항복(李恒福), 정곤수(鄭崑壽)가 책록

58) 「萬曆壬辰。倭賊迫京。大駕西幸義州。群臣跋涉扈從。請兵上國。終致回鑾之慶。癸巳還都。以鄭崑壽久病不即勘勳。至甲辰始錄」(<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 《國朝典故》 / 《厚光世牒》 卷之三, <龍蛇扈從錄>)

되었으며, 2등 공신은 정원군(定遠君) 원종(元宗) 등 31인이 책록되었다. 3등 공신은 정탁(鄭琢) 외 53인이었다. 양순민은 이때 내금위(內禁衛)로서 수가(隨駕)하였다. 이에 대한 『조선선조실록』의 기사를 정리해 보인다.

「공신(功臣)들의 명칭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봉(封)했는데, 서울에서 의주까지 시종 거가(車駕)를 따른 사람들을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왜적을 친 제장과 군사와 양곡을 주창한 사신들은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이몽학을 토벌하여 평정한 사람은 청난공신(淸難功臣)으로 하고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명칭을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은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峴壽)인데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 공신(忠勤貞亮竭誠効節協力扈聖功臣)이라 하고, 2등은 신성군 이후(信城君李瑋)·정원군 이부(定遠君李瑋)·이원익(李元翼)…(중략)…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 공신(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이라 하고, 3등은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중략)…양순민(楊舜民)…(중략)…인데 충근정량호성 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이라 하여, 각각 작위를 내리고 군(君)으로 봉했다. 모두 86인이다.」⁵⁹⁾

위의 기사를 통해 양순민이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 3등에 책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홍농군(弘農君)’으로 봉했었는데 ‘홍농’은 청주양씨의 원조가 홍농 관서(關西) 출신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또한 이들 호성공신에게는 등급에 따라 특전이 주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선조실록』 1604년 10월29일조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조는 호성공신의 교서를 발급할 때에 선독한 별교서에서는 공신들에게 등급에 따라

59) 「大封功名, 以自京城至義州, 終始隨駕者, 爲扈聖功臣, 分爲三等, 錫號有差; 以征倭諸將及請兵糧使臣, 爲宣武功臣, 分三等, 錫號有差; 以討平李夢鶴, 爲淸難功臣, 分三等, 錫號有差。 其扈聖一等, 李恒福、鄭峴壽, 爲忠勤貞亮竭誠効節協力扈聖功臣; 二等, 信城君 瑋、定遠君 瑋、李元翼…(중략)…爲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 三等, 鄭琢、李憲國…(중략)…楊舜民…(중략)…爲忠勤貞亮扈聖功臣, 各賜爵封君, 凡八十六人」 (선조37년 갑진(1604, 만력32) 6월25일(갑진)/ 『선조실록』 【태백산사고본】 99책 175권 19장 B면 【국편영인본】 24책 623면)

품계와 관작을 초천하고, 하사품을 내릴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정탁·이헌국…(중략)…양순민…(중략)…은 3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⁶⁰⁾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3등공신인 양순민에게는 본인과 부모·처자에게 각기 1계의 관계(官階)를 더해주고,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인,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주었으며, 적장(嫡長)에게 그 녹을 세습하도록 하였다. 서평군 후손들의 기록인 <홍농군사실(弘農君事實)>에서는 “공은 만호로서 임금의 수레를 따르며 호종한 공로로 도총부도총관을 내리고, 특별히 자헌대부 호조판서를 제수하고 홍농군에 봉하였다.”⁶¹⁾고 하였다. 만호(萬戶)는 조선시대 각도의 진(鎭)에 딸린 종4품 무관직이다. 도총부도총관은 오위의 군무를 총괄하던 관청의 정2품 관직이며, 자헌대부는 정2품의 품계이다. 양순민이 종4품 무관직인 만호로 있다가 의주 파천 기간에는 3품인 내금위로 있었으며, 호성공신 책록 때 정2품으로 승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호조판서 또는 이조판서로 제수하였다는 것은 실직이 아닌 관작으로 보인다. 사후 추증된 관작일 수도 있다.⁶²⁾

60) 「鄭琢·李憲國…(중략)… 楊舜民…(중략)…爲三等，圖形垂後，超一階爵，其父母妻子，亦超一階，無子則甥姪女婿加階，嫡長世襲，不失其祿，有及永世。仍賜伴僉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內廐馬一匹」(선조 37년 갑진(1604, 만력32) 10월29일 (을해)/ 『선조실록』 【태백산사고본】 101책 180권 30장 B면 【국편영인본】 24책 687면)

61) 「公以萬戶隨駕 竭誠扶護 上嘉其忠 拜都總府都總管 又特拜資憲大夫戶曹判書 奉弘農君 錄扈聖功臣」(<弘農君事實> 『淸州楊氏大同堡』 卷3, 西平君派)

62) 양순민이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으며, <홍농군사실>에서 “사후 임금이 좌우를 잃은 것처럼 매우 애통해하며 사당을 세우고, 부조(不祧)토록 하라고 명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부조묘(不祧廟)가 있었다면 『포천군지』 등에 언급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주양씨대동보』에 의하면 양순민의 아들 복업(復業)은 선략장군(宣略將軍)을 지냈다. 조선시대 종4품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이다. 호성공신록에서 명시하였듯이 공신의 적장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자의 윤(義胤)은 정5품 상계(上階) 무신의 품계인 과의 교위(果毅校尉)를 지냈다. 그 역시 공신의 후예로 세습한 경우이다. 11세 광문(光門)은 충의위(忠義衛)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냈다. 어모장군은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다. 그리고 충의위는 조선시대 중앙군으로서 오위(五衛)의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던 양반 특수 병종(兵種)이다. 충의위는 공신 자손들이 18세가 되면 아무 시취(試取)의 관문도 거치지 않고 입속되어 군사적 실력과 거의 관련 없이 입직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원하면 60세까지는 계속 입번(入番)하면서 왕의 측근을 호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 기간 복무한 다음 다른 관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들은 군대 복무를 한다기보다는 관료 체제 안에서 관리로서의 진출을 위한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었다. 공신 자손이라는 특권 때문에 군역에 복무하는 것이 사실상 관료로의 진출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양순민이 임진왜란 때 호성공신 3등에 책록된 것은 청주양씨 서평군파의 성세를 주도한 계기가 되었다. 그의 공로로 부친 사인이 청성군(淸城君)에 봉군되고, 자손들은 공신의 후예에게 부여되는 특전을 누렸다. 주목되는 것은 청성공 계열에서는 7세 양순민부터 11세 광문에 이르기까지 무관직으로 계승되고 있는 반면, 봉래공 계열에서는 7세 양사언·사준·사기와 8세 양만고·만세까지 문관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결론

청주양씨 가운데 포천지역에 세거를 형성한 종파는 서평군파 퇴은공[병사공] 양치의 후손들이다. 퇴은공이 단종 폐위 직후에 신북면 기지에 은둔하면서 점차 정착하게 되고, 퇴은공 사후 후손들이 묘하에 정착하면서 동족촌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6세 회수 대에 이르러 집단 세거지를 형성하였다. 7세에 이르러 사원을 비롯한 7형제들이 대거 관직에 진출하면서 가장 융성하였다. 특히 양사언·사준·사기 3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내·외직을 역임하였으며, 서예와 시문으로도 명성을 날려 ‘삼소(三蘇)’에 견줄 정도였다. 8세에 이르러서는 청성군 사인 계열에서 순민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공로로 호성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그의 직계 자손들이 공신의 특전을 받아 11세 광문에 이르기까지 무관직에 올랐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봉래공 계열에서는 양만고·만세 등이 관직을 역임하고 시문과 서예의 명성을 계승하였다.

그동안 포천지역의 청주양씨 세거지와 역사 인물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발표자가 1992년도부터 양사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부터 학계와 관련 행정부서에서도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양사준의 묘지석이 발견되고, 양만고의 『감호집』이 정리되면서 이 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제기된 인물이 양만세와 양순민이다. 양만세는 양사언의 서자이면서도 서예와 입사 등 뛰어난 재예를 인정받아 군직을 받았을 정도이다. 허균 등 당대 문인들과 교유하였으며, 일본 사행에도 종사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해인사 홍제암의 사명대사비에 그의 필적이 전한다.

양순민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로로 호성공신 3등에 책록되었음에도 포천시의 향토 사 연구가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⁶³⁾ 양순민과 같이 공신록에 오른 타지역의 인물들은 이미 널리 선양되었다. 참고로 다음 표에서 보듯이 이 당시 받은 호성공신교서는 대부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63) 포천 출신으로 1605년(선조38)에 호성원종공신록(扈聖原從功臣錄)에 오른 신급(申磻)의 정문은 현재 포천시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성룡 호성공신교서	보물 제160-11호
이충원 호성공신교서	보물 제874호
심대 호성공신교서	보물 제1175호
홍진 호성공신교서	보물 제1308호
이현국 호성공신교서	보물 제1617호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물 제1756호
김양보호성공신통	서울특별시 시도유형문화재 제87호
박승원 호성공신교서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66호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경기도 시도유형문화재 제250호
이성기 호성공신교서 및 초상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304호

양순민의 경우는 호성공신교서 및 초상, 관련 고문서가 현전하지 않는다. 『청주양씨족보』에는 그의 생몰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다. 누군가 <홍농군 사실>을 간략하게 작성하였지만 구전되는 자료를 정리하였을 뿐이다. 현재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묘역이 있음에도 그의 공적을 선양하기 위한 계기가 되지 못한다. 더 많은 문헌자료의 확보와 연구가 필요하며, 묘역만이라도 포천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仁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청주양씨족보(淸州楊氏族譜)』,(庚午譜,1690)

양사언, 『봉래시집(蓬萊詩集)』

양사준, 『풍고시(楓臯詩)』

양사기, 『청계시(淸溪詩)』

양만고, 『감호집(鑑湖集)』

홍순석, 『양사언문학연구』, 강남대출판부, 2001.

김동옥, <南征歌에 대하여>, 『인문과학』9집, 연세대, 1963.

이상보, <楊士俊의 南征歌 新攷>, 『국어국문학』제62·63권, 1973.12, 241~256.

양경직, <청주양씨 사정공파 교리공문중의 기증자료> 『청주양씨기증유물전』
(도록), 경기도박물관, 2015.

홍순석, <봉래 양사언선생의 생애와 문학>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제2집. 포천
문화원, 2007.

홍순석, <감호 양만고의 생애와 저술>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제10집. 포천문
화원, 2015.

홍순석, <해제:감호집>, 『경기서북지역의 고문헌』,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디지털포천문화대전 <http://pocheon.grandculture.net/>

[자료] 양순민 호성공신 책봉 관련 실록기사

○ 선조 37년 갑진(1604, 만력 32)/6월25일 (갑진)

대대적으로 공신을 봉하니 명칭은 호성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이다

공신(功臣)들의 명칭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봉(封)했는데, 서울에서 의주까지 시종(始終) 거가(車駕)를 따른 사람들을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왜적을 친 제장(諸將)과 군사와 양곡을 주청(奏請)한 사신(使臣)들은 선무 공신(宣武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이몽학(李夢鶴)을 토벌하여 평정한 사람은 청난공신(淸難功臣)으로 하고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명칭을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은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峴壽)인데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 공신(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이라 하고, 2등은 신성군 이후(信城君李珣)·정원군 이부(定遠君李桴)·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柳成龍)·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곽(李)·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승원(朴崇元)·정희번(鄭姬蕃)·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豐君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령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礪)·안황(安滉)·구성(具晟)인데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 공신(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이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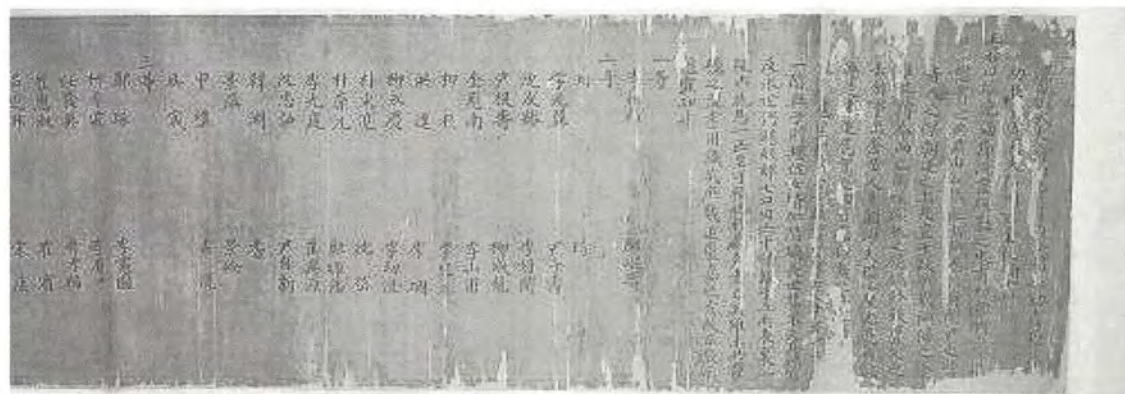
3등은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오정방(吳定邦)·이응순(李應順)·신수곤(愼壽崑)·송강(宋康)·고희(高曦)·강곤(姜綱)·내시(內侍) 김기문(金起文)·내시 최언준(崔彦俊)·내시 민희건(閔希蹇)·의관(醫官) 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이마(理馬) 김응수(金應壽)·이마 오치운(吳致雲)·내시 김봉(金鳳)·내시 김양보(金良輔)·내시 안언봉(安彦鳳)·내시 박충경(朴忠敬)·내시 임우(林祐)·내시 김응창(金應昌)·내시 정한기(鄭漢璣)·내시 박춘성(朴春成)·내시 김예정(金禮楨)·내시 김수원(金秀源)·내시 신응서(申應瑞)

· 내시 신대용(辛太容) · 내시 김새신(金璽信) · 내시 조구수(趙龜壽) · 의관(醫官) 이공기(李公沂) · 내시 양자검(梁子儉) · 내시 백응범(白應範) · 내시 최윤영(崔潤榮) · 내시 김준영(金俊榮) · 내시 정대길(鄭大吉) · 내시 김계한(金繼韓) · 내시 박몽주(朴夢周) · 이사공(李士恭) · 유조생(柳肇生) · 양순민(楊舜民) · 경종지(慶宗智) · 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최세준(崔世俊) · 사알(司謁) 홍택(洪澤) · 이마 전용(全龍) · 이마 이춘국(李春國) · 이마 오연(吳連) · 이마 이희령(李希齡) 인데 충근정량호성 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이라 하여, 각각 작위(爵位)를 내리고 군(君)으로 봉했다. 모두 86인인데 내시(內侍)가 24명, 이마(理馬)가 6명, 의관이 2명이고, 별좌(別坐)와 사알(司謁)이 또 2명이다.

○大封功名，以自京城至義州，終始隨駕者，爲扈聖功臣，分爲三等，錫號有差；以征倭諸將及請兵糧使臣，爲宣武功臣，分三等，錫號有差；以討平李夢鶴，爲清難功臣，分三等，錫號有差。其扈聖一等，李恒福、鄭岷壽，爲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二等，信城君 珥、定遠君 瑋、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礪、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姬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 耆、順義君 景溫、順寧君 景儉、申礪、安滉、具晟，爲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三等，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吳定邦、李應順、節愼正 壽岷、宋 康、高曦、姜綏、內侍金起文、內侍崔彦俊、內侍閔希謩、醫官許浚、李延祿、理馬金應壽、理馬吳致雲、內侍金鳳、內侍金郎輔、內侍安彦鳳、內侍朴忠敬、內侍林祐、內侍金應昌、內侍鄭漢璣、內侍朴春成、內侍金禮楨、內侍金秀源、內侍申應瑞、內侍辛大容、內侍金璽信、內侍趙龜壽醫官李公沂、內侍梁子儉、內侍白應範、內侍崔潤榮內侍金俊榮、內侍鄭大吉、內侍金繼韓、內侍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內需司別坐崔世俊、司謁洪澤、理馬全龍、理馬李春國、理馬吳連、理馬李希齡，爲忠勤貞亮扈聖功臣，各賜爵封君，凡八十六人，而內侍二十四人，理馬六人，醫官二人，別坐司謁又二人。

『宣祖實錄』 37-06-25[07]

호성공신록권(扈聖功臣錄卷)



홍순석 교수 약력

1. 약력

- 한학자 李貴善 선생 문하에서 漢文私師
- 단국대 국문학과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한문학과 졸업(문학박사)
- 단국대, 성균관대 강사를 거쳐 현재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로 재임
- 강남대학교 인문대학장, 인문과학연구소장, 경기문화연구소장을 겸임.
- (사) 용인향토문화연구회 회장, 포은학회 회장.
- 포천, 용인, 이천, 안성 등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연구에 전념하고 있음.

2. 주요 논저

- 연구 성과물로 《성현문학연구》, 《양사언문학연구》, 《박은시문학연구》, 《김세필의 생애와 시》,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우리전통문화의 만남》, 《이천의 옛노래》 등과 50여 편의 논문이 있음.
- 향토사 관련 성과물로 《이천시학술조사보고서》(12책), 《이천시학술총서》(5책), 《용인시읍면지》(5책), 《포천금석문대관》, 《포천의 祠宇壇》, 《포천의 書院》 등이 있음.
- 이외에 《포천군지》, 《용인시지》, 《이천시사》 편찬작업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함.

여 백

金聲大 先生의 生涯와 業績

향토사학자 / 포천향교 전교

이 중 훈

여 백

p.54-56



< 촌로 김성대 선생 존영 >



< 김성대 선생 묘소 >



< 옥 병 서 원 >



< 동 음 사 >

金聲大 先生의 生涯와 業績

이 중 훈 (향토사학자 / 포천향교 전교)

目 次

- I. 序 文
- II. 金聲大 先生의 本貫과 家系
- III. 金聲大 先生의 孝行과 德行
- IV. 當世의 政治狀況과 金文谷家와 交遊
- V. 業績과 享祀
 - 1. 玉屏院墟 設壇時 永平校儒 簡通略(追配)
 - 2. 玉屏院墟 爲兩賢配享 封壇時 告三先生文
 - 3. 封壇後 當位告文
 - 4. 鶯谷祠에 祭享 通文
- VI. 村老 金聲大 先生과 人物들
 - 1. 周邊 人物들
 - 2. 村老公의 兄弟와 後孫들
- VII. 結 語

I. 序文

조선 중엽부터 포천은 인물향(人物鄉)으로 알려진 고을이다. 전고대방(典故大方)¹⁾을 보면 조선조에 정승(政丞)으로 제수(除授)된 인물만도 19명이나 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대단히 많은 인물(人物)이다. 이외에도 관리(官

1) 전고대방(典故大方)-조선 말기의 학자 강효석이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각종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편찬, 간행한 책 1924년에 간행되었다.(본관별시조, 학자연원도, 청백리, 청승등)

吏), 학자(學者), 충절인(忠節人)이 상당수(相當數) 배출(輩出)되었으므로 인물향(人物鄉)이란 명호(名號)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천문화원에서는 매년 3명 정도의 인물을 선정하여 사계(斯界)의 권위자로 하여금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학술발표회(學術發表會) 형식으로, 연구 발표하므로써 고장을 고풍(古風)이 있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도시(都市)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역사란 시대(時代)와 사건(事件)과 인물(人物)로 구성된 기록(記錄)이라고 볼 때, 이 행사는 향토사(鄉土史) 연구 분야의 가장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포천문화원으로부터 김성대(金聲大) 선생 연구 발표자로 선정되었을 때, 과연 김성대 선생을 연구할 자료(資料)가 충분히 있는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옥병서원(玉屏書院) 임원과 서원장(書院長)으로 오랜 기간을 봉사(奉祀)하였다. 서원에는 대부분이 지역 연고(緣故)가 있는 큰 학자들이 향사(享祀)되는데 과연 김성대 선생께서 옥병서원에 향사(享祀)된 것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배경(背景)이 자못 궁금하였다. 큰 정치가도 아니고 문집(文集)을 남긴 학자(學者)도 아니며, 나라의 위난(危難)을 구했다거나 효자, 충신 정려(旌閭)를 받은 충절인도 아닌 분이었기 때문이다. 만년(晩年)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참봉(參奉)으로 제수(除授)된 분이 서원(書院)에 배향(配享)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필자(筆者)가 모르는 훌륭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포천향교에 안산김씨 족보(族譜)가 있어 상고(詳考)해보니 촌로 선생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족보에 상재(上梓)²⁾된 자료로는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선생이 찬(撰)한 묘갈명(墓碣銘), 촌로(村老)선생 졸후의 만사(輓詞)들과 옥병서원 훼손(毀撤) 후 설단(設壇)시에 촌로공과 유심재(有心齋) 이화보(李和甫) 선생을 추향(追享)하기 위하여 주벽(主壁)이신 사

2) 상재(上梓) - 책을 인쇄함

암(思庵) 박순(朴淳) 선생과 동은(洞隱) 이의건(李義健) 선생,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선생에게 면암 최익현 선생이 초헌관으로 고하는 고유문(告由文)과 용서(龍西) 유기일(柳基一) 선생이 찬(撰)한 촌로공 사장(村老公 事狀)³⁾이 있어 김성대(金聲大) 선생을 연구 발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II. 金聲大 先生의 本貫과 家系

안산 김씨(安山 金氏)는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후손으로 김금필(金肯弼)을 시조(始祖)로 한다. ‘肯弼’은 경덕국사(景德國師) 묘지명(墓地銘)에 ‘兢弼’로 기록되어 있어 금필(兢弼)로도 사용되고 있다. 김금필(金肯弼)은 1024년(고려 현종15)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상주국(上柱國) 역주(歷住) 안산현개국후(安山縣開國侯)에 진봉(進封)되고 식읍(食邑) 1,500戶를 하사(下賜)받아 후손들이 안산에 정주(定住)하면서 관향(貫鄉)을 ‘安山’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안산(安山)은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의 옛 지명으로 고구려 때 장구현(獐口縣)이었다가 고려 초에 안산(安山)으로 개칭되며 1913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始興)에 병합되었다. 안산 김씨는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4,656가구로 14,97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금필의 子되는 2세 김은부(金殷傅)는 고려조에 지중추사(知中樞事), 호부상서(戶部尙書), 지중추상호군(知中樞上護軍)을 역임하고 딸 세 자매가 원성태후(元成太后), 원혜왕후(元惠王后), 원평왕후(元平王后)로 현종(顯宗)의 국구(國舅)가 되어 안산김씨가 융성(隆盛)하게 되었다. 김은부가 졸(卒) 후 추충수절창국공신(推忠守節昌國功臣)이 되며 안산군개국후에 추증(追贈)되었다. 3세 충찬(忠贊)은 호부상서(戶部尙書),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시(諡) 공정(恭靖)에 제수(除授)되었고, 4세 원황(元晃)은 문종(文宗)시에 병부상서, 중추원사를 역임하

3) 事狀- 행장(行狀)과 같음(평생의 일과 업적)

고 시(諡)는 의경(毅敬)이다. 5세 경용(景庸)은 숙종과 예종시에 대공(大功)을 세우고 태수낙랑군개국후(太守樂浪郡開國侯)에 이어 익성공신(翊成功臣) 낙랑군개국공에 제수(除授)되었으며, 6세 인규(仁揆)는 인종(仁宗)시 좌복야를 거쳐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다. 7세 지우(之祐)는 대악서 주부(主簿)이고, 8세 충언(忠彦)은 어위승동정(御衛丞同正)을 지내었으며 9세 위(渭)께서는 고려 벽상삼한삼중대광금자광록대부(壁上三韓三重大光金紫光祿大夫)로 추충수의분용망구정란공(推忠守義奮勇忘軀靖亂公)이시고, 10세는 원상(元祥)으로 삼중대광광정대부 판삼사진현관 대제학사 상호군(三重大匡匡靖大夫 判三司進賢官 大提學事 上護軍)이오 11세는 성경(星慶)이시니, 통정대부(通政大夫) 진주목사(晉州牧使)를 지내고 연성군(蓮城君)의 봉호(封號)를 받으시었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 12세 諱 정경(定卿)이 태종(太宗) 때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승정대부 이조전서(崇政大夫 吏曹典書)를 지내고 연성군(蓮城君)의 봉호(封號)를 받고 위정(威靖)의 시호(諡號)를 받았으며, 공(公)의 넷째 아드님 諱 개(溉)께서 승정대부(崇政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시호(諡號)가 평호(平胡)이니 이 분이 촌로(村老) 김성대(金聲大)선생의 6代祖이시다.

5대조는 諱 맹일(孟鎰)로 참봉이시고 고조(高祖)는 諱 림(琳)이시며 진사(進士)로 양근(陽根)군수를 지내셨으며, 증조(曾祖)는 諱 언량(彦樑)으로 부호군이시며, 조부는 諱 태록(台錄)으로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이시고 부(父)는 증직(贈職)으로 좌승지(左承旨)를 받으신 諱 찬(讚)이시다.

先後系를 도식을 하면 다음과 같다.

金聲大 先生 10世圖



III. 金聲大 先生의 孝行과 德行

- 事狀과 祭文, 輓詞, 神道碑銘을 중심으로 -

1. 金聲大 선생께서 永平으로의 入鄉經緯

촌로(村老)선생의 부(父)되는 증좌승지(贈左承旨) 김찬(金讚)公께서 장단(長湍)에서 영평(永平) 이동면(二東面) 연곡(鰲谷)으로 이거(移去)하신 입향조(入鄉祖)라고 문중(門中)에서 설명하고 있다.(村老公 花樹會長 金榮鎭氏 證言)

포천군지에 의하면 김성대 선생은 1622(광해군14년) 장단에서 출생(出生)하

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선생께서 병자호란(丙子胡亂:1636-1637)인 15세에 부모를 백운산(白雲山)에 피신시키고 등짐으로 식량(食糧)을 날라다 봉양(奉養)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바, 10세 전후해서 이곳으로 이사(移徙)한 것으로 추정(推定)하고 있었으며, 이사하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은 기록이 없어 상고(詳考)하기가 어려웠다.(상기 김영진씨 증언)

2. 諸公들의 記錄으로 본 金聲大 선생의 孝行, 德行과 學行

가. 「아! 성인(聖人)께서 목눌(木訥)을 칭찬하였는데 公이 자못 그런 분이셨다. 돈독(敦篤)하고 꾸밈없는 자질(資質)로 안팎으로 진실(眞實)하였도다. 한편 글 재주가 뛰어났는데 운수(運數)가 기이(奇異)하여 재값을 못했도다. 한가(閑暇)한 천성(天性)을 타고나 오랜 수명(壽命)을 누렸도다. 동음(洞陰)고을의 무성한 숲은 산골에 갇숙하도다. 공께서 그 사이에 살면서 소일(消日)을 하였도다. 뽕밭, 삼밭 십여 두락⁴⁾에 자손이 한 마을에 살았도다. 향당(鄉黨)은 어짊에 강화(講和)하고 같은 동료들에게 높이 추중(推重-추앙하여 존중함)하였도다. 명성(名聲)이 풍신(楓宸-大闕)에 통하여 임금님께서 칭찬이 특이(特異)했도다. 특히 침랑(寢郎-종묘, 능, 원의 습과 叅奉)을 제수하는 어필(御筆)을 내리셨도다.」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 당시 철원부사가 제문(祭文)에서 촌로공을 곡(哭)하며 생전의 덕행(德行)을 애절(哀切)하게 표현하고 있다. 사마천이 기술한 사기(史記)⁵⁾ 중 공자세가(孔子世家)에 보면 「공자께서는 향당(鄉黨)에서는 공손(恭遜)해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과 같았으나(語訥) 종묘(宗廟)나 조정에서는 조리있게 말을 잘하면서도 신중(愼重)히 했다는 글이 있으며, 논어에서도 공자가 이르되 ‘木訥者⁶⁾는 近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촌로공이 바로 덕행을 이룬

4) 斗落(두락) - 논,밭의 넓이 (마지기)

5) 사기(史記) - 전한의 사마천(司馬遷)이 쓴 중국과 인근의 고대사 전체가 130권으로 방대하게 저술함

6) 목눌(木訥) - 말이 어눌하여 말재주가 없음

군자(君子)로 위인(偉人)의 성품이 있어 명성(名聲)이 임금님께 알려져 제능(濟陵) 참봉(參奉)을 제수하는 어필(御筆)의 교지(敎旨)를 받게 되었다고 기술하며 통곡(痛哭)하고 있다.

문중(門中)에서 전하는 공의 용신(容身)은 인자한 성품에 신장(身長)이 六-七尺에 달하였으며 노년(老年)에 들어 흰수염이 근 한자나 되었고 백색의 모발(毛髮)에 용자(容姿)가 아름다워 마치 신선(神仙)과 같은 외관(外觀)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나, 「공(公)은 천계(天啓-明나라 熹宗의 年號) 임술(壬戌-1622년 광해14) 정월 22일에 생(生)하시었는데 어려서부터 행의(行誼)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다. 인조 14년 병자(丙子 1636)에 두 아버지를 모시고 외구(外寇)를 피하여 산중으로 들어갔는데 그 때 공은 성동(成童-십오륙세의 소년)으로서 날마다 한말들이 쌀을 등에 짊어지고 험한 길을 넘어 운반하였기 때문에 비록 난리 속이었지만 공양에 궁핍(窮乏)함이 없었다.

효종2년 신묘(辛卯-1651)에 승지공(承旨公-친부)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병환에 게실 때부터 탕제(湯劑)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손수 상분(嘗糞)을 해가며 약효(藥效)를 감별하였으며, 부군(父君)이 위독하심에 단지(斷指)를 하여 효험(效驗)을 수차례 보았다.

현종 15년 갑인(甲寅-1674)에 내간(內艱-母親喪)을 당했는데 자제(子弟)들이 그 늙은 아버지께서 몹시 슬퍼 우심을 민망히 여기고 권변(權變)⁸⁾을 청하였으나 마침내 듣지 않았으니 그 지성(至誠)스런 효성이 이와 같았으며, 이를 미루어 여러 누이와 아우 및 조카에 이르기까지 공경(恭敬)과 사랑이 독실(篤實)하므로 향당(鄉黨)에서 탄복(歎服)하여 마치 않았다.

공이 일찍이 장옥(場屋)⁹⁾에 출입하여 우연히 문성(文聲)이 있었으므로 일시(日時)의 선비들이 서로 먼저 등제(登第)하라고 사양하였다. 공이 또한 이르기

7) 제능(濟陵) - 조선 태조비 신의왕후 한씨의 능 개성시 개풍군에 있음

8) 권변(權變) -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처치하는 수단

9) 장옥(場屋) - 과거시험장(비나 햇빛을 피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설치한 곳)

를 한 과거(科擧)도 족히 취하지 못하는데 여러 차례 향시(鄕試)에 입격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그러나 끝내 성시(省試-司馬試)에 낙제(落第)하므로써 사람들이 모두 애석(哀惜)히 여기었다. 나이 72세에 진사(進士)에 급제(及第)하여 방목(榜目)이 전함에 주상(主上)께서 관직을 제수(除授)하라는 특명이 있어 즉시 제능(齊陵) 참봉에 제수(除授)되니 특이한 은전이였다. 이에 공께서 주상(主上)의 은혜에 사례(謝禮)하고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숙종21년 을해(乙亥 1695)에 병으로 돌아가시니 2월 初4일이였다.」

이상의 글은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공께서 촌로 선생 졸 후 장자 석명의 청(請)으로 1710년(숙종36)에 찬한 묘갈명(墓碣銘)에 새겨진 글이다. 이때는 몽와(夢窩)께서 정일품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의정(左議政) 兼 영 경연사 감춘추관사(領 經筵事 監春秋館事) 세자부(世子傳)로 영전(榮轉)되었을 시기이다.

이 글은 촌로공께서 졸 후 15년이 경과(經過)되었을 시기로 촌로공의 효행(孝行)을 기록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만나 부모님을 백운산(白雲山) 피란처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산길도 없는 험준한 길로 생활용품과 식량을 운반하여 난리 중에도 부모님을 평안히 모신 효행을 적고 있으며, 증지공(親父) 병환시 상분(嘗糞)을 해가며 탕제(湯劑)를 준비하고 부모가 위독하였을 시는 단지(斷指)를 하여 생혈(生血)을 삼키게 하여 효험을 본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부모님이 운명(殞命)하였을 시 노인이 영영 소리내어 울며 자손들이 보기가 민망(憫惻)함을 무릅쓰고 슬픔을 나타내서 장례(葬禮)를 모시는 효행을 기록하고 있으니 가히 출천지 효자(出天之孝子)이며 온정(溫情)을 가솔(家率)들에게 골고루 나눔으로서 가문(家門)의 화평을 이루고 있으며, 학문(學問)을 행함에도 향시(鄕試)엔 수차례 입격(入格)하였으나 성시(省試)에선 인연이 없었다. 그러나 끝내는 과시장(科試場)에서 72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숙종(肅宗)대왕에게 알려져 '村老'라는 사호(賜號)를 받고, 진사(進士)의 영광과 함께 제능참봉(齊陵參奉)을 친히 어필(御筆)로 제수(除授)하는 학행(學行)을 기록

하고 있다. 또한 성품이 온화(溫和)하고 남의 불행을 참아 보지 못하여 남의 기아(飢餓)를 보면 반드시 구휼(救恤)하고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식량이나 의복을 베풀어 도우니 인(仁)을 구함이 가히 성인(聖人)의 경지에 달하였다고 문중에서 전하고 있다.

다. 「사람됨이 목눌(木訥)하여 말이 적었으며 사람을 대하고 사물(事物)을 접함에 진실하고 꾸밈이 없었다. 젊어서는 글읽기를 좋아하여 늙기에 이르도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풍채(風采)가 홀륭하고 기품(氣稟)이 순박하여 한번 접촉한 사람이면 모두 덕행(德行)이 홀륭한 사람으로 알았다.

공께서 궁핍한 사람을 돕고 구원(救援)하며 의리(義理)를 좋아하고 어려운 처지를 구휼(救恤)함을 예사(例事)로 삼았었다.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선생이 일찍이 백운산을 사랑하여 복거(卜居)¹⁰⁾할 뜻이 있었는데 공을 산중에서 만나 시(詩)로써 산을 나누어 소유할 것을 서로 확약(確約)하고, 장자(長子) 몽와(夢窩-金昌集)에게 명하여 응암(鷹巖)에다 작은 집을 지었으니 공의 집과는 거리가 몇리 정도로 계분(契分)¹¹⁾이 더욱 친밀하였다.

문곡께서 마침내 도구(菟裘)¹²⁾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사(己巳-1689년 숙종15)의 사화에 참화(慘禍)를 당함에 이르자 공께서 다만, 친분(親分)이 밀접(密接)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외로운 상황을 참아 보지 못하였다. 이를 태면 군자(君子)의 도가 곤궁하여 충현(忠賢)이 원통하게 죽은 것을 심히 슬퍼하였다.

문곡께서 참화를 당하기 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육형제(六兄弟)를 이끌고 촌로공께 의탁함이 가할 것이라고 부인에게 전하니 일을 당함에 촌로공께서 후환(後患)을 걱정함이 없이 몽와(夢窩)공의 모친과 그 형제 자질(子姪)들을 맞이함은 물론 궤연(几筵)을 자기 집으로 모시도록 하고, 또 역사(役事)를 부쳐 구

10) 복거(卜居) - 살만한 곳을 가려서 정함

11) 계분(契分) - 친한 벗 사이의 두터운 정분

12) 도구(菟裘) -隱居의 별칭

옥을 수리하여 맞아 들이었다. 한편 그들을 어루만져 돕고 구원함에 은혜스런 뜻이 간곡하였으니 비록 흉악(凶惡)함이 불꽃같고 재앙(災殃)이 하늘에 뻗혔는데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꺼리지 않았다. -중략- 후에 아들 절도사 석명의 추은(推恩)으로 호조참판에 증직되고 바로 또 사헌부 대사헌에 올려 증직(贈職)되었다.

이상은 공의 행실(行實)과 학문으로서 그 행적의 대략이고 곡운, 몽와, 농암, 삼연, 노가재, 포음등 여러 선생께서 지은 묘표, 제문, 만사등의 문자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 보면 가히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일이 비록 오래 되었으나 진실한 기록이 오히려 있으니 지금에 공의 덕(德)을 다 말하는 것은 문헌(文獻)에 넉넉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인물에 대한 품평(品評)을 한마디로 단언하여 가히 논(論)하건대 한결 도움 되는 것이 고금을 헤아려 다 들칠 수 없이 많으나 대강 이르자면 몽와(夢窩)옹께서는 '경전(經典)에 마음을 쏟고 밭 갈고 고기 잡는 취향(趣向)이 있고, 어질
이 향당(鄉黨)에 가득하고 가르치는 훈육(訓育)이 아들, 손자에 드러났다' 하시

었고
농암(農巖)옹께서는 '자품(資品)이 극히 진실하고 순박(淳朴)하여 지금 세상에 옛 사람이라' 고 하시고 또 '제사(祭祀) 후에 음복주(飮福酒)를 뉘에게 미룰 것이냐' 하였으며

삼연(三淵)옹께서는 '시골에서 즐겨 살며 덕의(德義)가 들리었다' 하시고
포음(圃陰)옹께서는 '확 트인 마음은 이로부터 더욱 아름다웠다. 하시었으며
공의 아우 도헌공(都獻公 大司憲公의 略稱-金聲玉)께서는 '기질(氣質)이 순박하고 아름다우며 성품이 어질고 착하여 충의(忠義)가 보통 사람에 뛰어나 온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을 모두 칭찬하였고 효성(孝誠)과 우애(友愛)가 천성(天性)으로 뛰어남에 온 고을에서 그 착함을 칭찬하였다.' 하였으며

홍공치윤(洪公治允)은 '백두(白頭)로 학문에 근심하여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였고

유공신일(兪公信一)은 '자리에 들어 착한 마음은 사람을 스스로 분발(奮發)시

키고 흉금(胸襟)을 털어놓고 하는 말에 내 일찍 탄복했도다' 하였고

이공수최(李公壽最)는 '자품은 천성으로 타고나 기미(氣味)가 순수(純粹)했도다'라고 하였고

정공재도(鄭公載道)는 '재량(齋郎)의 명성(名聲)과 지위(地位)는 하찮으나 임금을 감동시킨 성화(聲華)는 사방에 드러났도다'라고 하였고,

이공광조(李公光朝)는 '명성(名聲)은 젊은 날에 한무리를 기우렸고 사람의 달존(達尊)¹³⁾에 둘을 겸하였다.'고 하였고

한공명우(韓公明遇)는 '학문과 덕행을 닦기 반세(半世)에 재주는 비록 굴하였으나 하늘에 있는 빈궁(殯宮)과 영달(榮達)은 궂이 논하지 않겠다.' 하였고

이공반근(李公盤根)은 '젊은 나이에 큰 이름을 떨쳤고 저술(著述)한 문자는 집안에 가득하였다.' 라고 하였으며

김공두남(金公斗南)은 '재주를 품고 이름이 없어 마침내 묻혀 버렸다.'라고 하였으며

이공제하(李公齊夏)는 '당당한 큰 기개(氣概)와 절조(節操)요, 뛰어난 좋은 품채와 위엄(威嚴)으로 학문은 오히려 남은 일이었고 어진 명성(名聲)은 뉘가 이에 비하리오'하 하였으며,

김공시량(金公時亮)은 '종족(宗族)간에 돈목(敦睦)하는 어진 기풍은 본성에서 나왔고 사람을 급히 구제한 높은 뜻은 보통을 벗어났다.'고 하였고

이공익문(李公翊文)은 '기품(氣稟)은 참으로 순후(淳厚)하여 속된 세상을 꿰었고 책상을 대하여 글을 읽음에 괴롭게 여기지 않았도다.' 라고 하고 '두터운 덕의는 향당에서 일컬었고 화락(和樂)한 기운은 가히 움킬만큼 애애(靄靄)하였다' 고 하였다.

제공(諸公)의 칭송을 불진대 한 입에서 나온 것같이 칭송(稱頌)하였으니 공의 진실한 덕과 아름다운 행실은 참으로 돌아가신 뒤에 체사를 모실 향선생(鄉先生)이란 명성을 가히 알겠도다. 대저 이같은 연유(緣由)로

유공종원(兪公宗源)이 일찍이 공과 공의 아우 양현(兩賢)의 사당을 연곡에 세울 뜻으로 드디어 통문을 발송하여 태학(太學)에 아뢰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

13) 달존(達尊) - 세상 사람이 모두 존경할만한 사람

는데 반수(班首) 이공근원(李公近源)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속히 거행하라는 회답이 있었다.

근세(近世)에 중암 김공(重菴 金公)께서 우리 고을 유현(儒賢)에 말이 미치면, 반드시 먼저 공을 칭찬하여 이르기를 '이제껏 제사(祭祀)를 모시는 숭고한 보답이 없어 행치 못한 일이었는데 능히 발론(發論)이 있어 옥병서원(玉屏書院)의 문곡 선생을 향사하는 서원에 배향(配享)하게 되었으니 사리에 온당하다' 라고 하시었으니 대개 그 공덕이 동한의 팔주(八廚)¹⁴⁾와 같음이 있고 진실한 행적(行蹟)과 높은 절조(節操)는 또한 그보다 더함이 있어 전후로 칭송하여 일컬음이 한두번에 그치지 않았다.

당성 홍처사 재구(唐城 洪處士在龜)는 어려서 가평 율리(加平 栗里)에서 학문을 할 때 이미 강의를 함께 들었으며, 유주 유처사기일(儒州 柳處士基一)은 스므살 안팎에 양근(陽根) 한포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또한 공의 말씀을 들어 공의 지덕(知德)을 족히 알았던 것으로 무리한 망언(妄言)에 이르지 않았으니 과연 누가 공만 같겠는가!

대개 공(公)께서 덕이 두터운 군자(君子)인줄은 참으로 여러 사람이 한가지로 아는 바로서 가장 드러난 특절(特節)은 정히 기사사화(己巳士禍)의 즈음에 있었으니 기사에 번복(讎覆-처음의 결정이나 판단을 고침)은 어찌나 큰 화(禍)였던지 이율곡(李栗谷) 성우계(成牛溪) 양현(兩賢)께서 출향(黜享)¹⁵⁾되고 성모(聖母)께서 손위(遜位-왕비의 자리를 내놓음)되고 원로재상(元老宰相)과 이름난 벼슬아치가 거의 다 죽어 온세상이 혼을 잃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한모금 따스한 물을 마시면서도 거의 모두 숨이 차서 사람의 본색(本色)이 없었으니 이른 바 인의(仁義)를 강론하고 학문을 쌓기 수십년에 일세(一世)에 중망이 높은 산림유현(山林儒賢)까지도 혹 좌우를 관망하고 피차 의지하여 화(禍)를 면하고 복(福)을 중히 여길 꾀를 도모하여 혹은 달아나고

14) 팔주(八廚) - 중국 후한시 재물로서 사람을 구한 여덟사람을 말함

15) 출향(黜享) - 종묘나 문묘에 배향한 위패를 거두어 치움

숨어 四十年동안 아버지같이 섬기던 스승도 드디어 버리는 상황에 이르고 자
기만 상(傷)하지 않을 간교한 꾀만 취하여 초연히 홀로 면하는 자도 왕왕(往
往) 있었다.

그런데 공은 이런 때를 당하여 홀로 고구(故舊-오래 친구)의 참화(慘禍)를
더없이 딱하게 여기고 환난(患難)을 구원할 뜻을 함께 약속하여 세네번 정의
(正義)를 쫓고 인애(仁愛)를 회복하여 이해를 헤아리지 않고, 앞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오직 충직(忠直)하고 정의로운 선류(善類)로 더불어 그 굴신(屈伸)을 함
께 하고자 심력을 극히 다바쳐 六年을 하루같이 하였다.

혹 함께 금고(禁錮)나 주륙(誅戮)의 참혹한 화(禍)를 입을지언정 지킬 바를
변하지 않고 비록 궁벽(窮僻)한 산골의 한 시골 늙은이로서 누추한 거리의 한
선비로서 지냈다. 말세(末世)의 풍속에 부합하는 경박한 소인배(小人輩)들에게
거의 없이 여김과 멸시(蔑視)를 당하는 처지였지만 그 마음에 쌓은 바는 바로
옛적의 대인군자(大人君子)처럼 자신을 죽여 인(仁)을 이루고 삶을 버리고 의
리(義理)를 취하여 위태함을 보고도 천명(天命)에 의지하고 죽음으로서 도리를
지키었다. 과연 저 소인같은 선비나 승려처럼 불충(不忠)을 반복하는 무리로
더불어 부끄럽게 죽지 않았으니 진실로 백세(百世)에 가히 스승이 될만한 시골
의 현인(賢人)이라 일컬을 것이다. 참으로 큰 뜻을 일으키어 집집마다 외우고
사람마다 깨우쳐 말세(末世) 후생(後生)으로 하여금 집집마다 이런 견식이 있
도록 하고 사람마다 이런 법의(法義)를 지키도록 할진대 어찌 우리 고을의 큰
다행(多幸)함이 아니겠는가!」

이상의 글은 조선말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선생의 친자(親炙)를 받아 학
문을 하신 용서(龍西) 유기일(柳基一)선생이 찬(撰)한 글이다. 선생께선 스승이
돌아가신 후로는 화서학파의 적전(嫡傳)인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하시었으며, 포천을 유주(儒州)로 만들어 소중화(小中
華)의 꿈을 실현하려고 애쓰시며 제자(弟子)들을 양성하여 포천을 선비향으로
만드는 공로가 큰 학자이시다. 선생께서는 '용서고(龍西稿)'란 문집(文集)을 남
기시었다. 유기일(柳基一) 선생께선 중암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시면서 사부(師

傳)이신 중암께서 김성대 선생의 위적(偉績)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당시의 제문(祭文), 묘갈명, 만사(輓詞)등을 참고하여 촌로공의 사장(事狀)을 찬(撰)하심에 촌로공의 위적(偉績)을 가장 객관적으로 사적(史蹟)에 근거하여 평가한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하며, 김중암 선생께서 촌로공을 평한 선례(先例)나 촌로공 졸후(卒後)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근거로 촌로공의 효행(孝行)과 덕행(德行)을 기록한 귀중한 사료(史料)라고 생각한다.

IV. 當時의 政治狀況과 金文谷家와의 交遊

1. 당시의 情勢와 政治狀況

촌로 선생께서 생하신 1622년은 광해군14년으로 이른바 광해군 혼정(混政)시대가 극(極)에 달하여 이듬해인 1623년에 서인(西人)들이 주도한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 대북정권이 막을 내리고 인조(仁祖)시대가 도래된다.

인조(仁祖)는 즉위하자마자 인조반정시 공신책록에 불만을 가졌던 이괄이 일으킨 ‘李适의 난’을 맞아 왕(王)이 공주(公州)까지 피신하는 국란(國亂)을 맞게 되며, 난(亂)이 평정된 후 반란에 가담하였거나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화(禍)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지 38년만에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恥辱)스러운 병자호란(丙子胡亂-1636년 인조14)에서 청(淸)나라에 패(敗)하므로 청태종에게 삼전도(三田渡)의 굴욕(屈辱)을 겪으며 삼왕자를 위시하여 많은 백성(百姓)이 심양에 인질(人質)로 잡혀가게 된다. 이어서 소현세자(昭顯世子)가 돌아왔으나 인조(仁祖)의 노여움을 사서 세자(世子)가 원인모르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세자빈(世子嬪)등 세손(世孫)들이 죽게된다.

이 시기에 포천에선 사암(思庵) 박순(朴淳) 선생이 은거(隱居)했던 배견와지(拜鵲窩址)에 옥병서원(玉屏書院)을 세우게 된다. 이때 문곡 김수항이 반시(泮

試), 사마시(司馬試)에서 수석을 하고 효종 3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서 장원급제(壯元及第)하게 되며, 부(父)되는 문곡(文谷)은 옥병서원 상량문(上樑文)을 짓고 쓰며, 그 후 자(子)되는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은 사액(賜額)을 청하는 청사액소(請賜額疏))를 올리게 된다.

이어서 세제(世弟)인 효종(孝宗)이 1649년에 등극하게 되므로 유명한 ‘북벌정책(北伐政策)’이 시작되며 청음 김상헌(金尙憲), 김집(金集), 우암 송시열(宋時烈) 등 반청 척화파(反淸 斥和派) 인물들이 대거 등용된다. 효종은 북벌정책을 통하여 병자호란을 설치(雪恥)하고 국가의 기틀을 잡으려 하였으나 등극한 지 10년만에 갑자기 승하(昇遐)하니 북벌정책은 허망하게 끝난다.

부왕(父王)의 급서(急逝)로 1659년(현종원년) 현종(顯宗)이 등극하게 된다. 현종시의 큰 사건은 2차에 걸친 예송(禮訟) 사건이다. 기해예송(己亥禮訟)¹⁶⁾은 1674년(현종즉위년)에 일어났는데, 효종(孝宗)의 상(喪)에 자의대비(慈懿大妃-인조의 후궁)의 복상이 기년(基年-1년복)이나 대공(大功-9개월)이나를 놓고 서인과 남인과의 세력다툼에서 기년을 주장한 서인(西人)이 승리하여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된다. 2차 예송(禮訟)인 갑인예송(甲寅禮訟)¹⁷⁾은 1674년(현종15)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상(喪)에 자의대비가 입을 복상기간을 서인(西人)에서는 대공(大功-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은 기년(基年)을 주장하다가 남인이 승리하므로 서인이 실각하게 되는데 문곡의 중형(仲兄)인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이 실각하고 문곡이 좌의정(左議政)을 맡았으나 1974년(숙종 즉위년) 허적(許積), 윤휴(尹鑄)를 배척하고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들인 북창군, 북선군 형제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남인의 미움을 받아 영암으로 귀양을 가게 되고 다시 철원으로 이배(移配)되어 약 2년간을 유배생활(流配生活)을 하게 된다.

이 때 文谷의 아들 육형제(六兄弟-흔히 ‘六昌’이라 부른다.)들이 부친(父親)

16) 기해예송(己亥禮訟) - 1659년(현종즉위년) 孝宗의 昇遐로 仁祖妃 慈懿大妃의 服喪期間을 놓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한 사건 西人의 基年服이 채택되므로 西人이 執權

17) 갑인예송(甲寅禮訟) - 1674년(현종14년) 효종비 인선왕후장씨가 승하하자 인조비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남인의 基年服과 서인의 大功說이 대립, 南人의 기년복이 채택되므로 남인이 執權하게 됨

을 돕고자 철원, 영평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촌로 김성대 공의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며 깊은 정(情)을 나누게 되므로 인간적으로 친숙하게 된다.

숙종(肅宗)은 즉위하면서부터 환국정치(換局政治)로 당쟁(黨爭)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사건이 1680년(숙종16)에 일어난 경신환국(庚申換局-庚申大黜陟이라고도 함)과 기사환국(己巳換局-己巳士禍라고도 함)이다. 경신환국은 남인정권의 영의정 허적(許積)이 조부의 시호연(諡號宴)에 궁중의 유약(油幄)¹⁸⁾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기강문란(紀綱紊亂)으로 판단한 숙종이 남인정권을 쫓아내고 서인정권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영의정을 8년간 재임하며 송시열, 박세채등과 서인정권을 이끌게 되며, 이어서 세자 건저(建儲)문제(희빈 장씨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는 문제)로 서인(西人)이 몰락하면서 다시 남인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기사환국(숙종15년 1689)이라 한다. 이때 문곡(文谷)과 우암(尤庵)이 배소(配所)에서 사약(賜藥)을 받게 된다.

이 두 사건으로 서인과 남인의 많은 인사(人上)들이 죽게 되는데 2백여 명의 명사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다. 숙종(肅宗)시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면서 이른바, 역사적으로 유명한 회니시비(懷尼是非)¹⁹⁾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촌로선생의 생몰(生沒)기간은 74년간으로 광해군(光海君), 인조(仁祖), 효종(孝宗), 현종(顯宗), 숙종(肅宗)조로 이어지는 기간이다. 이때는 병자호란(丙子胡亂)이라는 외세침입으로 나라가 어지러웠으며, 북벌(北伐)정책의 혼란, 2차에 걸친 예송(禮訟)사건으로 당쟁이 격화되었으며 숙종(肅宗)의 환국(換局)정치에 남인과 서인이 극열(極熱) 대립하며 서인이 분파(分派)되었고 수많은 인사(人上)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悲劇)의 시대가 전개되었다고 생각하며 촌로(村老)선생 생존(生存)기간의 사건(事件)들을 대략 정리해 보았다.

18) 유약(油幄) - 기름을 먹인 천막 (나라의 애경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먹인 천막)

19) 회니시비(懷尼是非) - 尤庵 宋時烈的 懷德과 尹拯의 尼城으로 老論, 少論간의 政爭

2. 金文谷家와의 交遊

촌로 선생이 문곡 선생을 언제 만났는지는 전하는 기록(記錄)은 없다. 단지 아래 분산시(分山詩)에서 문곡 선생이 백운산(白雲山)을 다시 찾았다는 시구(詩句)에서 표현(表現)되는 것으로 보아 수차의 방문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類推)할 수 있다.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선생은 인조(仁祖)조에 절의(節義)로 유명한 척화파(斥和派)의 영수(領袖)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선생의 손(孫)이다. 청음 선생이 유소년(幼少年) 시에 사암(思庵) 박순(朴淳) 선생의 이웃에 살았기로 사암 선생이 몰(沒)후 외손(外孫) 봉사(奉祀)를 받게 되어 외증손 군수(郡守) 이문망(李文望)이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선생을 찾아 문집 서문(序文)을 부탁하고 있다. 청음(淸陰)은 이 서문(序文)에서 사암(思庵) 선생을 경모(景慕)하는 찬사(讚辭)와 아울러 자기의 평생 소원(所願)이 사암(思庵) 선생의 마부(馬夫)를 하는 것이 소원(所願)이었다고 겸허히 쓰고 있다.

청음(淸陰) 선생은 평소 진심으로 공경(恭敬)하던 사암(思庵) 선생에 대하여 후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암 선생이 몰(沒) 후 집터인 배견와지(拜鵲窩址)에 옥병서원(玉屏書院)을 창건하는데 문곡이 상량문(上樑文)을 짓고, 쓰고 있으며, 사암(思庵) 선생의 화상(畫像)을 찬(贊)하는 글을 짓고 있다. 옥병서원 향사(享祀)에서 효종(孝宗), 현종(顯宗), 숙종(肅宗)朝에 文谷 선생과 村老 선생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으리라고 생각한다.

문곡(文谷) 선생이 사환(仕宦)의 길에서 영평(永平)으로 잠시 돌아와 촌로(村老) 선생을 만나고 백운산(白雲山) 승경(勝景)에 취해 백운산에 살 것을 결심하고 촌로 선생에게 산(山)을 나누어 줄 것을 청(請)했고 촌로 선생은 이를 쾌(快)히 받아 들이고, 백운산 응암(鷹巖)에 문곡의 작은 집을 지어 주었다. 이때 두 분이 산(山)을 나누고 감회를 적은 분산시(分山詩)를 아래에 소개(紹介)한다.

그후 문곡 선생이 기사환국(己巳換局)에 진도에서 사사(賜死)되자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이 잠시 기우(寄寓)하였고 뒤엔 몽와의 제(弟)되는 김창협(金昌協)이 농장을 경영하며 학문을 하였기 농암(農巖)이라는 호(號)를 얻고 있다.

숙종조에 영의정 신완(申玩)의 건백(建白)으로 동은(洞隱) 이의건(李義健) 선생과 문곡 김수항 선생이 옥병서원에 배향(配享)된다. 이즈음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선생은 옥병서원의 사액(賜額)을 청하는 소(疏)를 올리고 있으며, 1713년(숙종39)에 ‘玉屏’이라는 사액(賜額)을 받는다. 아래 두 편의 시(詩)는 문곡 선생과 촌로 선생 두 분이 백운산에서 만나 분산(分山)의 심회(心懷)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곡 선생이 2차 예송(禮訟)인 갑寅예송(甲寅禮訟)에서 패(敗)해 철원에 이배(移配)되었을 때 문곡의 6형제 아들들이 철원, 영평(永平) 지역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으며 촌로선생이 이들의 경제적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촌로공사

문곡 김수항

- 촌로공과의 일 -

瓊巖琪樹玉爲溪

옥같은 바위와 아름다운 나무들 시내 이루어

再入仙源路不迷

다시 찾은 선계의 길을 잃지 않았다

茅洞卜鄰從此始

연곡을 이웃삼아 이곳에서 살려하니

與君分占水東西

그대와 함께 물길에서 동서로 분점하세

문곡선생분산
文谷先生分山

촌로 김성대
村老 金聲大

-문곡선생과 산을 나누다-

석산장송松下陰
石山長松松下陰

석산엔 장송드리웠고 송하 그늘에서

유인보월조영류
幽人抱月照氷嶺

은자가 달을 안으니 얼음곁에 옷깃 비친다.

하수구노유원사
何須九老遊蓮社

어찌다 구노들은 연사에서 놀았는지

불선군현회죽림
不羨羣賢會竹林

못 현인들 죽림의 만남 부러워하지 않는다.

행유시옹다의사
幸有詩翁多意緒

다행히 시옹들 있어 시의들이 많이 나온다.

위장가경입청령
爲將佳景入淸嶺

장차가경에 들어 맑은 시음 나오려니

영가미족하탄구
詠歌未足嗟嘆久

시 읊고 노래하며 차탄함이 오래다

불각서산로침침
不覺西山路沉沉

서산길 침침해져도 시가에 젖어 깨닫지 못한다.

VI. 업적(業績)과 향사(享祀)

1. 玉屏書院 設壇時에 永平校儒 簡通略(追享)

「지난 3월 설단(設壇)일에 각 마을 여러 군자(君子)들이 크게 모였을 때 본 고을의 유현(遺賢)으로 옛적에 참봉 촌로 선생 김공(叅奉 村老 先生 金公)과 참봉 유심재 선생 이공(叅奉 有心齋 先生 李公) 양현(兩賢)을 추배(追配)할 일로 의론이 일어났었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意見)이 일치(一致)하고 상의한 바.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또 오는 가을을 기다려 따로 날을 받아 사유(事由)를 고(告)하고 단(壇)을 쌓기로 이미 굳게 정(定)하였으니 이는 매우 훌륭한 사업(事業)이라 하겠습니다. 잠간 사이에 가을이 이미 닦쳤으므로 이에 감히 글을 써서 제위(諸位)의 좌전(座前)에 통고(通告)하는 바입니다.

간절(懇切)히 원하옵건대 여러분께서는 모름지기 금월(今月) 모일(某日)에 본원의 유허(遺墟)로 함께 모이셔서 골돌한 뜻으로 의론(議論)하사 이 훌륭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천만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양현(兩賢)은 이미 본향(本鄉)의 향선생(鄉先生)이신 즉 그 시종(始終) 행의(行義)와 드러난 큰 지절(志節)은 무릇 우리 고을 선비나 노성(老成)으로 견식(見識)이 있는 이는 누가 익히 알지 못하리오! 굳이 일에 번거로울 것이 없아오니 신진초학(新進 初學)이나 어린아이로서 몰지각(沒知覺)한 자(者)들에 있어서는 모두 자상(仔詳)히 알지 못할까 두려웁고 이 행사가 백세(百世)를 위하여 큰 의론을 기다리는 것인지라 또한 부득이 이 통문(通文)을 써서 올림이 마땅히 아름다운 일로 사료(思料)되어 감히 다시 두선생의 유사(遺事)를 아뢰고자 왼쪽에 부록(附錄)하였는데, 자제들에게 각기(各己) 가르치고 후손(後孫)에게 보여주는 한 도움에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업드려 바라옵건대 다행(多幸)히 보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헤아리웁고 예를 갖추지 못하오니 밝게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三齊任 具秉斗, 申應雨, 李承會)

이상의 글은 옥병(玉屏)서원이 1871년(고종8년)에 홍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훼손되고 전국 680여개의 書院, 祠, 壇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훼손(毀撤)된다. 이 간통(簡通-자기의 뜻을 글로써서 여러 사람에게 알림)이 작성되었을 때는 1892년(고종29)으로 대원군(大院君)은 실각한 상태로 온 나라가 외세(外勢)의 침입으로 혼란한 시기이다.

이때 영평(永平) 유생(儒生)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김중암(金重菴), 최면암(崔勉庵), 유용서(柳龍西) 등 화서학과 문인(門人)들이다. 서원(書院)을 복원(復元)하는 사업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민족정기(民族正氣)

회복이라도 하려면 서원(書院) 원허지(院墟地)에 단(壇)을 쌓아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하는 일이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유림(儒林)들은 고(故) 삼선생(三先生) 외에 촌로(村老) 김성대(金聲大) 선생과 유심재(有心齋) 이화보(李和甫) 선생을 추향(追享)하고자 동의(同意)를 받아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하고자 알리는 통문(通文)이다.

2. 玉屏院墟 爲兩賢配享 封壇時 告三先生文

柳基一 撰

「유(維)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이백육십오년 세차(歲次) 임진(壬辰 1892년-고종29) 시월 을묘삭 이십팔일 壬午에 후학(後學) 최익현(崔益鉉)은 사암(思庵) 박선생, 동은(洞隱) 이선생, 문곡(文谷) 김선생께 감히 아뢰옵니다.

엿드려 살피건대 우리 고을에 향현(鄉賢) 두 선생님이 계시어 사우(祠宇)에 제사(祭祀)를 모심이 진실로 합당하온대, 이제껏 거를치 못했습니다. 첫째는 고(故) 참봉(參奉) 촌로 선생 金公 諱 聲大요, 둘째는 고(故) 유심재(有心齋) 선생 李公 諱 和甫입니다. 李公은 즉 우리 사암(思庵) 선생의 외손(外孫)으로 도암(陶庵) 이재(李穡) 선생의 문하에 수업하여 뜻을 오로지 행실(行實)에 힘써 학문이 깊고 도덕(道德)이 높아 우연히 한북(漢北)의 유림(儒林) 종장(宗匠)이 되었고, 金公은 즉 우리 문곡 선생의 풍류(風流)로서 서로 즐기신 벗으로 기사사화(己巳土禍)에 절의(節義)가 드러났고 자질(資質)이 순후(醇厚)하고 윤기(倫紀)가 독실(篤實)하며, 식견(識見)이 높고 도덕이 높아 뛰어나게 향당(鄉黨)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참으로 후손들이 마땅히 우러러 사모하고 본받을만한 분들인데, 향리(鄉里)의 후배로서 문견(聞見)이 짧고 알아 능히 다 알지 못하와 가히 부형(父

兄)된 자로서 크게 민망할 따름입니다. 주부자(朱夫子)께서 탄식한 바 후생(後生)으로서 소승상(蘇丞相-蘇秦)을 알지 못함인 것입니다. 이제 재앙(災殃)이 터져 어지럽고 곤은 것은 멸시(蔑視)되어 참화(慘禍)가 신변에 바로 미치는 때를 당하여 선비의 기풍(氣風)이 약해지고 세상의 도리가 떨어져, 장차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즈음에 다행히 만분의 일이라도 진작(振作)하고 만회(挽回)할 것 같으면 무릇 전현(前賢)을 추모(追慕) 보답(報答)하고 후학을 끌어 가르치는 한가지 남은 규범(規範)이 될 것 입니다. 더욱 뜻을 이루는데 침착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한 날로 좀먹는 피폐(疲弊)한 상황인지라 조금이라도 늦춤을 용납(容納)하지 못할 일입니다.

지난 초봄에 본원(本院)의 빈터에 설단(設壇)한 후로, 식견(識見)있는 이들이 이르기를 “마땅히 양현을 단향(壇享)에 추배(追配)하여 한가지로 높이 보답하므로써 가까운 이웃에 보고 듣는 자로 하여금 감동이 일어나 고을의 의론이 한군데로 돌아가 대사(大事)를 가히 마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날을 택하여 일제히 모아 경영(經營)을 의논한 바, 정위(正位)의 밑으로 조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위치에 金公의 단(壇)을 봉축하고 또 정위(正位)의 밑으로 조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한 위치에 李公의 단(壇)을 봉축(封築)하여 배향(配享) 추보(追報-德業을 거슬러 보답함)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바로 일을 시작하는 처음에 술과 과실로서 공경(恭敬)히 아뢰웁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데 삼선생(三先生)의 영령(英靈)께서 이곳에 임하사 굽어 살피시고 이 유도(儒道)를 잠잠(潛潛)히 도우시어 끝내 막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많이 흠향(歆饗)하시옵소서!」 (1892년 高宗29年 甲辰 10月28日 設壇 追配)

위 글은 옥병서원 원허지(院墟地)에 당시 포천, 영평의 유림들이 모여 양현(兩賢-村老 先生 金公, 有心齋 先生 李公)을 추향하기 위하여 먼저 주벽(主壁)이신 박사암 선생과 이동은 선생, 김문곡 선생께 올리는 고유제문(告由祭文)이다. 이 제문(祭文)은 당대의 학자 柳基一 선생이 제진(製進)하고 있다.

내용에서 나라가 쇠미한 어려운 시절이지만 늦게나마 향현(鄉賢)인 두 분 선

생의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음을 다행이라고 고(告)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이 나라의 윤기(倫紀)를 바로잡아 지역을 예향(禮鄕)으로 이끌수 있다는 간절한 일로 유도를 바로 잡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제문(祭文)에 실어 고하고 있다.

시대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라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애절한 염원이 실려 있으며, 촌로 선생 같은 훌륭한 지역 향현(鄕賢)을 배향(配享)하게 되었음을 고하고 있다.

이 제문에서 나타나 있듯이 촌로 선생은 일찍이 옥병서원에 모셔야 될 분임을 시사(示唆)하고 있으며 당시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면암 최익현(崔益鉉) 선생이 초헌관(初獻官)을 맡아 유림의 사기(士氣)를 북돋고 있음은 역사에 남을 유림(儒林)의 큰 역사라고 생각한다.

3. 봉단후 당위고문(封壇後 當位告文)

『維- 肅正기원후(崇禎 紀元後) 二百六十五年 歲次壬辰 十月乙卯朔 二十八日 壬午에 후학(後學) 김창선(金昌善)은 고(故) 참봉(叅奉) 村老 선생 金公에게 감(敢)히 아뢰옵니다.

오직 공께서 베푸신 숨은 공덕(功德)은 가히 팔주(八廚)에 가깝습니다. 하물며 큰 정의(正義)는 간사(奸邪)한 선비들이 부끄러워 죽을 것입니다. 효성(孝誠)과 우애(友愛)로서 다스림을 삼았고, 인애(仁愛)와 의리(義理)로서 뜻을 오로지 하였습니다. 누추(陋醜)한 시골에서 살으심이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대인의 기품은 이미 갖추셨습니다. 저 백운산(白雲山)을 바라보니 실로 공께서 살으신 곳입니다. 친의(親誼)를 잃지 않았으니 문곡(文谷)과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도(友道)를 이르는가! 궁(窮)한 때에 마침내 보는 것입니다. 외롭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죽음을 맹서(盟誓)하고 변치 않았습니다. 세 번 망(亡)하고 네 번 흥(興)하는 것은 성현(聖賢)의 밝은 교훈(敎訓)에 있습니다. 공께서 능(能)히 실천하시어 업(業)을 행하고 덕(德)을 쌓으셨습니다. 가히 본보기가 되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은덕(恩德)을 갚지 않겠습니까? 백대(百

代)에 전하여 나갈 것입니다.

문옹(文翁)을 향사하는 이 옥병서원(玉屏書院)에 제례(祭禮)가 모두 없어졌으나 또한 단소(壇所)를 설치하였습니다. 유명(幽明-어둡고 밝음)이 어찌 상관이겠습니까? 의리(義理)는 실로 잊기 어렵습니다. 추배(追配)함이 마땅하다 하여 향사(享祀)할 뜻으로서, 이곳에 모시기로 여럿이 찬동(贊同)하였습니다.

정위(正位)의 아래 조금 서편(西便)으로 일위(一位)를 정하여 이에 봉축(封築)하옵고 감(敢)히 사유를 고(告)하는 바입니다.

신령(神靈)께서는 그에 감동하시어 천추(千秋)에 임하소서, 안타깝게도 친히 가르치심을 쫓지 못하오나 다행히 우러러 의지할 곳을 얻었습니다. 감히 변변치 못한 제수(祭需)를 올리오며 무릇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뜻은 그치지 않겠나이다. 흠향(歆饗)하시옵소서!」

위의 글은 제진(製進)자가 기록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유용서 선생이나 초헌관인 김창선선생이 찬한 것으로 생각된다. 촌로선생께선 이미 대인의 도를 쌓으신 분으로 그 공은 이미 文谷公이 참화(慘禍)를 입은 기사사화에 나타나 있음을 설명하며 오늘 옥병서원에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음을 고하고 있다.

위 삼선생 고문(告文)과 당위(當位) 고문에서 보듯이 촌로 선생이 서원(書院)에 추향(追享)하게 되었음이 너무 늦었으며 당당히 위패를 봉안(奉安)함을 고하고 있음은 촌로 선생의 큰 덕(德)과 인품(人品)을 느낄 수 있다.

* 每歲 舍菜從享 祝文式

柳基一 製

維云 云思庵朴先生 垞隱李先生 文谷金先生 伏惟 仁賢德業 三光高揭
達不離道 隱豈忘世 世或相後 其趨則一 易地皆然 孰云殊轍 幸於此鄉
杖履同臨 嗚呼不忘 況復如今 院墟有在 尙足私伸 亦有追配 惟德其隣
復四仁人 蠱上志士 果能從道 實亦趾美 日食鼓幣 苦待陽復 歲一舍采
祇奉香祝 以鄉賢 村老先生 金公 有心齋先生 李公 配 尙 饗

위 축문은 옥병서원에 두 분을 더 모셨기 때문에 柳龍西 선생께서 축문(祝文)을 제(製)하신 것이다.

4. 연곡사에 제향통문(鵞谷祠에 祭享通文) 1831(純祖31) 辛卯 5月

가. 영평 유생(儒生)에게 보내는 통문(通文)

「지금 귀교(鬼敎-邪敎)가 크게 떨치고 백사(百邪)가 나라에 넘치는 때에 선비의 기풍(氣風)이 크게 혹 변하고 세상의 도리(道理)가 점점 형통(亨通)해 질 건가? 이에 정히 초봄에 발론(發論)이 되어 회중(會衆)의 여러 의론이 함께 찬동(贊同)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발론(發論)한 분은 누구인가 청송(靑松)인 심능순(沈能舜)이었다.」

「위의 글로 통첩(通牒)하여 아뢰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데 고을의 선생이 돌아가시면 그 고을에서 제사(祭祀)를 모셨으니 옛부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 공(功)을 기술(記述)할 것이 있고, 덕(德)에 은택(恩澤)이 있었으면 이는 전세(前世)를 추모(追慕)하고 후세(後世)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어찌 하지 않아서 될 일입니까?

영평의 연곡(鵞谷)은 바로 옛적에 참봉(叅奉)으로 증대사헌(贈大司憲)이요 號村老이신 金公 휘(諱) 성대(聲大)와, 진사(進仕)로 증대사헌(贈大司憲)이신 金公 휘(諱) 성옥(聲玉) 형제(兄弟)께서 사시던 옛 터입니다. 공의 형제께서 그곳에 숨어 살면서 의리(義理)를 행하시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傳)하여 그 당시를 칭송(稱頌)하고 있으니, 대개 그 덕(德)을 행함이 모든 행실(行實)에 근원(根源)하였으며, 또한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게 천성(天性)을 타고 났었습니다.

병자(丙子)에 오랑캐의 난리를 당하여 참봉공께서 나이 겨우 성동(成童)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랑캐들을 피하여 산골로 들어가 고을 사람들과 더불어 대오(隊伍)를 나누어 파수(把守)를 보면서 조치(措置)에 법도(法度)가 있더니 쌀

을 등에 짊어지고 물을 건느고 산을 넘어 여러 사람의 앞장을 서서 피(避)하였습니다. 이로써 비록 산속이었지만 음식의 공양(供養)과 모시는 절차(節次)가 모두 법도가 있었음으로 이로 말미암아 고을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범절(凡節)을 감복(感服)하였습니다.

평시(平時)에도 관대(冠帶)를 위엄(威嚴)스럽게 갖추어 덕성(德性)스런 모습이 깊고 두터웠으며, 경적(經籍)을 독실(篤實)히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에는 성실(誠實)하고 삼가하여 착한 행실을 타이름을 즐기니 고을에서도 감화하여 노복으로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충효(忠孝)의 방도(方道)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후로 아버지의 병환(病患)을 시중들음에 형제가 함께 분뇨(糞尿)를 맛보고 손을 단지(斷指)하여 피를 흘려드리는 등 성의(誠意)가 지극(至極)하였으니 이것이 그 한 절목(節目)입니다.

오직 평상시에 제사(祭祀)를 모시는 절차와 시탕(侍湯)과 도복(禱北-북두성에 기도함)의 성의(誠意)며, 상(喪)을 당하여 정례(情禮-정리와 예의)를 다하고 종신(終身)토록 유모(孺慕-돌아간 부모를 사모함)함이 그침이 없었으니 이는 순수(純粹)한 효성(孝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고(詳考)해 보건대 참봉공께서 문곡(文谷)이 기사사화(己巳土禍-換局)에 참화(慘禍)됨을 당하여 형세(形勢)가 위태(危殆)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몽와(夢窩-金昌集)형제를 맞아드려 양식(糧食)을 나눠주고, 집을 주고 골육(骨肉)같이 지냈으며 진사(進仕)공께서는 대로(大老)²⁰⁾께서 갑인에 횡액(橫厄)을 당했을 때 이세필(李世弼) 등 여러 사람으로 더불어 항소로서 신원(伸冤)을 변론하다가 엄한 정거(停擧)²¹⁾를 함께 당하고 후에 또 본현(本縣)의 옥병서원(玉屏書院)에 사액(賜額)을 청하는 상소(上疏)를 올려 액호(額號)를 받았습니다.

이공(二公)께서 시골에서 늙어 세상 일에 뜻함이 없었으나 그 드러난 명성

20) 대로(大老) - 우암 宋時烈 선생을 가르침

21) 정거(停擧) - 儒生에게 일정기간 동안 科擧에 應試를 제한하는 罰

(名聲)이 이같은 여러 일이 있었으니 대개(大概) 그 모퉁이를 들치어 그 행의(行誼)의 근본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참봉공의 사마방(司馬榜)이 들리자 주상(主上)께서 물으시는 은총(恩寵)을 무릅쓰는데 연석(筵席)의 신하가 공의 실행(實行)을 아뢰므로 주상께서 아름다히 여기시고 참봉을 특별히 제수(除授)하시니 또한 특이한 은전(恩典)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사(出仕)를 사양하고 물러나 산골에 살면서 한가롭게 여년(餘年)을 마치었는데 후에 추은(推恩)으로 대사헌(大司憲)에 증직(贈職)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진사(進士-聲玉)공의 효행을 천거하여 지평(持平)에 증직(贈職)되고, 후에 역시 도헌(都憲-대사헌의 별칭)으로 증직(贈職)되었습니다.

이공(二公)께선 세상을 피하여 삶을 즐거이 여기고 산수(山水)사이를 노닐면서 마침내 여년(餘年)을 마쳤으나 착한 덕행(德行)과 아름다운 명성(名聲)이 사람의 입에 널리 퍼져 울연(蔚然)히 한 고을의 표준(標準)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살으시던 집에 추사(追祀)의 의론이 일어났는데 대개 그 고을 사람들의 뜻으로서 기필코 하고자 함이 아니요, 스스로 한뜻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祭祀)를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막중(莫重)한 예(禮)인지라, 또한 고을의 의론이 하나로 귀일(歸一)함만 스스로 믿고 감히 곧이 곧대로 행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감히 수선지지(首善之地-成均館)에 받들어 묻는 것입니다. 업드려 생각하건대 여러 군자(君子)께서는 널리 듣고 신빙(信憑)할 고증이 있어 저희들의 구구한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복망(伏望)하건대 자상(仔詳)히 의론하와 가르침을 일러주시면 문득 한 고을의 의지하고 양모(昂慕)하는 정(情)을 길이 펼 것이요, 쉬지 않고 공부하는 곳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發文 昌原人 兪宗源 製)」

위의 글은 순조(純祖)31년인 1831년 신묘년에 영평(永平)의 유생(儒生)들이 촌로 김성대 선생의 유거지(遺居地)인 연곡마을에 촌로 선생과 제(弟)되시는 증대사헌공 성옥(贈大司憲公 聲玉) 兩賢을 유현(遺賢)으로 높은 덕(德)이 있음을 설명하고 영평 유림들이 사당을 신축하여 두 분의 유업(遺業)을 빛내고 고

을이 이들을 본받아 예절향(禮節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론(發論)을 하여 그 해에 연곡사(鰲谷祠)를 건립하였다.

이 때 주문(主文)을 쓴 사람이 영평유생 심능순(沈能舜)이고 발의문(發議文)을 쓴 사람이 창원(昌原)인 유종원(兪宗源)이란 분이다. 이 두 분은 당시 활동한 유생(儒生)들이며 이들의 기록(記錄)이 없어 자세히 소개하지 못한다.

이 시기에 덕망(德望)이 있는 유현(遺賢)들인 양현(兩賢)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하여 사당(祠堂)을 신축하고 유림들이 향사(享祀)를 올렸다는 것은 포천, 영평이 이름있는 유향(儒鄉)이었으며 두 분 형제의 덕의(德義)가 뽐뽐(綿綿)히 전(傳)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村老 金聲大 先生과 人物들

1. 주변(周邊) 인물들

1) 백대진(白大璫, 1595(선조28)~1665(현종6))

수원(水原)인으로 증조(曾祖)는 도승지를 지내고 양주목사를 지낸 인영(仁英)이고 조(祖)는 유정(惟澄)이며, 아버지는 수종(守宗)이다.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나무골에서 태어났다. 1615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할 때 정청(政廳)에 나아가 참례 후 사직(辭職)하여 1618년(광해군 10)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모든 관직 진출이 제한되었다. 이후 다시 직첩을 환급받아 1637년(인조 15) 선공감 주부에 제수되었으나, 질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다.

1640년(인조 18) 도총도사(都總都事)에 제수되었고, 1641년(인조 19) 창원 부사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병으로 사직을 청하였다. 1645년(인조 23) 자산 군수, 1648년(인조 26) 인동 부사, 그 해 8월 다시 곡산 군수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오랜 병으로 부임하지 않아 사헌부가 처벌을 주장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질병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하였다.

1657년(효종 8) 홍명하(洪命夏)가 무사(武士) 가운데 백대진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 등용할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하여, 1658년(효종 9) 군기시 부정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훈련정, 10월에 명천 부사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11월에 비변사가 그의 나이와 질병을 이유로 체직시켰다. 1661년(현종 2) 소강 첨사(所江僉使), 1664년(현종 5) 영변부사에 각각 제수되었으나 역시 병으로 사직을 청하였다. 이렇듯 백대진은 제수(除授) 받은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 시를 읊고 즐기는 삶을 살자 사람들이 그를 ‘무은(武隱)’이라고 불렀다. 1665년(현종 6) 4월 18일 오랜 질병(疾病)으로 돌아왔다.

백대진은 촌로 김성대 선생의 처부(妻父-丈人)이다.

2) 김수증(金壽增, 1624(인조 2)~1701(숙종 27))

조선후기 학자,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연지(延之), 호는 곡운(谷雲). 할아버지는 김상헌(金尙憲)이며 영의정 김수홍, 김수항의 형이다. 1650년(효종 1)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652년에는 세마(洗馬)가 되었다. 그 뒤 형조정랑, 공조정랑을 거쳐 각사(各司)의 정(正)을 두루 역임하였다. 젊어서부터 산수를 좋아하여 금강산 등 여러 곳을 유람한 뒤 기행문(紀行文)을 남기기도 하였다.

1670년(현종 11)에는 지금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영당리에 복거(卜居 : 살만한 곳을 가려져 정함)할 땅을 마련하고 농수정사(籠水精舍)를 지었다. 그 뒤 1675년(숙종 1)에 성천 부사로 있던 중에 동생 김수항(金壽恒)이 송시열(宋時烈)과 함께 유배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농수정사로 돌아갔다. 이때 주자(朱子)의 행적을 모방하여 그곳을 곡운(谷雲)이라 이름 짓고, 곡운구곡(谷雲九曲)을 경영하였다. 1682년 화가인 조세걸(曹世傑)을 시켜 「곡운구곡도」를 그리게 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송시열과 동생 김수항 등이 죽자, 벼슬을 그만두고 화음동(華蔭洞)에 들어가 정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 후 다시 관직에 임명되어 한성부 좌윤, 공조 참판 등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모두 사퇴한

뒤 세상을 피해 화악산(華嶽山) 골짜기로 들어가 은둔하였다. 이때 그는 성리학에 심취하여 북송(北宋)의 성리학자들과 주자의 성리서를 탐독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소강절(邵康節 : 중국 북송의 유학자 邵雍은 그 시호로써 일컫는 이름)의 음양소식관(陰陽消息觀)을 정사의 조경(造景)에 응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을 도상화(圖象化)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돈이(周敦頤)와 주자의 행적에 나타나는 「태극도」, 「하도낙서(河圖洛書)」, 「선후천팔괘도(先後天八卦圖)」 등을 정사의 경내에 있는 바위에 새겨 '인문석(人文石)'이라 하였다. 또한 계곡에 있는 바위들에 천근석(天根石), 월굴암(月窟巖) 등 소강절의 사상시(思想詩)에 나오는 음양소식관을 담은 이름도 붙여 조경을 하였다. 이들의 유적은 지금도 남아 있어 성리 사상이 건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춘천의 춘수영당(春睡影堂)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곡운집』과 1692년 조세걸의 「곡운구곡도」에 그와 후손들이 창작한 「谷雲九曲歌」를 곁들여 만든 『곡운구곡도첩』이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德沼里)에 묘가 있다. 묘비는 1710년에 세웠으며 비문은 조카 김창흠(金昌翕)이 썼다.

촌로 김성대 선생과 연곡의 응암(鷹巖), 옥병서원에서 교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촌로가 졸하자 '늙은이가 슬피 울어 그대를 멀리 보내는데 춘성(春城)에 병으로 누어 촛불처럼 혼(魂)을 녹이도다'라며 만사(輓詞)를 쓰고 있다.

3) 김수항(金壽恒, 1629(인조 7)~1689(숙종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구지(久之), 호는 문곡(文谷).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광찬(金光燦)이며, 어머니는 목사 김래(金來)의 딸이다.

1645년(인조 23) 반시(泮試)에 수석하고, 1646년 진사시와 1651년(효종 2) 알성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전적(典籍)이 되었다. 이어 병조좌랑·사서(司書)·경기도사·지평(持平)·정언(正言)을 거쳐, 1653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 해 정시 문과에 5등으로 급제(及第)해 효종으로부터 말을 받았으며, 이듬

해 부수찬(副修撰)·교리(校理)를 거쳐 이조정랑이 되어 중학(中學)·한학교수(漢學教授)를 겸하였다. 1655년 호당(湖堂)에 사가독서하고 수찬이 되었다가, 응교(應敎)·사간·보덕(輔德)을 지냈으며, 중시에서 을과로 급제, 형조참의·승지·부제학을 지냈다.

1659년(현종 즉위년) 효종릉비의 전서(篆書)를 쓴 공로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도승지·예조참판·이조참판을 지냈으며, 1662년 왕의 특명으로 예조판서에 발탁되었다. 그 뒤 육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고, 특히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명사들을 조정에 선임하는 데 힘썼다.

1672년 44세의 나이로 우의정에 발탁되고, 좌의정에 승진해 세자부(世子傅)를 겸하였다. 그러나 서인 송시열(宋時烈) 등이 왕의 경원(敬遠)을 받고 물러남을 보고 남인 재상 허적(許積)을 탄핵한 대간을 힘써 변호하다가 도리어 관중 추부사로 물러났으며, 사은사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74년 갑인예송에서 서인이 패해 영의정이던 형 김수흥(金壽興)이 쫓겨나자, 대신 좌의정으로 다시 임명되었다. 숙종 즉위 후 허적·윤휴(尹鑄)를 배척하고, 추문을 들어 종실 복창군 정(福昌君楨)·복선군 남(福善君柟) 형제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집권파인 남인의 미움을 받아 영암에 유배되고 1678년(숙종 4) 철원으로 이배되었다.

1680년 이른바 경신대출척이 일어나 남인들이 실각하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복귀, 영의정이 되어 남인의 죄를 다스리는 한편, 송시열·박세채(朴世采) 등을 불러들였다. 이후 8년 동안 영의정으로 있다가 1687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체임되었다.

1689년 태조 어용(太祖御容: 태조의 영정)을 전주에 모셔놓고 돌아오는 길에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재집권하자, 남인의 명사를 함부로 죽였다고 장령(掌令) 김방걸(金邦杰) 등이 탄핵해 진도로 유배, 위리안치되었다.

뒤이어 예조판서 민암(閔黯)을 비롯한 6판서·참판·참의 등 남인 경재(卿宰) 수십 인의 공격과 사헌부·사간원의 합계(合啓: 함께 계문을 올림)로 사사되었다. 이는 경신 이후의 남인 옥사를 다스릴 때 위관(委官)으로 있었고, 특히 소

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인 재상 오시수(吳始壽)를 처형했기 때문에 입게 된 보복이었다.

절의로 이름 높던 김상헌의 손자로 가학(家學)을 계승했으며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인 송시열·송준길(宋浚吉)과 종유하였다. 특히 송시열이 가장 아끼던 후배로서 한 때 사림의 종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할 때 송시열을 옹호하고 외척과 가까운 노론의 영수가 되자, 소론 명류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시문에 뛰어났고, 변려문(駢儷文)에서는 당대의 제일인자로 손꼽혔다. 또한 가풍을 이은 필법이 단아해 전서와 해서·초서에 모두 능하였다.

사후에 세상의 평가는 그가 조정에서 벼슬할 때 세 가지의 큰 절의를 세웠다고 찬양하였다. 첫째는 남인의 역모를 꺾어 기강을 유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론이 이론(異論: 남인에 대한 온건한 처벌 주장을 말함)을 일삼아 흉당(凶黨: 남인)을 기쁘게 할 때에도 홀로 옳은 것을 지켰을 뿐 아니라 화를 당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스승인 송시열을 배신한 윤증(尹拯)의 죄를 통렬히 배척해 선비의 갈길을 밝혀 사문(斯文)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평판은 물론 그가 속한 노론계의 주장이며, 반대로 소론측에서는 그가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사사로운 일을 임금에게 아뢰어 조정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마침내 사림을 분열시켜 놓았다고 비난하였다.

1694년에 신원, 복관되었다. 1886년(고종 23)에는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고, 진도의 봉암사(鳳巖祠), 영암의 녹동서원(鹿洞書院), 영평의 옥병서원(玉屏書院) 등에 제향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전주의 호산사(湖山祠)에 추가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문곡집(文谷集)』 28권이 전하고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촌로 선생이 졸했을 때는 이미 문곡이 기사사화(己巳土禍)로 세상에 없었으므로 아무런 글도 남기지 못했다.

4) 김창집(金昌集, 1648(인조 26)~1722(경종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광찬(光燦)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수항(壽恒)이며, 어머니는 호조좌랑 나성두(羅星斗)의 딸이다. 창협(昌協)·창흠(昌翕)의 형이다. 이른바 노론 4대신으로 불린다.

1672년(현종 13)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1675년 아버지 수항이 화를 입고 귀양가자 과거 응시를 미루었다. 1681년(숙종 7) 내시교관을 제수받았고, 1684년 공조좌랑으로서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정언(正言)·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진도의 유배지에서 사사되자, 귀향해 장례를 치르고 영평(永平)의 백운산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정국이 바뀌어 복관되고, 병조참의를 제수받았으나 사임하였다. 다시 동부승지·참의·대사간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그 뒤 철원부사를 제수받았는데, 이 때 큰 기근이 들고 도둑이 들끓어 민정이 소란하자 관군을 이끌고 토평하였다. 강화유수·예조참판·개성유수 등을 역임하고, 호조·이조·형조의 판서를 지냈다. 1705년 지돈녕부사를 거쳐 이듬해 한성부판윤·우의정, 이어서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다. 1712년에는 사은사로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 1717년 영의정에 올랐다.

노론으로서 숙종 말년 세자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가 소론의 탄핵을 받았다. 숙종이 죽은 뒤 영의정으로 원상(院相 : 나이 어린 왕을 보필하던 재상급의 원로 관료)이 되어 온갖 정사를 도맡았다. 경종이 즉위해 34세가 되도록 병약하고 자녀가 없자, 후계자 선정 문제로 노론·소론이 대립하였다.

이 때 영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등과 함께 연잉군(延昞君 : 뒤에 영조)을 왕세자로 세우기로 상의해, 김대비(金大妃 : 숙종의 계비)의 후원을 얻었다. 이에 경종의 비 어씨와 아버지 어유구(魚有龜), 사직(司直) 유봉휘(柳鳳輝) 등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실행하였다.

1721년(경종 1) 다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해, 처음에 경종은 대소 정

사를 세제에게 맡길 것을 허락했으나 소론의 격렬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수개월 후 소론의 극렬한 탄핵으로 노론이 축출되고 소론 일색의 정국이 되었다. 곧 이어 소론의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등이 노론의 반역 도모를 무고해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듬 해 성주에서 사사되었다.

1724년 영조 즉위 후 관작이 복구되었으며, 영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영조 때 과천에 사충서원(四忠書院)을 세워 이이명·조태채·이건명과 함께 배향했으며, 거제의 반곡서원(盤谷書院)에도 제향되었다. 저술로는 국조자경편(國朝自警編)·몽와집 등이 있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1695년(숙종21) 영평에서 촌로 선생이 졸하자 당시 철원부사로서 만사를 쓰며 제문을 지었으며, 1710년(숙종31)엔 좌의정으로 촌로공 묘갈명을 찬하고있으며 촌로공과는 가장 정의(情誼)가 깊었을 것으로 사료(史料)된다.

5) 김창협(金昌協, 1651(효종 2)~1708(숙종 34))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경기도 과천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삼주(三洲),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자이고, 영의정을 지낸 창집(昌集)의 아우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수항(壽恒)이며, 어머니는 안정나씨(安定羅氏)로 해주목사 성두(星斗)의 딸이다.

1669년(현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전시장원으로 급제하여 전적에 출사하였다. 이어서 병조좌랑·사헌부지평·부교리 등을 거쳐 교리·이조좌랑·함경북도병마평사(咸鏡北道兵馬評事)·이조정랑·집의·동부승지·대사성·병조참지(兵曹參知)·예조참의·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명에 의해 송시열(宋時烈)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교정하였다.

청풍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자, 사직하고 영평(永平:포천 이동면 백운산)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아버지가 신원(伸寃)됨에 따라 호조참의·예조참판·홍문관제학·이조참판·대제학·예조판서·세자우부빈객·지돈녕부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의 설을 절충하였다. “사단(四端)은 선(善)뿐이고 칠정(七情)은 선과 악을 겸했으니, 사단은 오로지 이(理)만 뜻하고 칠정은 기(氣)를 겸한 것이다.”라는 이이의 설에 대해, 다만 기까지 겸하였다는 한 구절에서 차이를 보인다. “칠정(七情)이 비록 이와 기를 겸했더라도 그 선한 것은 기가 능히 이를 따랐음이고, 그 선하지 않은 것은 기가 능히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니, 처음부터 기가 주된 것이다.”라고 하여 이이의 기발이 승설(氣發理乘說)을 지지하였다.

그는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도 “기의 맑은 것은 모두 선하지만 선한 정(情)이 모두 맑은 기에서 나왔다 함은 옳지 않으며, 정의 악한 것이 탁(濁)한 기에서 나왔지만 탁한 기가 발(發)해 된 정의 모두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인심의 동(動)함에 이가 비록 기에 탕어도 기가 또한 이의 명령을 듣는 것이다. 만약, 선악의 정을 모두 기의 청탁에 돌린다면 이의 실체와 성(性)의 선함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성악론변(性惡論辨)」에서 그는 “사람의 성은 본래 선한 것이나 순경(荀卿)이 인성을 악하다고 말한 것은 기요, 성이 아니다. 대체로, 사람이 세상에 날 때 기는 질(質)이 되고 이는 성이 되는 것인데, 이에선만 있고 악이 없으나 기에는 선한 것도 있고 선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 사람에게 선하지 못함이 있음은 기의 소위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의 문장은 단아하고 순수하여 구양수(歐陽修)의 정수를 얻었으며, 그의 시는 두보(杜甫)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고상한 시풍을 이루었다. 특히, 문장에 능하고 글씨도 잘 써서 「문정공이단상비(文貞公李端相碑)」·「감사이만웅비(監司李萬雄碑)」·「김숭겸표(金崇謙表)」·「김명원신도비전액(金命元神道碑篆額)」 등의 작품을 남겼다.

저서로는 농암집·주자대전차의문목(朱子大全劄疑問目)·논어상설(論語詳說)·오자수언(五子粹言)·이가시선(二家詩選) 등이 있고, 편저로는 강도충렬록(江都忠烈錄)·문곡연보(文谷年譜) 등이 있다.

숙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영암의 녹동서원(鹿洞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金文谷의 子가 6명으로 향렬이 '昌'이므로 보통 '六昌'으로 불린다. 촌로 선생께서 김문곡과 산을 분산한 후 응암(鷹巖)에 작은 집을 지어 주었던 바, 형 몽와(夢窩)공이 살다 한성으로 간후 벼슬에 나가지 않은 농암 김창협이 이곳에 살며 학문을 하고 농장을 갖고 있었던 바, 농암(農巖)이란 호를 갖게 된다.

촌로공과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형제일 것으로 사료되며 학문의 깊이가 깊으며, 이단상(李端相)의 문인(門人)으로 이곳에서 많은 제자(弟子)를 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촌로공 졸후 만사(輓詞), 제문(祭文)을 지었으며 후에 옥병서원의 사액(賜額)을 청하는 청사액소(請額疏)를 올리고 있다.

6) 김창협(金昌翕, 1653(효종 4)~1722(경종2))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자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수항(壽恒)이며, 어머니는 안정 나씨(安定羅氏)로 해주목사 성두(星斗)의 딸이다. 형은 영의정을 지낸 창집(昌集)과 예조판서·지돈녕부사 등을 지낸 창협(昌協)이다. 이단상(李端相)의 문인이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명으로 응시하여 1673년(현종 14) 진사시에 합격한 뒤 과장에 발을 끊었다. 백악(白岳) 기슭에 낙송루(洛誦樓)를 짓고 동지들과 글을 읽으며 산수를 즐겼다. 1681년(숙종 7) 김석주(金錫胄)의 천거로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자, 영평(永平: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에 은거하였다. 『장자』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를 좋아하고 시도(詩道)에 힘썼으며, 친상을 당한 뒤에는 불전(佛典)을 탐독하여 슬픔을 잊으려 하였다. 그 뒤 주자(朱子)의 글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어 유학(儒學)에 전념하였다. 1696년 서연관(書筵官)에 초선(抄選)되고, 1721년(경종 1)집의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영조가 세제(世弟)로 책봉되자 세제시강원(世弟侍講院)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다. 신임사화로 절도에 유배된 형 창집이 사사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그는 형 창협과 함께 성리학과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고, 이기설에서는 이황(李滉)의 주리설(主理說)과 이이(李

珥)의 주기설(主氣說)을 절충한 형 창협과 같은 경향을 띠었다. 즉, 선한 정(情)이 맑은 기(氣)에서 나온다고 말한 이이의 주장에 반대하고 선한 정이 오직 성선(性善)에서 나온다고 말한 형 창협의 주장에 찬동하였다. 또한 사단칠정(四端七情)에서는 이(理)를 좌우로 갈라 쌍관(雙關)으로 설명한 이황의 주장에 반대하고, 표리(表裏)로 나누어 일관(一關)으로 설명한 이이의 주장을 찬성하였다. 그는 『중용』의 미발(未發)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또한 인품(人品)을 6등으로 나누어 성인(聖人)·대현(大賢)·군자(君子)·선인(善人)·속인(俗人)·소인(小人)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삼연집』·『침양일기(瀋陽日記)』 등이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양근(楊根)의 미원서원(迷源書院), 덕원의 충곡사(忠谷祠), 울진의 신계사(新溪祠), 양구의 서암사(書巖祠), 강릉의 호해정영당(湖海亭影堂), 포천의 요산단(堯山壇), 한성의 독충당(篤忠堂)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삼연(三淵)은 아버지 수항이 철원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철원 삼부연 폭포를 좋아해 '삼연(三淵)'이란 호를 얻고 있으며 형 창협과 함께 정관재 이단상(李端相)의 문인이 되어 포천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포천 신읍동에 묘지를 남기고 있으며 포천에 요산영당이 있었으나 6.25병화(兵禍)로 실전되어 지금은 묘하(墓下)에 단(壇)을 조성하고 포천유림이 제향(祭享)을 받들고 있다.

7) 김창업(金昌業, 1658(효종 9)~1721(경종 1))

조선후기의 문인이자 화가.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대유(大有), 호는 가재(稼齋) 또는 노가재(老稼齋). 17세기에 활약한 노론의 정치가이며 유학자인 김수항(金壽恒)의 넷째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김창협(金昌協), 김창흠(金昌翕) 등 형들과 함께 학문을 익혔다. 특히 시에 뛰어나 후에 김만중(金萬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1681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한양의 동교송계(東郊松溪 : 지금의 성북구 장위동)에 은거하였다. 1689년에 기사사화가 일어나자 포천에 있는 영평산(永平山) 속에 들어가 숨어살다가 1694년 정국이 노론파에 유리하게 되자 다시 송계로 나왔다. 이 때 나라에서 내시교관(內侍敎官)이라는 벼슬자리를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응하지 않았고 스스로 노

가재라 부르며 세상일을 멀리하였다. 그리고 향리에 사창(社倉)을 설치하고 거문고와 시 짓기를 즐기면서 사냥으로 낙을 삼았다.

중국 산천을 보지 못한 것을 늘 아쉽게 여기다가 1712년 연행정사(燕行正使)인 김창집(金昌集)을 따라 북경(北京)에 다녀왔다. 이 때 보고 들은 것을 모아 노가재연행록(稼齋燕行錄)을 펴내었다. 이 책은 중국의 산천과 풍속, 문물제도와 이때 만난 중국의 유생, 도류(道流 : 도교를 믿고 그 도를 닦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여 역대 연행록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으로 손꼽힌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주가 있어 젊어서도 그림 그리기를 즐겼으므로 아버지로부터 그림에 마음을 빼앗겨 학업에 방해가 될까 걱정이니 손을 떼라는 충고를 받았다.

현존하는 그의 그림 『추강만박도(秋江晩泊圖)』(간송미술관 소장)나 그가 밑그림을 그린 제천 황강영당 구장의 「우암 송선생칠십사세진」 같은 작품으로 보아 그림 솜씨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그림에 대한 취향은 서자인 김윤겸(金允謙)에게 이어져 조선 후기에 유행한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8) 김창집(金昌緝, 1662(현종 3)~1713(숙종 39))

조선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명(敬明), 호는 포음(圃陰). 아버지는 영의정 수항(壽恒)이고, 어머니는 안정나씨(安定羅氏)로 해주목사 성두(星斗)의 딸이다.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태어났는데, 형 창집(昌集)·창협(昌協)·창흠(昌翕)·창업(昌業)과 함께 문장대가로 당시 육창(六昌)이라 불렸다.

조봉원(趙逢源)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82년(숙종 8) 20세로 『징회록(澄懷錄)』을 편집하였고, 1684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교관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아버지 수항이 사사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700년 아버지의 유문인 『문곡집(文谷集)』을 간행했다. 1710년 왕자사부(王子師傅)를 거쳐 예빈시 주부(禮賓寺 主簿)를 지냈다. 문장과 훈고(訓詁)에 능하고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제자로는 유척기(兪拓基) 등이 있고 저서로

는 『징회록』 1권과 『포음집』 6권이 있다.

9) 이서우(李瑞雨, 1633(인조11)~1709(숙종 3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우계(羽溪). 자는 윤보(潤甫), 호는 송곡(松谷). 이성헌(李成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길남(李吉男)이고, 아버지는 이경항(李慶恒)이며, 어머니는 이경유(李慶裕)의 딸이다. 당색으로는 대북계열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1651년(효종 2) 생원시를 거쳐 1660년(현종 1) 성균관유생으로 과제(課製)에 1등하여 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며, 그해의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675년(숙종 1) 문장에 재주가 있다 하여 허목(許穆)의 추천을 받았다. 같은해 정언이 되어 인조반정 이후 대북가문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청직(淸職)에 올랐다. 서인 송시열(宋時烈)의 예론과 그것을 따르는 김수항(金壽恒)을 공격하였으며, 7월에는 대신을 공격하는 이수경(李壽慶)을 두호하다 파직 당하였다. 1676년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남인으로 생활하다 1680년 경신환국 때 서인의 공격을 받아 유배당하였으나 1689년의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자 병조참의로 등용되었다. 그 뒤 김수항 등 서인을 공격하였으며, 인현왕후(仁顯王后) 축출 때 승지로 있으면서 숙종의 뜻을 받들었다. 1691년 함경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인삼에 대한 행정처리 잘못으로 삭직당하였다. 이듬해목내선(睦來善)에 의하여 문장으로 천거받아 예문관제학이 되었으며, 그 이듬해 황해도 관찰사로 나아갔다.

1694년 갑술환국이 일어나자 삭출 당하였다가 1697년에 풀려났다. 그 해 남인을 등용하는 정책을 펴던 최석정(崔錫鼎)에 의하여 청백함을 인정받아 서용(恕容)하라는 명령이 임금으로부터 내려졌으나 현직에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촌로공 상사(喪事)에 만사(輓詞)를 보내오니 일동면 기지리에 우계이씨 집성촌이 있는 바 이곳 출신으로 사료됨.

10) 구일(具鎰, 1620(광해군 12)~1695(숙종 21))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중경(重卿). 참찬 사맹(思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평(安)이고, 아버지는 판서 인기(仁堅)이며, 어머니는 부사과(副司果) 헌(憲)의 딸이다. 1642년(인조 20) 진사가 되고, 1644년 세마(洗馬)를 거쳐, 1646년 공신의 적장자(嫡長子)라는 이유로 품계가 올라 와서별제(瓦署別提)가 되었다.

1656년(효종 7) 금부도사가 되고, 1658년에 황성현감으로 나가 묵은 땅을 개간하는 등 치적이 있어 송덕비가 세워졌다. 1664년(현종 5) 남평현감을 거쳐, 1667년에 사재감첨정(司宰監僉正)이 되었다. 1668년 무과 별시에 급제해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훈련원부정을 역임하고 이듬 해 홍양영장(洪陽營將)이 되었다. 이 때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 왕의 특령으로 해직을 허락받았다. 1670년에 장단부사가 되고 얼마 뒤 황해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672년에 경기수군절도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그만두었다. 1674년 금군별장(禁軍別將)을 거쳐 1675년에 한성부우윤으로 승진되고 총관(摠管)이 포도대장을 겸하였다. 1678년(숙종 4)능평군(綾平君)으로 봉해지고, 이듬 해 당시 영의정 허적(許積)의 아들 견(堅)이 세력을 믿고 양가의 부녀를 겁간한 일이 있자, 그 죄를 다스리다가 오히려 무고(誣告)를 입어 김해에 유배되었다.

1680년 특별히 한성부판윤 겸 총융사(摠戎使)에 임명되고, 1688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삭직당해 송추에서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지훈련원사(知訓練院事) 등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촌로공과 가까운 지우로 생각된다. 일동면에 능성구씨 집성촌이 있는 바, 이곳 출신으로 추정된다.

11) 수성(隨城) 최숙우(崔叔雨)

수성최씨 성(姓)을 갖고 있는 명(名)이 숙우로 만사를 보냄 미상(未詳)

「공의 아들과 계의(契誼)가 있어 높은 뜻을 알았고
 실로 장자의 기풍을 오래도록 감복하였다.
 젊었을 때 문장이 뛰어나 대수(大手)로 일컬었고
 늙어서는 명성이 울려 임금에게 들리었네
 달빛이 문채나는 뜰에 잠기어 시혼이 끊기고
 덕의가 문내에 흡족하여 복록이 드높도다.
 백운산으로 머리를 돌려 장례에 참석치 못했는데
 산에 가득한 꽃비는 근심을 뛰었도다」

12) 완산(完山) 이반근(李盤根)

완산李씨 성을 갖고 盤根이란 명을 갖은 이가 만사를 보냄(미상)

「수명과 부귀와 강녕과 덕을 좋아하는 資品으로
 공과 같은 복은 실로 세상에 드물도다
 백년의 화려한 배필은 먼저 돌아가셨으나
 사자가 과거에 급제하여 비단옷을 입었도다.
 성균관의 높은 명성은 늙으막에 즐거웠고
 寢郎의 높은 은총은 영화가 넘쳤도다
 서하의 남은 슬픔을 어찌 말하겠나.
 저승에 계신 영혼은 정히 의지할 바 있으리라」

13) 완산(完山) 이제하(李濟夏)

완산 이씨 성을 갖고 명이 제하란 분이 만사를 보내옴(미상)

「슬프다 이분이 병으로 칠십에 저승에 가셨도다
 당당한 큰 기백과 절의요 뛰어난 풍채와 위엄이었다
 학문은 남은 일이었고 어젊은 누구를 이에 비하겠는가
 침량은 은총이 두터움이요 진사급제로 성명이 빛났도다
 아들 셋이서 顯達하였으니 근심없기로 일대에 드드리라
 두 아들의 병을 어찌 말하겠나 세 의원을 맞았도다
 내가 지난 가을에 찾아갔더니 그대가 맞으면서 눈물을 뿌리었네
 떠난는 정이 행로에 애석하고 이별하던 말이 어슴프레 기억되네
 누가 뜻했으랴 이렇게 돌아갈 줄을 도로에 산뿔추만 말랐도다
 인생이 어찌 이다지 허무한가 大命은 어기어 어려움을 알겠도다
 이로부터 친척으로 돈목했는데 멀리 생각하니 낚시터만 비었도다
 거문고와 책으로 백년을 기약했는데 죽고 삶이 일제에 그르쳤도다
 흰 장막에 슬픈 바람이 거치고 붉은 명정에 찬비만 뿌리누나
 무덤에 곡전을 드리지 못하고 머리르 돌리니 눈물만 옷을 적시네

14) 안동(安東) 김시량(金時亮)

안동김씨로 명이 시량이란 분이 만사를 보내옴(미상) 만사 揭載 略함

15) 창원(昌原) 유신일(兪信一)

창원 유씨로 명이 신일이란 분이 만사를 보내옴(未詳) 만사 揭載 略함

16) 洪公 治允, 李公 壽最, 鄭公 載道, 李公 光朝, 韓公 明遇,

李公 翊文, 金公 斗南, 兪公 宗源, 李公 近源

위에 약기(略記)한 인물(人物)들은 촌로선생 졸(卒)후 만사(輓詞)를 보내왔거나, 그후 村老선생과 제(弟)되는 김성옥(金聲玉-進士, 贈大司憲) 양현(兩

賢)을 향선생(鄉先生)으로 연곡(鰲谷)에 사당(祠堂)을 지어 고을에서 향사(享祀)를 지내고자 애쓰셨던 분들이다.

17) 重菴 김평묵(金平默, 1819(순조 19)~1888(고종 25))

조선의 학자. 자는 치장(稚章), 호는 중암(重庵). 본관은 청풍(淸風). 이항로(李恒老)의 문인. 영평(永平) 출생으로 감역(監役)에 임명(任命)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1881년(고종 18) 이만손(李晩孫)을 비롯한 만여 명의 영남 유생들의 척사위정(斥邪衛正) 운동을 후원했다. 그해 7월에 다시 초안해 올린 척양척왜(斥洋斥倭)의 소(疏)로 말미암아 섬에 유배, 이듬해 임오군란으로 홍선 대원군이 집권하자 풀려났다. 이항로의 학문을 계승했으며, 1874년(고종 11) 스승의 화서아언(華西雅言)을 편집 간행했다. 제학(提學)에 추증(追贈)되었다.

중암(重菴) 선생은 향학자(鄉學者)인 村老 金聲大, 有心齋 李和甫 선생을 향현(鄉賢)으로 지역 선비들이 제사(祭祀)를 지내야 된다고 후학들에게 강조하심

18) 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순조 33)~1906(광무 10))

구한말의 문신·학자·의병장.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庵). 본관은 경주. 경기도 포천 출신.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고제(高弟). 조선 말기 유림의 거두로서 문도(門徒) 수천 명을 거느렸다. 55년(철종 6) 문과에 급제, 성균관 전적·사간원 정언 등을 역임하고, 68년(고종 5) 장령(掌令)이 되어,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當百錢) 발행에 따른 재정의 파탄 등을 들어 홍선대원군의 실정을 상소,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했다. 73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기용되자 민비일파 등과 연결, 서원철폐 등 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고, 공조참판으로 승진된 후에는 다시 대원군의 실정을 날날이 들고 왕의 친정(親政)과 대원군의 하야를 주장, 대원군을 실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군부(君父)를 논박했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귀양갔다가 75년 풀려나온 후, 이듬해 일본과의 통상이 논의되는 것을 보자 5개조로 된 격렬한 <척사소(斥邪疏)>를 올려 다시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98년 궁내부 특진관이 되고,

뒤에 중추원 의관(議官)·경기도 관찰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 향리에서 후진교육에 힘썼다.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하자 일본으로부터의 차관금지 등을 상소하고 친일매국도배들을 처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다 두 차례나 일본헌병들에 의해 향리로 압송당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8도 사민(士民)에게 포고문을 내어 항일투쟁을 호소하고, 남세거부·철도이용 안하기·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전개를 촉구했다. 이듬해 6월 제자 임병찬·임낙 등 80여 명과 함께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모집, 일본의 배신 16조를 따지는 <의거소략(義舉疎略)>을 배포한 후, 순창에서 약 4백 명의 의병을 이끌고 관군·일본군과 싸웠으나 패전, 체포되어 쓰시마(對馬島)에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임병찬의 권고도 듣지 않고, 「내 늙은 몸으로 어이 원수의 밥을 먹고 더 살겠느냐. 너희나 살아 돌아가 나라를 구하라」 하고 단식을 계속하다가 유소(遺疏)를 구술, 임병찬에게 초하여 올리게 한 후 굶어 죽었다. 그의 시체가 본국에 송환될 때 수많은 동포가 부산포구에 나와 통곡하며 맞았다. 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저서에 <면암집(勉庵集)>이 있다.

면암 선생은 바쁜 관리생활 중에도 고향의 유림사업에 참여하여 촌로 김성대 선생과 유심재 이화보 선생을 옥병서원 유허지에 단을 쌓을 때 삼선생(박순, 이의건, 김수항)에게 고하는 고유제에 초헌관으로 봉무하고 있다.

19) 龍西 유기일(柳基一, 1845(헌종 11)~1904)

조선 말기의 학자, 위정척사운동가, 字는 성존(聖存), 호는 용계(龍溪) 또는 용서(龍西), 본관은 문화(文化), 포천 출신. 아버지는 동지돈녕부사 문녕군(文寧君)병철(秉喆)이다.

일찍이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68년 이항로 사후에는 그 적전(嫡傳)을 계승한 김평묵을 사사함으로써 이 양인의 학문과 사상에 깊이 경도되었다. 또한 동문 선배로 동향이던 최익현(崔益鉉), 춘천의 동문 홍재구(洪在龜) 등과 일생토록 두터운 교분을 가지고 있었다. 1876년 개항 문제를 두고 조야에서 논의가 격렬하게 일어날 때, 홍재구·유인석(柳麟錫)·윤정구(尹貞求)

등 화서학과 48인과 함께 개항 반대상소인 「경기강원양도유생논양왜정적임청절화소(京畿江原兩道儒生論洋倭情迹仍請絶和疏)」를 올리는 등 화서학과 위정척사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였다.

그 뒤 점차 일제 침략으로 인해 시국이 혼탁해지자 향리의 향적산(香積山) 아래에 은거하였다. 여기서 『척양록(斥洋錄)』을 짓는 등의 저술활동과 도학강명을 통한 문인 양성에 일생토록 진력하였다.

그의 사상과 학문은 화서학과와 특징인 춘추대의적 의리와 명분 정신에 입각한 위정척사, 존화양이(尊華攘夷)에 철저하게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결과 주희(朱熹)·송시열(宋時烈)·이항로 등을 특히 존송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제 침략이 가속화되는 시국상황에서는 유인석·이소응(李昭應) 등 유종교 계열의 화서학과 인물들이 적극적인 항일투쟁의 전면에 투신했던 경향과는 처신의 방편을 달리하였다. 그리하여 홍재구(洪在龜) 등과 함께 '자정수의'(自靖守義)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평묵 계열의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학문과 행적은 사상사 혹은 독립운동사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의 문집은 간행되지 않은 채 총 114권의 방대한 수고본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그 대부분이 산일(散逸)되고, 그 가운데 일부를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불분권(不分卷)의 문집 18책과 2책의 『능언(能言)』 등 총 20책의 미간행 수고본 문집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하성문고(霞城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용서 선생은 화서학과 학자들 중에서도 문재(文才)가 빛나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 영평을 소중화(小中華)의 명분을 잇는 유주(儒州)로 하여 자기의 호(號)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일치단(一治壇)을 조성하여 소중화(小中華)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촌로(村老) 선생의 졸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안산김씨 村老公 문중(門中)의 도움을 받아 촌로공의 행장(行狀)을 자상(仔詳)하게 정리하여 귀중한 문화재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한편으로 촌로공과 도촌공 형제의 사당(祠堂)

을 건립하여 향현(鄉賢)의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는 중암 사부의 뜻을 잇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남기고 있으며, 옥병서원 원허지를 설단하는 실무를 맡아 ‘삼선생고유제문(三先生告由祭文)’ ‘봉단후 당위각고문(封壇後當位各告文)’ 매세사채중향축문식(每歲舍菜從享祝文式)을 짓고 있으며 당일 제향에 장의를 맡아 70여명의 예원록(禮員錄)을 작성하고 있다.

2. 촌로(村老)공의 형제(兄弟)와 후손(後孫)들

1) 金聲發 (1624 인조2년~1676 숙종2년) 字 正而 號 反省齋로
氣宇眞純하시고 資性蘊重하심 父母喪을 당하여 혼절해 가며 애도하였으며 심상(心喪) 3년을 여막(廬幕)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묘(侍墓)함
촌로공의 바로 아래 弟 墓碣 通政大夫 行 永平郡守 李濟元 撰

2) 金聲玉 (1644 인조22년~1699 숙종25년) 字 集卿 號 東丘
1674년 숙종 갑인에 이세필공과 더불어 2차禮訟에서 敗해 尤庵 宋時烈이 削職당하자 원통함을 상소함. 1691년 숙종 신미에 司馬試 卒후 贈 持平, 推恩 贈大司憲 촌로공의 二弟

3) 金錫命 (1642 인조20년~1717 숙종43년) 村老公 長子
南行 宣傳官. 顯宗 庚戌 1670 武科 忠淸兵使 止副總管

4) 金錫範 (1647 인조25년~1698 숙종24년) 村老公 次子
1676년 병진 武科 病不仕 折衝將軍 二子推恩 戶曹參判 1751英祖 辛未 又以子 陞資憲階 贈 兵曹判書 領議政 俞拓基 撰 墓碣

5) 金錫圭 (1653 효종4년~1678 숙종17년) 촌로공 3子
1676년 숙종15년 武科及第 26세 早卒 字汝玄

- 6) 金錫達 (1661 현종2년~1743 영조19년) 촌로공 4子 初諱 錫龜 字聖寶
號 敬齋 從事詩禮精通墨妙 以子從勳 贈工曹參判
- 7) 金錫保 (1664 현종5년~1741 영조17) 字 汝極 號 竹軒 村老公 5子
1693년 武科 宣傳官 1697년 重試하여 屢典州牧하고 威有實蹟하다
1727년 영조 5년에 陞慶尙左道兵事 公은 氣節忡慨하고 聲調高厲하시다.
제3자 相壁任所인 三和防禦使에서 卒
- 8) 金相斗(1674 현종15~1749 영조25년) 자 仰 21世 석범의 장자
1711년 숙종37 무과급제 증승정대부 판돈녕부사검지의금부사 오위도
총부도총관
- 9) 金相鼎(1691숙종17~1728년 영조4년 졸 자 和仲 21세 석달의 자
무과급제 증 병조참판
- 10) 金養浩(1695 ~1768년 졸) 자 浩然 22세 상두의 장자
1718년 무과급제 嘉善階 水使 증병조참판
- 11) 金養心(1725 영조원년~1777 정조1 졸) 자 敬以 22세 상성의 차자
1748년 文科, 承政院左承旨 大司諫
- 12) 金處한(1744 영조20년~ 1822년 졸) 자 秀章 23세 양호의 차자
1773년 南行宣傳官 全羅右道水軍節度使
- 13) 金鎔采(1932. 1. 5일생) 號 蓮谷 31世
大韓民國政務長官, 建設交通部長官, 五選 國會議員, 國會建設委員長
韓國土地公社社長, 大韓跆拳道協會長(公認8段), 書藝家(韓國元老書藝家
協會 顧問)

* 村老公 後孫들은 祖上님들의 高潔한 傳統과 人性을 받아 崇祖和睦하면서 名門望族으로 살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선조 後期에 많은 人物들이 輩出되었으며, 특히 武科에 많이 及第하여 通政階까지 進出한 人士들이 많았음을 添言하며 위에 列舉한 人物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었으나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現代 人物로 高齡임에도 不拘하고 本稿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金鎔采 前 長官님께 紙面을 빌어 感謝의 말씀드린다.

VII. 結 語

村老 金聲大公은 서문(序文)에서 밝혔듯이 조선조엔 국조(國朝)의 인물이 되려면 학문(學文)과 덕행(德行)을 수련(修練)하여 과거를(司馬試, 文科)거쳐 관리(官吏)로 임용된 후 벼슬에 나아가 승임(陞任)에 따라 나라에 공헌(貢獻)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慣行)이었다.

경우에 따라 과거(科擧)를 거치지 않고 유일(遺逸-地方官이나 名士의 推薦)이나 음사(蔭仕-祖上の 蔭德)로 사환(仕宦)의 길에 나가기도 하였지만 그 수가 과거(科擧)를 통하여 등용(登用)된 인원에 비하면 소수(少數)였다.

학자(學者)의 경우 과시(科試)에 나가지 않고 학문(學問)에 전력하여 성리학(性理學)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우거나 훌륭한 제자(弟子)들을 양성하고 전문성이 있는 문집(文集)을 남겼을 경우, 제자(弟子)나 후손들이 올리는 시장(諡狀)에 의하여 시호(諡號)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성대 선생은 학문의 길에 전념(專念)하였거나, 학문의 길로 나아가 평생을 공헌(貢獻)한 것도 아니며 향당(鄉黨)에서 산수(山水)를 벗삼아 생활하면서도 덕행(德行)이 뛰어나고 효성(孝誠)이 지극하며, 일가 권속(眷屬)들을 군자(君子)답게 이끌며 지극한 인덕(仁德)을 베풀어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른 이른바 향선생(鄉先生)이다.

영평(永平)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사환(仕宦)의 길에 나가 공(功)을 이룬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예우(禮遇)로 공부자(孔夫子)의 진실한 인덕(仁德)을 이룬 군자(君子)가 되었기 사림(士林)의 주도(主導)로 사당(祠堂)을 지어 지역 유림들이 한결같이 향사(享祀)를 모시게 된 바, 이같은 사례(事例)는 매우 드문 일로 선생(先生)을 연구하고 조선조 중기의 향약(鄉約)을 연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포천은 조선조 후기에 선비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반향(班鄉)의 고장이다. 또한 영평지역은 옥병서원을 중심으로 당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생을 보낸 많은 인물들이 향현(鄉賢)으로 활동하고 있어 절의사상(節義思想)과 예도사상(禮道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선비정신이 충일(充溢)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연곡사(鰲谷祠-후에 洞陰祠)가 창건(創建)될 수 있었고, 문중(門中)에서도 촌로선생에 대한 숭조효친사상(崇祖孝親思想)이 깊어 사당의 건립이나 운영에 많은 지원(支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지금도 이같은 선비사상들을 포천유림(抱川儒林)이 지켜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持續)될 것이라 생각하며 논고(論考)를 맺는다.

참 고 문 헌

1. 安山金氏 族譜(1989. 4. 간행)
2. 抱川郡誌
3. 抱川의 祠, 壇, 旌閭(1997. 10. 20 포천문화원간행 홍순석교수 편집)
4. 抱川의 書院(1994. 12. 23 포천문화원간행 홍순석교수 편집)
5.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한국학 중앙학연구소)
6. 韓國鄉土文化 電子大典 抱川市編(한국학 중앙연구소)
7. 典故大方(1982. 11.20發行 明文堂 著者 姜敦錫)
8. 韓國史 新論(1967. 3.20 一潮閣 초판발행 李基白纂)

이종훈 전교 약력

-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옥병출신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기획행정전공
-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유림지도자 과정수료
- 동국대학교 강사(북한학 및 교련)
- 일양약품공업주식회사 총무, 인사과장
- 옥병서원 상임이사 및 원장
-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향토사연구위원, 이사 역임
- 포천군지 편찬위원
- 故 香隱 柳鳳鉉 先生 師事
- 한자지도사 (사)한국어문회
- 포천의 역사와 문화 편저
-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발표
2010년 ‘백사 이항복의 생애와 업적’
2011년 ‘옥병서원 연혁과 主 配享人物’
-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도 유교문화활성화를 위한 학술발표회에서
〈경기도 지역의 향교, 서원의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발표
- ‘영평팔경가’ 책자 편저(2012.4 영평팔경소리보존회 간)
- 포천의 전통문화지 〈馬忽의 얼〉 발행인
- 성균관유도회 포천지부 회장
- 포천향교 전교(경기도전교협의회장)
- 포천명륜대학 학장
- 성균관 부관장

여 백

포천의 의병 군번없는 영웅
“호국성(護國星)독수리유격대”

前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
김 창 주

여 백

p.112-114



< 호국성 독수리유격대 전적비 >



< 故 최종성(崔鍾聲) 독수리유격대장 묘지 >



< 373고지 전적비 >



<5인의 생존 독수리유격대원>

포천의 의병 군번없는 영웅 “호국성(護國星)독수리유격대”

김 창 주 (前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

目 次

- I. 머리말
- II. 포천의 광복과 ‘38선’
- III. 안보 1번지 포천의 전투
- IV. 유엔군의 참전과 중공군의 개입
- V. 호국성(護國星), 독수리유격대
 - 1. 독수리유격대의 특징
 - 2. 독수리유격대의 모집
 - 3. 독수리유격대의 편성
- VI. 포천을 사랑하는 반공투사 최종성과 형제들
 - 1. 충주최씨 연원
 - 2. 최승의 입향과 경위가 주는 교훈
 - 3. 최종성의 3인, 구국의 참전기
- VII. 독수리유격대 참전사
 - 1. 첫 희생자
 - 2. 후퇴이동
 - 3. 부대이동과 억울한 즉결처분
 - 4. 추방과 복귀
 - 5. 공비토벌전과 두 번째 희생자
 - 6. 북진 : 천불산지구전투, 373고지와 734고지전
- VIII. 위대한 자손들의 뒷이야기

I. 머리말

독수리유격대는 6·25전쟁 당시의 3대 민간저항부대로 인정받아 1990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를 방문하였다. 동년 3월13일 전사실장을 포함한 연구위원들이 생존 유격대원과 당시 관계장교를 대상으로 포천지역 청년들의 자생적인 독수리유격대원들의 참전활동과 경과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6·25전쟁 당시 민간저항사 연구자료로 “독수리유격대 자료집”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전사편찬위원회”가 현재의 “전사편찬연구소”로 개편되면서 『독수리유격대자료집』만 정보자료실에 복사자료로 1부 남아있을 뿐이다.

현재로서는 필자의 국방FM(96.7MHZ) “김창주의 전적비순례 800”의 99회차(2010.9.18) 독수리유격대 전적비와 106회차(2010.10.15) 373고지 전적비 방송에 생존자와 유가족의 증언이 유일한 육성자료이다. 영원한 척후병으로 산화하신 후 하늘의 별과 땅에 흩어 돼 전쟁의 폐허 포천을 오늘의 포천으로 만들어 주신 거룩한 전사들에게 단행본으로 지어 바친 것이 “호국성 독수리유격대”¹⁾이다.

II. 포천의 광복과 ‘38선’

1. 포천의 연혁

포천시(抱川市)는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지금의 포천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때 포천은 포천현이었다. 1895년 포천이 군으로 승격하였다. 1945년 8월 15일 미군정의 관할에 두었다.

1) 2012년에 초판이 발간되었으며, 2016년에 2쇄가 출판되었다.



그림 1. 포천군

단 영평천 이북(以北)의 이동면 일부, 창수면 일부, 청산면 일부, 영중면 일부, 영북면은 소련군정의 관할에 두었다. 1946년 12월 소련군정은 포천군을 모두 철원군에 편입하여 북측에서는 포천군이 폐지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6·25전쟁으로, 1945년 해방 당시 구역(郡域) 모두를 수복하였고(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 일원을 관할로 하여 도농복합형태의 포천시로 승격되었다.

2.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이야기²⁾

이런 포천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 왕(천황)의 12시 대(對)연합군 항복 방송 라디오 소리로 감격의 순간은 시작되었다. 내 고향 포천의 장거리에서는 농악대의 농악 소리가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읍내 간이학교(2년제 초급학교) 교장이시던 문상규님이 포천 치안대장이 되시어 경찰서를 지키셨으며, 얼마 후 경찰서 유도 연습장에는 미군들이 진주하여 치안을 도왔다. (현)천주 교회 밑에 있던 일본 신사(神社)는 불타서 그 불꽃이 하늘을 가렸다.

일본 소학교 아이들과 면사무소 앞에 살던 일본인들 그리고 신읍국민학교 교장 쓰다리아찌 선생과 일제 공무원들은 마차에 짐을 싣고 남쪽으로 갔으며 일본 청년 훈련소 교관이었던 다카하라는 청년들에게 물매를 맞고 골병들어 죽었다.

당시는 모두 애국자였으며 모두가 독립 운동가였다. 「단결하자」는 구호가

2) 2004년 8월 12일자 포천신문 재인용

여기저기 붙어있었던 때였다. 나는 다른 날은 몰라도 8·15 광복절만은 꼭 국기를 게양하고 내 고향 포천의 기뻐던 8·15를 생각한다.』

3. 한반도의 분할과 포천의 분할

'38선'이 분계선³⁾으로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1945년 8월 10일 미국은 일본군 측의 항복결정과 소련군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하고 한반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양대 극비'전보를 도청했다. 미국과 소련이 각각 어떻게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군정실시를 위한 결정이 눈앞에 임박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태평양과 극동지역에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그날 밤 펜타곤(Pentagon)에서 긴급회의를 소집, 한반도에서의 일본군 항복수락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두 명의 장교(Dean Rusk 와 Charles Bonesteel 대령)가 제시한 '38선'을 분계선으로 하자는 방안이 미국, 러시아, 영국 삼국(三國)의 동의를 받았다. 9월 2일 미소 양국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북위 38선을 분계선으로 각각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한반도에서 군정실시를 발표해 남북한이 분열되었다.⁴⁾

1945년 9월 어느 날 포천에도 선이 하나 그어졌다. 그것이 '38선'이라는 걸 마을 사람들은 까맣게 몰랐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기쁨에 젖어 그런 것이 눈에 들어 올 리 없었다. 그러나 그 선 북쪽에 소련군이, 남쪽에 미군이 보초를 서자 그제 서야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마을 주민들은 38선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로 갈렸다. 그로부터 마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3) '38선'은 북위 38도 선을 말한다. 1896년 이후 일본과 러시아가 여러 차례 이 선을 이용해 한반도를 분할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1910년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고, 1945년 2월 일본이 한반도에 배치한 일본군을 '38선'을 경계로 북부는 관동군이 지휘하고 남부는 대본영(大本營)이 관할했다. 당시 일본의 조선총독부는 38도선 이남에 있었다.

4) 남북한 '38선'의 유래(환구시보, 12. 27. 徐 康)



그림 2. 철원공산당사

38선 이북 마을에는 생전 처음 본 노동당 사무실이 들어서고 갑자기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친일분자 색출에 나섰고 마을을 온통 공포로 몰아넣었다. 전쟁 때 까지 북한지하에서 북한인민학교 교사생활을 했던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 박홍진 고문(88)의 증언이다. “당시 인민학교 교육의 핵심은 소년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사상교육이었습니다. 일반인도 1주일에 한 번씩 공회당에 모여서 공산주의 학습회를 반복했습니다. 그 후 북한의 6·25기습남침의 결과 휴전선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Ⅲ. 안보1번지 포천의 전투



그림 3. 경기 포천 만세교 부근에 남아있는 6·25전쟁 당시 국군7사단의 전방방커 중 유일하게 남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현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45

당시주소 :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

『6·25전쟁사 2권에 의하면 1950년 전쟁직전 국군이 포천 신북면 기지리에 북한군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 대전차호 콘크리트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전쟁초기 국군이 이 진지에서 북한군 탱크를 저지하다가 전차포로부터 사격을 받아 물러나게 된 내용이 확인 된다. 훼손/포천방커는 전쟁당시의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사진: 박홍진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 고문 촬영>>

포천전투는 1950년 6월 25일 ~ 6월 26일에 일어났다. 신북면 기지리에 남아있는 대전차방커를 준비하고 있었을 만큼 적의 남침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지만, 국론의 심한 분열 가운데 적이 T-34(76.2밀리주포)형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하자 포천전선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림 4. 서울 점령했던 북한군 전차부대는 포천을 경유했다.

북한은 개전 당일 출동시킨 T-34 전차 120대 중 80대를 포천 정면으로 집중시켰다. 북한은 핵심 무기인 전차를 포천에 ‘올인’해서 의정부를 거쳐 바로 서울을 점령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포천이야 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제1번지이다. 이처럼 전쟁의 큰 흐름은 육군본부의 예측대로 진행됐지만 이같은 정보 판단과 작전 계획의 성공은 실

제 방어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포천·의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예상했으면서도 막상 이곳의 방어를 담당하는 국군 제7사단의 전력을 사전에 강화하기는커녕 병력을 줄였다.⁵⁾

5) 김창주(2016), 『호국성 독수리유격대』, 서울: 보림

7사단 9연대 연대장 윤춘근 중령이 북한의 기습남침을 첫 보고를 받은 것은 1950년 6월 25일 04시 30분이었는데 그는 대대장의 유선보고를 받는 순간 근래에 야기 된 일련의 사건이 연상되어 이것이 곧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실을 사단에 보고하는 한편 연대비상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금오리에 대기 중인 제 1, 3 양 대대로 하여금 『천계산(424고지)-가랑산(350고지)간의 주진지를 점령하여 기존 방침에 따라 적을 조기, 격멸토록 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제2대대장 전순기 소령에게 현 위치에서 최대한의 지연전을 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양 대대가 출동태세를 갖추는 동안에, 허현 대위가 지휘하는 57mm 대전차포 중대로 하여금 만세교로 직행하여 전차대의 예봉을 격쇄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2.36인치 로켓포 12문을 모아 역시 만세교 부근의 요선을 지키도록 후속, 급파하였다. 4시간 동안을 홀로 고군분투한 제 2대대는 일선 분산병력의 수습에 힘쓰며 만세교 북쪽을 연하는 선의 진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08:00를 전후하여 다시 침습하기 시작한 북한군이 도로를 따라 밀고 내려왔다.



그림 5. 국군의 57밀리 대전차포

바로 이때에 연대에서 급파한 대전차포 중대(-)가 만세교에 도착했다. 이리하여 진전(陣前) 50m까지 적을 유인한 중대(-)는 선두차를 명중시키고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으나 그것은 일순간뿐이었다. 파괴된 줄 알았던 전차는 오히려 진지에 포격을 연발하며 계속 아군의 진지로 육박해왔다. 이에 좌측포가 다시 대전차

포 수발을 더 명중시켰으나 아랑곳없이 목전에 당도하니, 겁난 병사들이 조준 정만을 빼어들고 신평리(포천 북쪽 5km)쪽으로 급히 철수해야만 했다.

국군 방어병력은 일부가 계속하여 포천방어병커에서 북한군 탱크를 저지하려 사격을 개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북한군은 국군의 저지선을 돌파한 후 계속 남진하였다. 아군 경계부대인 국군 제9연대 2 대대는 만세교 북쪽 진지가 돌파된 후 퇴로가 차단되어 조직적인 철수를 하지 못하고 각개 분산된 채 남으로 이동하였고,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포천도 너무 빨리 점령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포천시민 역시 피난을 떠날 시간조차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이제부터는 포천시민들도 공산당과 북한군의 치하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신생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백척간두의 형상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을 북침 운운하는 지식인들을 보면 포천사람들은 피가 끓는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 포천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북한이 어떻게 남침 했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전쟁 때 까지 북한치하에서 북한인민학교 교사생활을 했던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 박홍진 고문(88)의 증언이다. “북한은 남침 전에 38선 횡단 전술도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매바위 일대에는 탄약고를 건설했고, 여우고개 광덕산고개는 1948년에 철원주민들이 쌀을 한말 씩 지고 와서 남포를 넣고(TNT로 폭파하고) 곡괭이로 도로를 건설했고, 멀리는 황해도 주민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IV. 유엔(국제연합)의 참전과 중공군의 개입

1. 유엔군의 참전⁶⁾

가. 참전의 배경

6·25전쟁에서 유엔군의 핵심 축을 담당한 미국은 파병 규모면에서도 단연 제일이었다. 미국의 병력규모와 무장정도, 병참지원 능력으로 인해 유엔군의 작전은 대부분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림 6.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호주기

미국을 제외한 유엔회원국 중 유엔 결의에 따라 제일 먼저 군사지원을 약속한 나라는 영연방 국가들이었다. 영국은 해군 기동부대의 파견을 통보해 왔고, 29일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해군과 공군의 파견의사를 밝히면서 참전했다. 남침초기 일명 호주기(濠洲機)들이 신속하게 출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일본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려 했던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전투기는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미티아’제트전투기였다.⁷⁾ 이들의 출격은 누란의 위기에 봉착했던 신생대한민국에게 희망이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구축함 지원을 약속했고, 중화민국(대만)의 파견 제의는 대륙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 국공대리전쟁 양상문제, 중화민국(대만)의 전투력 약화 등을 이유로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 결과 6·25 전쟁 참전은 의료지원 5개국을 포함한 21개국이고, 지원국은 63개국이다.⁸⁾

6) <http://www.koreanwar60.go.kr/20/2001000000.asp>

7) <http://cafe423.daum.net>

미국의 인접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캐나다는 초기부터 북한 남침의 배후에는 소련의 팽창욕구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엔의 공동노력으로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해 두고자 참전을 결정했다.

터키와 그리스는 다다넬스 해협과 발칸반도에서 소련과 그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호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두 나라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유엔의 집단행동에 동참함으로써 강한 결속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했고, 훗날 자신들의 나라에 좀 더 많은 미국의 군사원조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중국의 공산화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점증하는 공산주의 팽창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은 미래에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 팽창을 막는 유력한 예방책이라고 판단했다.

필리핀과 태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호주와 뉴질랜드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인도차이나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의 공산세력이 팽창하고,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 활동이 급증하는 것이 이들 나라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는 유엔의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참전했다. 참전한 유엔 회원국들은 대부분 그들 국가 주변에서 점증하는 공산주의 위협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한국 침략의 미래에 있을지

8) 한국전 지원국 63개국으로 재정립 '6.25 전쟁 지원국 현황 연구' 포럼자료 참고

모를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이나 전복활동의 한 시발점으로 보았다.

나. 참전의 의미

유엔의 지원결의에 따라 유엔21개국은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엔기를 앞세우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들은 미군의 작전통제 하에 낙동강과 압록강을 오르내리면서 전쟁을 주도했으며 이들의 참전활동이 20세기 공산권을 몰락케 할 수 있었다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6·25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유엔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사상 최초의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원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됐고 신생 대한민국에는 하늘이 준 축복으로 작용했다.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는 참전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전쟁 중 물자지원 32개국, 전후 복구지원 7개국 등 총 60개국에 달한다는 최종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전 세계 독립국가 93개의 국가 중에서 중 63%가 지원했던 것이다.⁹⁾

이들의 참전의의는 회원국들의 파견한 병력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평화의 파괴자”에 맞서 국제기구의 집단적 행동으로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세계대전의 포성이 멎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와 자유의 위협에 대해 세계는 “유엔헌장에 입각해 이를 집단행동으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것이다.

9)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한 나라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차원에서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며 “당시 세계 독립국 93개 중 63%가 대한민국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일보 2011.10.14.)

한편 한국은 전쟁으로 국민들의 생활터전과 사회체제, 경제기반이 무너졌으나 유엔의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각국 전몰장병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이들이 남긴 수많은 전공과 그 속에 숨은 교훈은 우리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이며, 이들이 병력을 철수하면서 한반도에서 제2의 6·25도발이 생긴다면 다시 참전할 것을 다짐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 제국으로 하여금 이 약속을 준수토록 하기위해서 우리는 국력의 허용 범위 안에서 세계평화유지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2. 인천상륙작전과 독수리유격대

가. 인천상륙작전



그림 7.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방어선에서 반격작전 그리고 서울탈환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말까지 38선 남쪽의 북한군을 격멸하고 사실상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다. 그 과정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으로 접근함에 따라 38선 돌파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38선 돌파문제는 1950년 8월 30일 애치슨 미 국무부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며, 그때부터 북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났다. 38선 돌파 논쟁의 핵심은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허용해 패주하는 북한군을 격멸하게 할 것인가?”, 또한 “북한군의 격멸 후 통일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통일이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그는 전문을 통해 이번

기회에 침략자를 격멸해 통일을 달성해야 하며, 한국 국민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그의 신념을 피력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문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부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한국군은 진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국군이 38선에서 정지하고 있을 때,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에게 38선을 돌파해 북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렇지만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상태이므로, 군 지휘체제상의 혼선이 야기되는 사태를 방지해야겠다는 것이 정 총장의 복안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워커 장군에게 동해안 전선의 국군이 전술적인 상황 하에서 38선 바로 북쪽의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 동의를 얻었다. 그 결과 국군의 선두부대가 10월 1일, 최초로 38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북진계획을 미 합참에 제출했다. 그리고 9월 29일,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며 10월 2일, ‘작전명령 제2호’로 유엔군에 하달했다.

북진작전 명령의 골격은 미 제8군을 주공, 미 제10군단을 조공으로 북진하며, 정주-군우리-영원-함흥-홍남을 잇는 전선(일명 맥아더 라인)까지 진출한 후 그 선 이북지역에 대한 작전은 한국군이 전담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북진작전 명령의 특징은 유엔군의 작전지역을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동서로 양분하고, 동부지역에 투입될 미 제10군단을 미 제8군에 배속하지 않고 유엔군사령부가 직접 통제해 원산으로 상륙케 한다는 것이었다. 1950년 10월 1일 정오, 맥아더 원수는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성명을 방송했다. 그러나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 10월 9일, 맥아더 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안에 근거해 다시 북한의 항복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두 번 째의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 같은 사태를 예상하고 있던 맥아더 원수는 북진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10월 9일, 전면적인 북진작

전이 시작됐다. 그 같은 38선 돌파와 북진은 국군과 유엔군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의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나. 포천의 의병 ‘독수리유격대’

평양을 탈환하고 해산진·초산까지 진격해 조국통일의 목전에 두고 있던 국군의 뒤에는 낙동강전선에 패하고 북한으로 복귀하지 못한 북한공산군 패잔병과 지방 빨치산들이 북쪽으로 계속 도주하고 있었다. 이들이 모여서 일부 수복지역을 위협했다. 포천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동면 등 본래 38선 이북지역이었던 이 지역 가운데 도평리 백운동일대와 약사골 등에는 공산군 패잔병들과 월북하지 못한 철원지방 공산당원들이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었다. 이 때 수도 서울 수복과 함께 포천이 수복되자 돌아온 반공청년이 쫓기해 이들을 토벌했다. 이들은 포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었으며, 내 고향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애향심(愛鄉心)과 반공이념으로 무장 쫓기한 포천 의병(義兵)의 시작이었다.

의병(義兵)은 주로 한국사에서 정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병을 뜻하는 말이지만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중국 병서(兵書)의 오자(吳子)의 도국편(圖國編)에서는 군대의 성격을 말한다. 그 군대의 성격에 따라 「一曰 의병(義兵), 二曰 강병(强兵), 三曰 강병(剛兵), 四曰 폭병(暴兵), 五曰 역병(逆兵)」으로 분류한다. 가장 좋은 군대가 역시 의병(義兵)¹⁰⁾이다.



그림 8 해산지를 점령후 만세삼창하는 국군

10) 김경현(2012), 「오자/율료자」,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한국의 역사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외적의 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민간 무장 조직이 의병이었다. 대한제국 시기의 의병 역시 이러한 흐름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들은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독수리유격대원들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군대인 의병이다. 그들은 군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전쟁을 피하지 않았다. 한국 현대사의 6·25전쟁 중에서 의병 중에 의병은 단연코 군번 없는 독수리유격대원들이다. 그들은 열심히 싸운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 포천의 의병! 군번 없는 영웅!! “독수리유격대”¹¹⁾는 이제 포천시민의 자부심이다.

3. 중공군의 개입¹²⁾



그림 9 중공군의 개입

당시 중공군은 방어에 유리하고 유엔군이 공격하기 어려운 산악지형에 진지를 구축하고, 은밀하게 숨어 적이 통과하기를 기다렸다가 유엔군의 측방과 후방을 포위·공격하거나 화력이 유엔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군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다. 또한 그들은 피리와 팽과리를 불며 협소한 정면에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해 밀집대형으로

전진하는 이른바 인해전술로 유엔군의 집중적인 화력과 공중공격을 피해 야간

11) 독수리유격대 보도자료 일지 : 경인일보 “그때 그상처 이젠 영광으로”(1990.6.25.), 경기일보 “포천에서 독수리유격대 6·25전적비”(1990.6.28.), 同신문 “독수리유격대 전적비 이동면에 세워”(1991.7.31.), 한국수도권일보 “63인의 님 이재야 기려(1991.8.1.), 경인일보 “포천젊은이 조국에 길이후대에”(1991.8.2.), 한국일보 “잊혀진 전공 38년만에 햇빛”(1991.8.3.), 강원일보 “독수리유격대 50년만에 뭉쳤다”(2000.7.5.), 국민일보 “독수리유격대의 전설 ‘사실로’”(2001.6.5.), 포천신문 “튼튼안보, 국론결집과 국민화합 절실”(제55회 현충일 추념식보도자료), 국방일보 “전적지를 찾아 투철한 국가관배양”(2011.11.11.), 同신문 “함께 가면 멀리간다”(2012.12.12.), Silver Net News 참군인 표상 군번없는 영웅들(5회), 뉴시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독수리유격대 참배”(2015.8.28.), 국방FM 김창주의 전적비 순례 800회 제99회와 제106회와 다수

12) <http://www.koreanwar60.go.kr/10/2002020400.asp>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최대의 전과를 거두려 했다. 그리고 그 같은 중공군의 전략·전술은 초기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공군이 포천을 다시 점령하자, 50년 6월과는 다른 양상이 보였다. 공산당 치하에서 곤욕을 치뤘던 이 지역사람들이 다 피란길에 나섰다. 독수리유격대 민병권대원의 증언이다. “1950년 11월경 중공군에게 밀려서 국군이 다시 후퇴를 할 때였는데 처음에는(발표자 주 : 6월 북한이 남침했을 당시를 말함) 미처 후퇴(피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인민군 치하에서 혼 줄이 났기 때문에 1.4후퇴 때는 서로 먼저 피난을 갈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일동 · 이동사람들도 모두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중에 우리 63인은 유격대를 조직해서 북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때 유격대를 모집하면서 최종성대장님나(발표자 주 : 민병권대원)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서로들 피난을 갈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공산당에게 많이 당하지 않았느냐? 우리라도 남아서 고향을 지키자! 갈 때 가드라도 우리는 일단 고향에 들어가서 싸우자.”고 하셨습니다. 그 때는 한 발짝이라도 남쪽으로 더 갈려고 아우성일 때 “타공(打共)! 승공(勝共)!! 멸공(滅共)!!!”을 외치면서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우리 독수리유격대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천이 사랑하는 가족보다 먼저였다. 독수리유격대원들은 반공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애향심으로 불타는 순수한 애국청년들이었다. 그들이 포천에서 선혈을 뿌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공산군을 격멸하는 선봉이었으며 중동부 전선에서 살과 뼈를 묻으면서 오늘의 휴전선을 확보하는 영원한 척후병이 되었다.

V. 호국성(護國星), 독수리유격대

1. 독수리유격대 특징

독수리유격대 핵심인물은 초대 대장 최종성이다. 그는 본래 이동면 낭유리 사람이었는데 북한공산당이 재산을 몰수하자 월남해 서북청년단 활동에 앞장섰다.



그림 10 초대유격대장 최종성
(50.11~51.2.)
32연대 역사관에 존안된 사진
자료

육군 제2보병사단 제32연대 역사관에 존안된 자료에 의하면 최종성 유격대장은 연대가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전쟁 영웅 중에 으뜸의 인물이다. 역사관 자료에 의하면 최종성 독수리유격대장은 일본해군에 징용당해 히로시마에서 근무했으며, 해방 후에는 귀환하여반공일선에서 활약했다.

1946년에서 50년 전쟁직전까지 서북청년단원으로서 7사단과 포천경찰서에서 38선 이북의 대공정보원으로 활약했으며 그의 별명은 38박사였다. 9·28 수복 후에 독수리 유격대를 조직하고 창설했으며 17연대 1대대에서 1950년 9월28일부터 1951년 2월 5일까지 공비토벌 등 전투에 참가했다. 32연대에 합류하여 작전을 수행하다 17연대 1대대(대대장 유창훈소령)에서 대장을 포함하는 5명의 간부들이 즉결처분되었다. 1986년 국방부 조사단에 의해 전사처리 및 명예가 회복되어 1987년 국립 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되었다. (영현관 52-6-042부터 52-6-058까지)

최종성 대장에 대한 김익수 소대장(2대 대장)의 증언이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경기도 포천에는 여러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을 조직해서 주로 대공활동을 하면서 경찰서와 군부대에 소속을 두고 정보계통의 일을 하였습니다.

7사단 9연대 정보과와 포천경찰서에서도 서북청년단을 내세워서 38선 이북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나도 이 부대로 부터 임무를 받아서 38선을 넘어 다녔습니다. 최종성 대장과는 정보부대나 포천경찰서에 드나들면서 안면이 있었습니다. 9.28수복이 되자 포천으로 와서 최종성씨를 만났습니다. 옛날에 안면도 있고 서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하니까 최종성씨가 먼저 유격대를 하자고 합디다. 9.28수복이 됐다가 다시 밀리는 중이니까 그때는 서로 먼저 피난을 갈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유격대에 들어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25 전에 내가 정보활동 하던 것을 서북청년단 포천단장이었던 최종성 대장님이 잘 아니까 소대장을 시키더군요.“ 최종성 대장에 대해서 문서로 전달되는 내용이 없어 생존자와 관계자의 증언 자료에서 퍼즐게임을 하듯이 자료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그의 별명은 38박사 또는 38대장으로 호칭되고 있었으며 몸에 북한군 따발총 자국이 18개나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의 애국심은 우리가(국군이) 부산까지 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김영필 당시 대위(17연대 1대대 부대대장)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참 싸움꾼 · 반공투사였다. 남들은 중공이 개입해 중공군이 온다고 하자 다 피난길에 오르고 있었을 때 고향을 수호하자면서 유격대를 결성했던 장본인이다.

17연대 1대대에서 오해로 인한 즉결처분(1951년 2월6일 당시 구정이었음)

을 당하면서도 대원들에게 17연대에 대한 섭섭함 보다는 대원들의 무운이 장구하기를 기원하고 어떤 경우든 뭉쳐서 싸워 이겨 귀향할 것을 권고한 참된 유격대장과 간부들이었다. 억울한 처형을 당하면서도 만세삼창으로 일관한 자세는 살신성인의 극치였다. 그의 희생은 숭고함과 거룩함 그 자체였다.

이외에도 모든 독수리유격대원들이 현역대원을 훨씬 능가하는 전투력을 발휘함에도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았으나, 가족을 지키는 것 보다 공산군과 싸우기 위해서 포천으로 들어가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가족을 피난 보내고 독수리유격대에 참전했다가 가족의 생사를 찾지 못했던 독수리유격대 김동호 대원도 세상을 원망하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김동호 대원의 증언을 들어본다. “가족들은 영등포로 내려 보내고 나는 유격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족과 헤어져서는 지금까지도 생사를 모릅니다. 그 때 나도 남들처럼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했다면 가족을 잃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의 우리는 그렇지 못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는 공산군과 싸우기 위하여 북쪽으로 들어가 포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 당시의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싸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그 때 가족을 데리고 피난 갔던 사람들은 모두 탈 없이 잘 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리석고 못난 것이었다고 비웃을 런지도 모릅니다.” 최종성 유격대장의 자세에 못지않게 모든 대원들의 자세도 모두 다 훌륭했다. 세상이 자신들을 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그 당시의 애국행동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원들이었다.

이들의 전투 능력에 대한 3대대 정보장교 박영식 소위의 증언이다. “그들은 전선 없는 전야를 누비면서 신출귀몰 종횡무진으로 타공(打共)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 소속이나 근무지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는 유격대원이었다. 너무나 훌륭하게 작전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나는(박영식 소위) 나이 어린 하급대원들

에게도 경어를 사용했다.”고 말 했다. 실제로 이기명대원의 증언에 의하면, “총기수리 분야에서도 현역 병사를 지도해 줄 만큼 전투기술이 빼어났다.”

독수리유격대원들의 전투력이 강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독수리유격대원들은 전원이 지원자였다는 점이다. 징병(徵兵)된 자와 모병(募兵)에 응해서 지원한자 사이에 전투력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거듭 승리했던 미군도 예외가 아니다. 베트남전을 수행할 때는 징병제를 사용해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해야 했지만, 모병제로 제도를 바꾼 후에는 21세기에 미국은 싸우면 이기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계승하고 있다. 독수리유격대원들이 막강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전원이 지원병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당시 국군의 학력이 대부분 저학력의 문맹자들이 많았다. 집에서 온 편지를 읽고 쓰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병영에서는 편지 대필(代筆)을 해주는 사례가 많았다.¹³⁾ 그러나 유격대 대원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재학 중에 있거나 일제시대 공부를 마친 후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등 고학력자로 편성되었다. 고학력이어야 전투를 잘 한다는 사실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수색정찰 등의 유격전에서는 독단적인 상황판단이 필요한데, 독수리유격대원들의 고학력이 이런 면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부대원 가운데 대다수가 입영 전에 동향(同鄉)이거나 선후배 또는 친인척 사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우애가 아니라 골육지정의 전우애로 뭉쳐져 있었다. 일례로 최종성대장과 최종철 작전관 최종석대원이 한 형제였고, 최면수 대원도 한 집안이었다. 대원 이강록과 이강현도 형제였는데 형 이강현이 전투에서 부상당하고 후송 당하자 당장에 동생이 원수를 갚겠다고 나갔다가 이강록이 전사당하는 사례가 373고지 전투에서 실제 있었다. 이외에도 이기재와 이경재 그리고 오득환이와 오부환, 이제용과 이제영 대원들도 한 형제다.

13) 국방FM 김창주의 전적비순례 800 (제18회 포항지구전투 2010년 12월5일 최기영회장증언)

이들 최고의 구심점은 역시 반공(反共)이었는데 광복이후 북한치하에서 재산몰수와 가족살해 등의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다. 유격대원 일부에 대해서는 경찰로 신분변경을 해 준다는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총을 잡았지, 치안이나 유지하려고 총을 잡은 것이 아니라”하여 신분변경을 끝까지 거부한 사례도 있다. 그들은 단순한 전우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골육지정의 전우애로 뭉쳐있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력이 강했던 일본이 연고지위주로 연대를 편성해서 부대를 조직¹⁴⁾했던 것과 독일도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를 미뤄본다면 독수리유격대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현역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독수리유격대원 전원이 이 포천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전투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많겠지만, 지형과 기상 적에 대한 정확한 첩보와 정보가 필수요소인데, 전쟁 전부터 38선을 넘나들면서 정보수집활동을 했고, 이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형에 밝으며 기상을 본능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잘 싸울 수밖에 없었다. 17연대 1대대가 이런 사실을 감안하고 함께 싸우기를 원했던 것이고 새로 편성된 32연대 3대대가 독수리유격대의 전투력이 절실히 필요해 데려갔던 것이다. 그 대가(代價)는 너무나 가혹했다. 부대를 지휘했던 간부 5명이 즉결처분되었다. 군대윤리 차원에서 오랫동안 거듭 조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 독수리유격대 모집

최종성대장과 김익수 소대장 등이 지역 내 경찰과 군부대에서 활동하던 자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신원조회는 최종성 대장이 38선 이북에 대한 첩보활동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면접과정을 통해서 신원의 진위여부를 가려 대원으로 모집했다.

14) 고흥화(1989). 「한국인의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일본 군대에 나타난 현민성”

예를 들면 헌병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지용을 대원으로 받아들였을 때다, 먼저 고향 정보관에 대해서 묻고 그 지역에 최종성 대장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해 답변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던 것이다.

3. 독수리유격대 편성

최초편성의 소대장은 김익수와 민영태 였다. 51년 2월에 초대간부들이 총살을 당한 후에는 김익수가 대장으로 추대되었고, 소대장은 이규화와 송완희, 박홍진이었으나 박홍진은 32연대 작전과로 근무 차출되었다. 독수리유격대원들이 우수한 자원이었기 때문이다. 박홍진의 경우는 부대해체 후 현역으로 재입대해 군복무를 이중으로 실시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독수리유격대원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연후에 17연대와 32연대에서 군복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대부분 재입대해서 다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인원은 대원이 계속 증가돼 63명까지 올라갔으나 이중 2명은 중도 낙오하여 실제대원은 61명으로 독수리유격대원의 신원파악과 유지에 철두철미를 기했다. 유가족이라고 해서 찾아와도 진위여부를 확실히 했다. 무장은 따발총, 장총, M-1소총 등 구구각색이고 기관총도 있었다. 이 무기들은 적과 아군으로부터 획득한 것과 경찰에서 얻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복장은 남루한 복장이었다가 17연대 1대대에 배속된 후에 처음 군복을 지급받았으나 32연대 3대대로 부대 이동 후 복귀하자, 1대대는 1대대에서 지급된 피복과 군장류 일절을 다 압수하고 맨발에 속옷차림으로 적진인 달래강 이북으로 추방했을 만큼 비인도적인 대우로 일관했다.

4. 17연대 1대대 배속의 사연

독수리유격대가 17연대 1대대에 배속하게 된 사연은 김영필 당시 부대대장의 주선 때문이었다. 17연대 1대대는 본래 유명한 부대였다. 개전 이전에 이미 송악산지구 전투를 치렀는가 하면 후퇴 중에 화령장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북한의 침략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줬던 부대였다. 1950년 9월 15일에는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등 독립17연대의 선임대대로 자부심이 강한 부대였다. 독수리유격대 이기명대원의 증언에 의하면 “전투 간에도 타연대에 비해 행군속도가 무척 빨랐으며, 전과획득도 많이 해 17연대 뒤를 따라가면 전리품을 얻을 것이 별로 없었다.”고 증언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예·배속 변경으로 11월에 2사단의 일원이 돼 포천일대로 왔을 때는 지형 등에 있어서 생소한 상황을 맞아 전투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독수리유격대의 도움이 필요했다.

상대적으로 독수리유격대로서는 포천을 침략한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전투장구류와 무기가 절실했기 때문에 현역부대의 지원이 필요했다. 마침 부대대장 김영필대위가 독수리유격대의 전투력과 정신전력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에 17연대에 합류시켜 T/O를 잡게 해 줘 급식과 전투 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줬던 것이다.

당시 17연대 1대대 부대대장 김영필 대위의 말이다. “독수리유격대가 17연대 1대대에 합류된 것은 포천에서 있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으나 한 50명이 넘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유격대라고 하면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따발총, 장총, M-1소총 등 구구 각색으로 무장을 했었고 기관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은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민간복장을 한 사람도 있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국군인지 공산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산군 소탕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정을 알아보고 독수리유격대원들의 애국적인 활동을 인정할 만 하다고 판단해서 1대대에 편입시켰습니다. 1대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유격대에 대하여 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격대의 보급과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애를 썼으며 17연대 본부와 협조해서 나중에는 유격대원이 일보에도 올라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VI. 포천을 사랑하는 반공투사 최종성과 형제들

1. 충주최씨 연원¹⁵⁾

충주최씨(忠州崔氏)의 시조 최승(崔陞)은 당나라 사람으로 초명이 최우(崔偶)다. 846년(신라 문성왕 8) 신라에 흉년이 들어 도적이 창궐¹⁶⁾할 때 당나라 무종(武宗)의 명을 받아 병마사(兵馬使 : 從三品)로 와서 이를 토평하였다. 889년(진성여왕 3)에는 원종(元宗)·경노(京奴)¹⁷⁾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소종(昭宗)의 명을 받아 상장군(上將軍)으로 와서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신라의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 從一品)에 올랐다. 그 후 예성(藥城 충주의 옛명칭)에 그 대로 머물러 후손들이 본관을 충주(忠州)로 하였다.¹⁸⁾

그러나 상계가 실전되어 호장(戶長)을 지낸 최공의(崔公義)를 1세로 하고 있

15) 충주최씨 최승(崔陞)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중국 만성보 상우록 22권 최씨편

16) 김창겸(2003), 『신라하대 왕위계승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권영오(2007) 부산대 박사논문

17) 889년 지방의 주·군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아 국고가 텅 비고 재정이 궁핍하게 되자, 중앙 정부는 사자를 파견해 오히려 조세를 독촉하였다. 이러한 조세 부담은 피지배층인 일반 농민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으며, 이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바로 사벌주를 근거로 해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元宗哀奴一亂]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8) 자한편(子罕篇) 13장(章)에서 “子欲居九夷”라고 하고 공야장편(公冶長篇) 6장(章)에서 “道不行 乘桴浮于海”라고 말씀하셨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35>에서 재인용

는데, 그는 고려 충선왕 때 판도판서(版圖判書)·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냈고 중원백(中原伯)에 봉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대사간·충청감사를 지낸 최순(崔洵) 등을 비롯하여 문과 급제자 15명을 포함해 71명이 과거에 급제했다.¹⁹⁾

2. 최승 입향경위가 주는 교훈

삼국통일이후 신라는 200년의 평화와 경제적·문화적 번영을 구가했다. 통일 신라의 영화는 토착 세력 반대로 수도를 서라벌에서 한반도중심으로 옮겨 한반도통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가목표를 상실한 태평이었다. 신라는 귀족들의 안일한 사치, 5-6년에 한번 꼴로 계속된 왕위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골육상쟁, 통일의 주역인 화랑도마저 수도귀족과 부유한 단체로 변질²⁰⁾되었다. 800년 애장왕(哀莊王)이후²¹⁾ 신라왕조의 정통성과 효율성의 상실이 문성왕 8년과 진성여왕 3년에 당나라병마사와 상장군 최승의 병력파병으로 난을 평정했음에도 935년 (경순왕 9)에 왕이 고려에 항복하여 신라가 망하였다.

충주 최씨 시조 최승의 파병은 발해와 통일신라 남북조시대에 발해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당나라의 이이제이(以夷制夷)와 분할책²²⁾으로 통일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되었다가 귀화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19) 충청일보(2013.2.14.) 충북의 성씨를 찾아서...

20) 김철수(2015),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1) 교양국사연구회(1990), 「이야기 한국사」, 서울: 청아출판사

22) 이재범(2001), 「한반도의 외국군주둔사」, 서울: 도서출판중심, 전경호(2015), 「당의 기미책과 재당 신라인」, 경기: 신라사학보

3. 최종성의 3인, 구국의 참전기

최승의 후예인 최종성, 최종석, 최종철, 최면수 4형제는 1945년 광복당시 포천군 이동면 노곡리 38선 이북에 거주하였다.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당이 자행한 각종 만행을 보고 최종성과 최면수의 형제들은 포천으로 월남하였다. 반공활동을 하다가 독수리유격대를 결성했다. 한편 이북에 남아 있던 최종성의 부친 최원기는 공산당의 감시를 피해가며 월남한 장남 최종성에게 군자금을 보내주다가 반동지주로 몰려 갖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

다음은 최종성 유격대장의 3녀 최정인의 증언이다. “내가 본 우리 아버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나는 남편이라고 믿지 마시오, 나는 나라에 바친 몸이오'라는 말입니다. 북한 내무서에서는 반공주의자 아버지를 찾아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사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김광식'이라 말해라 했죠. 어떤 때는 어머니가 독 안에 숨으신 적도 계셨습니다. 9·28 수복 후에 아버지가 오셔서 내무서가 봤더니 우리 가족들은 몰살대상자로 지목된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 중에 어머니께서는 폭격으로 사망했으며 내가 세 동생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모진 시련의 삶이었습니다.”

9세기에 시조 최승은 발해와 통일신라의 남북조시대에 남쪽의 통일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라에 파병되어 창칼을 잡았고, 그 후손들은 20세기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남북대결에서 스스로 월남(越南)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쪽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총을 잡았다.

최종성 유격대장의 3남,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 기획국장 최면택의 증언.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부친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랐습니다. 전쟁 중에 17연대 1대대(대대장 유창훈소령)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있는 정부 문서고에 소장 된 서류를 찾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정하여 국방부 조사대의 확인을 받아 국립현충원에 위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해 자손들이 제대로 된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전적비를 세우게 된 것은 최초의 전사자 최영찬대원의 전사지였기 때문이며 예산의 부족으로 폐철수집 등 23명의 생존자와 유가족의 눈물과 땀으로 세운 전적비입니다.”

유격대 작전관 최종철의 장남 최송학의 증언. “제 사촌 최면택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 문서고의 전쟁문서는 이미 종이 특유의 곰팡이가 생겨서 내용을 찾기 위해 침을 바를 때 마다 입술 주변이 크게 상해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유격대 간부들의 누명을 벗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VII. 독수리유격대 참전기

1. 첫 번째 희생자

1950년 12월 5일이다. 17연대 1대대로 부터 임무가 하달되었다. 현재 독수리유격 대 전적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일대에 대한 수색정찰명령이었다. 독수리유격대의 주요 임무가 이 지역 일대의 지형지물에 밝았기 때문에 수색정찰에서 첩병의 역할은 항상 독수리유격대의 몫이었다.

이동면 낭유리 일대에 있는 적정을 살피오라는 명령인데, 기가 막힌 임무다. 차상길 대원에게 태극기를 휴대하고 전방 무명고지를 올라가 휴대한 태극기를 휘둘르라는 간단한 명령이었다. 당시 적은 제공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간에는 기동을 하지 않고 엄폐은폐물을 이용해 철저하게 부대와 부대원을 숨기고 있었다.

적이 몸을 숨기고 있는 적진을 차상길 대원이 단신으로 올라가게 한 것이다. 이 때만 해도 수색정찰의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던 독수리유격대원에게 임무를 준 것은 적에게 미끼를 던진 것과 같은 형상이었다. 적이 차상길 대원을 사살하면 그 지역에 적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임무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은 이미 실전경험이 풍부한 팔로군 출신 중공군이었다.

유격대 안에서도 날썬 돌이로 소문난 차상길 대원에게 무명고지 정도는 한 순간에 뛰어올라 갈 수 있었다. 적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최대한 몸을 숨겼다. 이제 막 유격대를 편성하고 전술훈련은 물론 각개전투 훈련도 제대로 안된 차상길 대원은 명령에 절대복종하여 말 그대로 고지 정상을 향해 뛰어올라갔다. 오르는 중에는 물론이고 오르고 난 다음에도 적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휴대하고 올라간 태극기를 힘차게 휘둘렀다.

낭유리 무명고지에서 차상길 대원의 태극기 휘날리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차상길 대원을 내보내고 전방을 살피던 17연대 1대대 수색정찰대의 현역대원들이 차상길 대원의 정상점령과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 적이 없다고 오관을 하고 무명고지를 오르다가, 본대가 오기를 기다리던 적의 집중사격을 받게 되었다. 그날의 희생자가 최영찬대원과 현역 수색대원이었다. 최영찬대원은 독수리유격대원 중 첫 번째 전사자가 되어 영원한 척후병으로 하늘의 별이 되었다.

2. 후퇴이동

중공군이 포천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린 것도 독수리 유격대였다. 그러나 1대대 본부에서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이강헌 대원의 증언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유격대를 결성한 후에 우리가 했던 일은 도평리 백운동 약사골 등의 빨갱이 토벌이 주임무였습니다. 이렇게 토벌한 것이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양력으로 그믐날(50년 12월 31일) 중공군에게 당했는데, 12월 28-29일쯤 우리 유격대가 정찰을 하면서 중공군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대대 본부로 와서 보고를 하니까 대대 본부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29일에는 제비울(연곡리) 먼두둑(원평)에서 중공군을 발견하고 거기서 내가 다리까지 빠였습니다. 찢뜩거리면서도 대대 본부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사방을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정탐을 해서 보고를 하면 믿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믿지를 않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믐날 저녁 중공군이 덮쳐 오니까 우리보다도 먼저 출행량을 쳤어요. 보고할 때는 믿지도 않던 현역들이 중공군이 덮치니까 정찰나간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후퇴를 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기 전부터 공산당하고 싸우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우리가 포천사람들이니까 일동이나 이동의 지리와 여러 사정을 거울 속처럼 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수한 정보는 정확한 거니까 믿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기습을 당했으니 한심한 일 이었습니다.

우리는 1대대에서 장비 지원을 받을까 해서 합류했던 것이고 1대대는 우리에게 정보를 얻고 협조를 받으려고 서로 손을 잡았던 것인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패심한 것은 1대대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

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얻어먹으려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이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1대대에 빌붙어 다닌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처자식 내버려 둔 채 고향과 나라 지키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17연대 1대대의 태도에 대해서 시종 서운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퇴 이동 중에도 독수리유격대는 항상 선두였다. 이기명 대원과 이지용대원의 증언 자료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유격대가 창설되어서 화대리에 있다가 양력으로 그믐날 캄캄한 밤중에 후퇴를 했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후퇴를 했지요. 대대장이었는지 싶은데 권총을 빼 들고 지휘를 하는데 우리보고 앞장을 서라고 해서 화대리에서 안골을 거쳐 후퇴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가다가 봉수리엘 가니까 헌병들이 후퇴를 못하게 해서 다시 화대리로 돌아와서 호를 파고 전투대형을 만들고 있다가 헌병으로부터 밤 12시경 일동포병진지가 유린됐기 때문에 후퇴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청평을 거쳐서 피난민과 섞여 양수리 강을 건너 충주까지 후퇴했습니다. 우리가 집결한 곳은 중원군 동량면 목행리였습니다.”

3. 독수리유격대의 부대이동과 즉결처분

고향 포천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향을 수호하기 위해서 쫓겨난 의병 독수리유격대가 1950년 중공군의 개입과 17연대 1대대에 배속된 사연으로 충청도 중원군 동량면 목행리로 유격대를 이동시키게 되었다. 작전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곳에서의 임무는 비행장 경계근무와 역시 수색정찰이었다. 이들은 포천을 사랑하는 애국청년 독수리유격대에서 군인이 된 것이다. 다른 군인과의 차이점은 군번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군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유군인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대하고 소모품정도로 여기는 17

연대 1대대보다는 소령으로 진급하면서 떠나간 32연대 3대대장 김영필 소령의 따뜻한 인간성을 더 기대하고 있었다.

어느 날 32연대 3대대장 김영필 소령이 모자라는 전투력을 보강할 목적으로 보낸 트럭에 승차한 채로 17연대 1대대장(소령 유창훈, 육사8기)에 보고 없이 떠나 32연대 3대대로 가버리는 대형 사고를 내고 말았다. 17연대 1대대장은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독수리유격대가 32연대 3대대로 떠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보다는 독수리유격대의 배신으로 단정했고 군번도 없는 독수리유격대원에게 무단이탈죄를 적용했다.

그 사연을 32연대 3대대 정보장교였던 박영식 소위(예비역 육군 대위)증언으로 재구성해 본다. 그는 대대장 김영필소령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유격대원의 인솔은 그 시기(년월일)는 불확실하나 대대장의 명령 내용은 17연대 1대대장 휘하에 있는 유격대원이 현역군인을 능가하게 활약하는데 비해 제반 군(軍)장비 및 보급품이 현역과 현저히 차가 나는 대우를 받고 있어 타부대로 이동하였으면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 그네들 하고 긴밀히 약속되어 있으니 은밀히 그네들을 인솔해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음” 당시 “유격대원 이동수단은 전후 보상책의 일환으로 일본국으로부터 미군에게 납품한 일본제 도요타 트럭 2대 었음.”

“이동 당시 대원들은 사전에 연락을 받았음으로 본인이 그들에게(집결지)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이동준비가 완료상태에 있었음.” 당시 독수리유격대 간부들이 “17연대 1대대 간부들과 합의하였는지는 본인은 알 수 없었음.” 명령의 요지는 은밀히 인솔 해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협조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었다. 그 후 “본인이 정보학교를 수료 후 원대복귀하였을 때 누구라고는 기억되지 않았으나 유격대 간부 등이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자신들은 국가로부터 징병된 현역군인들이 아니었고, 포천을 사랑하는 의병 독수리유격대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해 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했던 생각의 결과는 유격대 간부 5명에 대한 즉결처분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포천을 사랑했기 때문에 총을 잡았던 의병(義兵) 독수리유격대 간부들의 슬픈 이야기이다.

이점에 대해서 당시 17연대 1대대에서 32연대 3대대로 인솔했던 박영식 당시 소위가 사건임을 내 세워 담당 국방부 수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이다. “유격대 간부등에 대한 총살형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군법과 인도를 무시한 순전한 사적 감정에서 야기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17연대 1대대 책임관으로 하여금 자기위하에 있었던 대원 등이 사전에 승낙도 없이 타부대로 무단이탈하였다면 물론 열화와 같은 분노를 느꼈겠지요.

그러나 좀 더 냉철한 책임관이었다면 그네들을 극단적 방법으로 총살을 감행하기에 앞서 그네들(유격대원)을 유인(?)한 김영필 소령과 그의 하명을 받고 실행한 본인에 대한 조치를 자신의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의 해당하는 처벌을 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우국충정에 불타고 있는 그네들을 단순한 사감으로 손쉽게 처단했다는 것은 심하게 말해서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독수리유격대원들은 반공청년들로 철두철미한 반공의식 속에서 불같은 복수심과 우국하는 참다운 마음으로 뭉쳐진 사조직체로서 이네들에게도 현역군인법이 과연 적용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네들의 궁극적인 목적달성은 언제 어디서나 군작전에 도움이되고 반공청년으로 젊음을 불태울 수만 있다면 그네들이 갈망하는 “공산당에 대한 복수”는 물론 대국적으로는 조국에 대한 충정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소속된 부대를 탈출하여 이적행위를 자행 하였다면 그러한 단죄는 가능하겠지요. 단지, 그 당시 전시에만 적용되는 이른바 분대장이상에게 부여된 즉결처분

권을 그릇되게 적용하여 총살형을 집행하였다 함은 실로 전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기억조차 아련한 당시를 더듬어 가며 미냉(未冷)한 진술이 되어 죄송합니다. 마는 국방부 조사대가 본 사건을 처리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본인으로서는 더없이 다행한 일이며 또한 유족들로 하여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하게 산화한 영령들의 넋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멀리 이국에서나마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끝으로 본건을 다루시는 귀하와 귀하 가정에 영롱한 무지개의 서광이 아낌없이 내려 비추기를 두 손 모아 합장하는 바입니다. (당시 대대 정보장교 예비역 육군대위 박영식)

이런 불행한 일이 38년 만에 유족들에 진정에 의해 국방부 조사대가 진실을 밝혔고, 이로 인해서 1991년에 독수리유격대 전적비가 건립될 수 있었다.

4. 추방과 복귀

1951년 음력설날 17연대 1대대에서 5명의 간부가 총살형²³⁾에 처해진 후 나머지 대원들은 17연대 1대대에서 추방되었다. 그 추방과정이 너무 모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 『전쟁 간에 준수해야 할 군대윤리』의 소재로 발전시켜 줬으면 하고 건의를 해 본다. 대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실망과 분노로 전쟁을 포기하고 그리운 가족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독수리유격대원

23) 육본은 1950년 7월 26일 零(영)시부터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명령 없이 전장이탈을 하는 부하들에게 卽決處分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부여했다. 戰時(전시)에서의 卽決處分이란 곧 총살을 의미했다. 그러나 軍 내부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자 시행된 지 일년만인 1951년 7월 10일 零(영)시부터 취소되었다. 그 근원은 “1910년 일제는 조선을 병합하면서 즉결처분권을 허락하여 경찰이 최대 3개월까지 조선 민중을 영장 없이 잡아가둘 수 있게 만들고, 다시 태형을 부활시켜 경찰 1인당 하루 80대까지 때릴 수 있게 되돌렸다. 그래서 매해 1만에서 2만명이 경찰한테 맞았다.” 통제되지 않는 국가권력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http://nousa97.blog.me/220724130546>에 재인용.

들은 32연대 3대대로 복귀했다. 포천을 사랑하는 독수리유격대원들의 애국심이다. 그날의 상황을 대원들의 증언으로 재구성해 본다.

1) 김익수 (발표자 주 : 최종성대장등의 간부가 총살당한 후 대장으로 활약 중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어 중국까지 끌려갔다가 휴전시 국군포로로 귀환 한 대원) : 대장님과 간부들이 총살당하고 대원들은 옷을 뺏기고 쫓겨났는데 입고 있던 군복은 모두 뺏기고 어떤 대원은 양말까지 뺏겨 맨발에 팬티만 입었던 대원도 있고, 어떤 이는 내복바람에 쫓겨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복 속에 민간 내복을 끼입었던 사람은 그대로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음력설날(구정)인데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1대대에서 필요 없다고 내 쫓았을 때도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싸웠으니까요. 간부들이 어떤 경우를 택했더라도 도망은 아니었습니다.

17연대에서 우리를 적진으로 쫓아낸 것은 빨갱이들에게 잡혀 죽든가 빨갱이가 되어 가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 쪽에 모여 앉아서 의논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애걸 했습니다. “여기서 각자 흩어져서 개인행동을 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대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뭉쳐서 잘 싸우고 흩어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2) 이규화 : 왜 유격대를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유격대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로서는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서는 데 나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평범한 양심과 평범한 용기로 유격대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제천 경찰서에 파견을 나가 있을 때 경찰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 유격대에 따라 다녀 봤자 별 볼일 없는 것이고 죽어도 명분없이 개죽음하는 것이니까 복진하지 말고 경찰서에 남아있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식 경찰관으로 만들어 주고 앞날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나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나 혼자서 동료를 저버리고 안일을 택할 수가 없더군요. 서장의 권유를 뿌리치고 1대대에 복귀해서 다른 대원과 함께 복진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싸우느냐는 영웅심은 아니었다 해도 모두가 같이 싸우는 데 내 힘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작은 참여 바로 그것이 나의 솔직한 생각이었고 국민 된 자로서의 애국이었다고 믿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지녔던 생각과 내가 취했던 행동은 자랑스러운 것이었다고 믿어 집니다. 우리 유격대는 군번도 계급도 없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훈장을 받은 군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3) 민병권 : 최중성 대장님하고 나 하고는 한 동네 산거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잘 알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에 가면 나는 나라를 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갔다고 전해 다오(가족들에게). 그리고 너희들도 열심히 싸우다가 건강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가라.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을 잡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대대에서 우리를 집합시키고 “너희들은 필요 없다. 너희들도 다 죽어야 하는건데 대장들이 책임을 졌으니까 살려준다.”고 하면서 군복을 몽땅 벗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도 난닝구(메리야스)하고 팬티만 입고 쫓겨났어요. 이걸 우리를 다 죽이려는 생각이었는데... 너희들 발로 빨갱이들한테 잡혀가서 죽으라고 쫓아낸 것입니다.

4) 최원순 :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 추운 날에 옷을 벗기고 맨 발로 얼음 위를 걸어갔으니 오죽 했겠습니까? 32연대로 가는 중에 철도 경찰에게 검문을 받다가 신분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32연대 3대대에 도착하니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현역들의 개인군장에서 부분 차출하여 우리 대원들을 다시 무장시켜줬습니다. 일부 현역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 공비토벌전과 두 번째 희생자!!

독수리 유격대는 김영필 소령이 지휘하는 32연대 3대대로 복귀한 후 지역내 각 경찰서로 파견 나가거나 지역에 대한 수색정찰과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했다.

독수리유격대의 수색정찰지역이 통상 의성과 청송까지였는데, 이기명대원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는 장거리교신을 위한 무전기까지 휴대하고 강원도와 동해안까지 다녀왔던 것으로 봐 독수리유격대의 수색정찰은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포천을 사랑하는 유격대의 작전 범위가 포천에서 전국적 범위로 넘나들게 된 것이다.

수색정찰 중에 벌어진 교전 가운데 불행하게도 전투경찰이 독수리유격대를 공비로 착각하고 오인사격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희생자는 정봉필 대원이었다. 이즈음에서 중공군의 춘계공세가 실패로 끝나면서 전선이 다시 북상하게 되었다.

6. 독수리유격대 북진

양평에서부터 전투를 하며 청평 현리 국망봉을 넘어서 김화까지 진격했다. 이때부터는 독수리유격대는 32연대 3대대 수색대에서 연대수색중대로 배속되었다. 그동안 독수리유격대의 수색정찰 능력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가. 천불산 지구 전투

1951년 5월 17일 미국의 극동정책이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 후 'NSC 48/5'로 확정되었다. 이 새로운 정책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당면 목표인 전쟁의 종결은 전쟁전 현상에서 휴전을 통해 해결하고 최종목표인 통일국가 수립은 유엔기구를 통하여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 정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현 상황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해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라는 것이었다.

즉, 천불산 지구 전투는 '공세적 방어'라는 전술 개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상되는 휴전 협상에서의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한 중공군에 최대한도의 인적, 물적 타격을 가함은 물론, 한국군의 탁월한 전투력을 과시함으로써 미·소간의 막후 접촉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한민국의 휴전 협상 전개에서의 소외를 방지하는 효과 역시 고려한 전투라 볼 수 있으며 이에 제32연대는 조재미 연대장의 지휘하에 국군의 최정예 연대로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수색정찰의 임무는 항상 독수리유격대와 새로 편성된 수색대의 몫이었다.

김동호 대원의 증언이다. “천불산 전투때 일입니다. 수색 대장이 우리 유격대들을 철모도 벗기고 총도 없이 수류탄 두발만 주고는 정찰을 해 오라는 겁니다. 철모도 없고 총도 없이 정찰을 나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기습을 받았습시다. 거기서 나는 부상을 당하고 후송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더 큰 아픔은 후송을 당하고 난 다음이다. 후송을 당하면 군번이 없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어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지 않고 민간병원으로 이송시키는데 당신 민간병

원의 의료수준이 열악했기 때문에 고통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독수리유격대원들은 연대수색대로서 계속해서 전선의 최일선을 맡았다.

나. 373고지 전투와 734고지전

양평을 경유하여 이동 한 후 천불산, 373고지와 734고지전 까지는 독수리 유격대가 대부분 수색정찰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73고지전에서는 연대직할의 수색중대 현역과 함께 공격전에 투입되어 독수리유격대가 참전 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전투였다. 이를 대원들의 증언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해 본다.



그림 11. 373고지 전적비

1) 김익수 대장 : 32연대로 와서는 파견을 다니기도 했고 모이기도 하면서 계속 공비토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진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나는 373고지전투 후 우리가 점령한 고지에 근무를 나갔다가 갑자기 적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처음 포탄이 날아오면서 공격을 하더니 중공군이 밀고 올라 왔습니다. 나

는 처음 포탄에 허리를 부상당한 후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2) 박홍진(독수리유격대원으로 당시 작전과근무) : 양평으로 올라와서 전후방 교대를 하면서 32연대 3대대에서 바뀐 것은 3대대장이던 김영필 소령이 32연대 정보 주임으로 전속되면서 부터였습니다. 당시 김영필 소령은 우리 유격대에게 상당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유격대 역시 공비토벌이나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정예부대로서 인정을 받고 연대 수색 중대로 배속 받게 되었습니다.

수색 중대로 배속이 바뀐 우리 유격대는 북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화야산 전투를 했고 가평군 설악면, 청평 발전소, 현리, 하판리와 상판리 셋말, 청계산, 강씨봉, 도성고개, 백운산 광덕산, 하오고개(북주산), 도덕동 육단리, 사곡리, 천불산, 373고지 734고지 전투를 하고 계웅산을 지나 김화까지 전진하면서 항상 선봉이었습니다.

3) 이기명 : 천불산전투가 끝난 다음에 373고지 전투를 했는데 첫째 날 내가 소속돼 있던 소대는 옆으로 돌아서 공격을 하다가 희생이 많아 후퇴를 했고 다음날인가 연대장하고 정보 주임이 직접 나와서 공격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차상길이가 부상을 당해서 데리고 오니까 마침 연대장하고 정보주임이 올라오다가 우리를 보고는 차상길이는 혼자 내려 보내고 나는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위에서는 집중 사격을 하고 밑에서는 올라가라고 야단인데 중간에서 올라갈 수도 내려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보주임이 부상을 당해서 내려가고 연대장도 부상을 당했는지 그냥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있다가 다 내려갔습니다.

나중에는 현역이고 우리 유격대원이고 구분도 없이 범벅이 돼서 공격을 했는데 남은 10여 명 중 우리 유격대원이 예닐곱 명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중공군들이 있는 바위 밑까지 갔지만, 수류탄을 수도 없이 퍼붓다가 차차 뜸해지고 나중에는 머리만 들면 소총사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위에 바짝 붙어 있다가 누군가가 먼저 바위에 올라가서 고함을 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돌격을 했습니다.

중공군은 그 위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수류탄을 보급해 오던 놈이 그 밑에서 총에 맞아 죽고 포로도 몇 명 잡고 도망간 놈도 있는데 몇 명 안됐습니다. 고복동이가 포로를 잡았을 겁니다.

4) 고북동 : 포천에서와 안동 의성 청송 등지에서 공비 토벌 할 때는 최영찬 정봉필 대원이 죽었는데 금화 쪽에 북진해서는 많은 대원이 전사했고 김익수 대장도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평을 지나 화야산으로 가면서 정말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적에게 우리가 포위당했고 적군이 또 아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아군이 포위를 당하니까 우리 수색 중대 보고 그걸 뚫으라는 겁니다. 그 때 이틀 반나절 동안을 꼬박 굶으면서 작전했지요. 이틀 반을 굶으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적군이 총을 쏘도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거기서 죽을 고생을 했고 그 후에 천불산과 373고지에서도 고생이 심했습니다.

373고지 전투 때는 현역병 수색 중대가 3개 소대 우리 유격대 2개 소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는 현역과 우리 유격대가 섞여서 째뽕(혼성)으로 2개 소대를 편성했으니까 아군의 피해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부상자가 아주 많아 나왔고 셋째 날 373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적은 수류탄을 던질 필요도 없이 지붕 위에서 마당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냥 핀을 뽑아서 놓기만 하면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터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총이고 수류탄이고 포탄이 비 오듯 퍼부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우리가 움직임을 보일 때만 응사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적군도 실탄 보급이 딸렸던 모양입니다.

바위들이 한길에서 두길 정도였는데 한 사람(송만복대원)이 올라가서 “없다!”하고 소리를 치니까 우리 아군이 왈칵 덮쳤습니다.

우리는 소위까지 합쳐야 7-8명 됐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저항하던 놈들이 총도 내버린 채 맨몸으로 저만큼 뛰어 내려가는데 우리들 서넛이 집중사격을 해도 맞지 않더군요. 그 놈은 살아서 도망을 했지요. 나는 전날 공격을 했다가 내려간 곳에 우리 대원 시체를 그냥 두고 간 생각이 나서 확인하려고 내려가

는데 호 속에서 중공군이 손만 보여요. 호 속에 숨어서 손만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놈을 잡아서 때릴려고 하니까 우리보고 총을 달래요. 그러면 제가 그 아래로 중공군 쪽에다 쏠겠다는 겁니다. 물론 말은 통하지 않고 시늉만으로 아부를 하는 것이지요. 전날 우리 아군이 죽은 곳엘 가보니까 총이고 시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아군 같으면 노획(전리품)이라고 해서 총이나 장비를 전부 가져갔을 텐데 그냥 갔더군요.

내가 알기로는 373고지 점령 때 적군은 두 명이 살아서 도망을 쳤고 포로를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잡고 포탄지고 올라오던 놈이 몇 명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373고지는 적군도 몇 명 없었던 것을 못 뺀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373고지는 결국 점령은 했지만 우리 아군 측의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373고지 전투뿐만 아니고 어느 전투에서나 전사한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고 앞서 나가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또 373고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현역과 우리 유격대의 차이점입니다. 현역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현역병들은 겁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공격조 7-8명 중에 유격대원이 5명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고향 포천을 공산당과 패주하는 북한군의 만행으로부터 구하기위해서 자진하여 독수리유격대를 결성하고 총을 잡고 싸우다가 17연대 1대대장의 오판으로 5인의 간부가 희생되는 등 16명의 전사자를 내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32연대장의 귀향증을 받고 각자 고향으로 귀향(대원 중 일부는 현역으로 재입대)하여 현재 5명이 생존하여 그 유가족들과 함께 독수리유격대 기념 사업회를 조직 활동하고 있다. 63명 중 16명의 거룩한 희생자들은 하늘의 별이 되어 지금도 포천을 수호하고 있다. 전사율 25%는 미군의 전사율 8%²⁴⁾보다

3배 이상의 전사율이다.

VIII. 위대한 자손들의 뒷이야기

1. 누명을 벗기다

1989년 당시 국방조사대 제1과장을 했던 송욱(예)중령을 2012년에 찾아가 누명에 관한 사연을 들어보았다. 6·25전쟁의 참상은 더 말한 나위가 없었던 시대였다. 이적행위로 분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계속 참가했기 때문에 군대생활 모든 것을 걸고 조사에 임했다.

원칙은 먼저 현장조사를 으뜸으로 했다. 그 당시 전투상황도 다 확인해야 했다. 피해자 가족은 맨 마지막에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절차를 통한 결과 정말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애로가 많았다. 6·25때의 이야기였고, 이분들에게 군번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문서고에서 6·25자료가 나왔을 땐 유가족보다 내가 더 기뻐다.

조사결과 유가족의 탄원사실이 진실이었다. “내가 지금 23년 전의 그 사실을 세부적으로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유가족은 사건 종료 후에 전적비 건립을 요구했던 것 같다. 그 보고서를 쓰면서 장관께서 보셨을 때 인정할 수 있게 한다는 각오로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당시 얼마의 금액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으나 그 후손들은 정말 위대한 자손들이었다. 그 일건서류 일체를 내가 지휘해서 종결케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사건 일체를 처리하면서 갈등은 없었다. 왜냐면 17연대 1대대 유창훈 소령도 독수리유격대의 참전에 대한 그 일절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17연대 전우회(회장 김석근)를 찾아가 보았다. 아쉽게도 1대대 4중대 참전용사까지는 찾았으나 독수리유격대를 기억하는 분이 없었다. 4중대만 해도 중화기 중대기 때문에 대대후방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선의 일을 알 수가 없었고, 당시 독수리유격대도 대대 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무실과 숙영지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는 참전용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32연대 정보과에서 근무했다는 참전용사는 유사사건에 대한 첩보를 제공해 주었다. 유격대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노무자들이 부대원의 식사를 운반하지 않고 전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탄약과 무기운반을 기피하고 전선을 이탈한 자는 총살에 처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해 줬다. 17연대 1대대에서는 독수리유격대원을 동료전투원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모품 정도로 취급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독수리유격대의 전투력과 인격을 귀하게 인정하는 32연대 3대대장 김영필소령 휘하로 부대를 이동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간부 5명에게 책임을 물어 즉결처분했기 때문이다.

동부전선의 351고지 전투에서 당시 대대장으로 전투를 지휘했던 최동안(예)대령의 증언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인용한다. “아무리 총칼을 잡고 나선 전장터라고 해도, 교전현장에서의 전투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든 존엄하게 다뤄져야 한다”²⁵⁾고 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과 전투라고 해도 살인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전쟁범죄이기 때문이었다.

독수리유격대에 관한 것은 한권의 단행본으로 역사정리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6·25전쟁 휴전 63주년에 즈음해서 이제는 전쟁을 냉철하게 다시 조명해야 한다.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응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25) 국방FM 김창주의 전적비순례 800 (제351고지편 2010년7월10일)

분명히 멸공을 위한 정의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모든 전투가 다 정의의 전투는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처에서 불의의 전투를 자행한 사례들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휴전 63주년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 전장터에서도 법규가 준수되고 정의의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자람이 없어야 하겠다. 이 단행본이 그 단초가 됐으면 하고 기원해 본다.

2. 독수리유격대 정신을 포천의 통일정신으로 승화

그들이 만든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가 조성한 전적비가 이제는 독수리유격대 현충공원으로 발전해 포천시가 자랑하는 전적지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720여개의 6·25전쟁 전적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으뜸의 전적비가 단연코 “독수리유격대 전적비”이다.

우리 주변에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애국자(愛國者)들이 많다. 또 때로는 나라를 염려하는 우국자(憂國者)들도 정말 많다. 그러나 독수리유격대원들은 말로만 나라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청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1950년 북한의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자 국가가 징병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총을 잡고 전선으로 달려간 유격대원이었다. 일동·이동 주민들이 서로 앞을 다투면서 남으로!! 남으로!!! 피난길을 재촉하고 있었을 때 이들은 타공(打共)!! 멸공(滅共)!! 승공(勝共)을 외치면서 적이 밀려오는 포천을 향해 들어갔다. 이들이야 말로 말꾼과 구경꾼이 아닌, 참된 애국을 실천하는 거룩한 구국(救國)의 일꾼들이었다.

역지로 전선에 동원된 군인들과는 처음부터 그 싸우는 태도가 달랐다. 동원된 군인들은 헌병대가 독전(督戰)을 강요해야 싸웠지만, 독수리 대원들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



그림 12. 5인의 생존 독수리유격대원

극적으로 전투에 임했다. 시키지 않아도 멸공의 투사로서 전투에 임했다. 심지어 17연대 1대대에서 싸우고 있는 유격대를 32연대 3대대에서 데리고 갔을 만큼 전투에 대한 소명감으로 불타고 있는 반공전쟁의 화신들이었다.

그 정신은 첫째가 포천을 사랑하는 정신이었다. 둘째는 포천이 공산화 되서는 안 된다는 반공정신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군 복무를 유격대로 한번하고, 전쟁 후에는 징병제도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군 생활을 했던 것이다. 이 무한의 애국정신을 포천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는데 모자람이 없어야 하겠다.

이제 포천은 1950년대 최전방의 시골의 안보 1번지가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안보1번지이면서 동시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통일 1번지이다. 이제 포천에 이르는 길이 통일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포천은 변해야 한다.

그 첫째가 애향심(愛鄉心)이다. ‘무궁무진한 행복도시 포천’을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와서 살고 싶어 할 만큼 강한 유혹을 느낄 수 있도록 새 포천으로 거듭나게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심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포천에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전사들이 선혈을 뿌리고 살과 뼈를 묻으면서 지켜낸 안보의 1번지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생각과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대한민국 1등 시민’ 만 사는 포천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념적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

는 기술을 계발하고 갈등을 통합의 새 힘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영국의 정치가 파머스톤(Henry John Palmerston)이 말한 것처럼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국가 이익에 따라 관계가 변화할 뿐이다. 분단을 관리당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분단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포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집중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앞장서 안보 1번지를 통일 1번지의 무궁무진한 포천이 되게 하는데 모자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독수리유격대원의 책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생활화하는 것이다. 17연대 1대대장이 63명의 대원들에게 무단부대이탈을 추궁했을 때 간부 5명이 책임을 지고 죽음의 길에서도 “대한민국 만세 삼창”으로 최후를 맞이했을 만큼 책임정신을 포천의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독수리유격대원 16명 전사(戰士)의 육신은 사망의 길이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며 자손들에게는 영광이다. 포천시민들이 선배 독수리유격대원들처럼 책임정신으로 재무장하는 시민정신을 실천할 경우 포천은 큰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 으뜸의 통일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김창주 교수 약력

○ 국방홍보원 국방FM 작가

1. 학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행정학석사 (군생활이 지역감정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 경력

- 육군종합행정학교 육군소령 예편
-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학부 및 대학원 강의
- 국방일보 국방칼럼
- 국방FM 5분칼럼

3. 연구논문

「게임이론을 통해서 본 남북한 통일방안」 정신전력연구 제29호

4. 저서

공저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국방부(1996)
공저 「병영문화와 인권친화리더십」 한국학술정보(2008)
편저 「호국성 독수리 유격대」 보림(2012)

抱川을 빛낸 人物 研究 (第11輯) - 2016 學術研究發表會 -

발행일 : 2016년 10월 7일

발행인 : 포천문화원장 양 윤 택

발행처 : 포천문화원 (031)532-5015

편 집 :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제 자 : 장포 박 재 교

인 쇄 : 합동인쇄 (031) 534-4000

※ 이 책은 포천시의 지원과 관계 문중의 협찬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